한인
이민사 연구 편찬 회지
창간호

발행일 : 1985년 11월　　발행인 : 이익환　　편집인 : 유대식

- 창간사
  Presenting the Inaugural Issue
- 이민사 연구 편찬회 취지문
  Goals of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 조세프 홍과의 인터뷰
  Oral History: an Interview with Joseph Hong
- 2세를 위한 한글교육 좌담회
  Panel Discussion: Teaching Korean to Children Growing up in the United States
- 모범 소수민족이란 무책임한 보도
  Irresponsible Journalism: Model Minority
- 고 안윤자여사 추도
  In Memoriam Yunja Yu
- 편집후기
  Editor's Note

The Journal of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Vol. 1 November 1985

The Publisher: Ick-whan Lee

The Editor: Daeshik Yu
Korean American Research Project
University of Washington
(206) 543-6301

한인 이민사 연구 편찬회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 이사회
Board of Trustees

이익환
Ick-whan Lee
President, Arkay International Inc.

김홍기
Hong K. Kim
Assistant Director
Employment Opportunities Center

박건홍
Kun H. Park
Editor in Chief
The Northwest Korean Business

심영식
Harold Riach (Young Shik Shim)
Attorney at Law

노명재
Myoung J. Roe, M.D.
Auburn General Hospital

박헌주
Hubert H. Park
President
Path Enterprises Inc.

김상철
Sang Chul Kim
President
U.S.A. International Inc.

● 편찬위원회
Editorial Board

위원장 유대식박사
Daeshik Yu, Ph.D., Chairman and
Founding Editor
Korean American Research Project
Director, University of Washington

이기련
Ki Lyun Lee, Editor

박건홍
Kun H. Park, Editor

심영식
Harold Riach (Shim), Editor

● 임원진
Organizational Members

회장 이익환
Ick-whan Lee, President

총무 김홍기
Hong K. Kim, Treasurer/Secretary

섭외 김철준
Chul Joon Kim, Public Relations
Insurance Specialist

홍보 우영덕박사
Yung D. Woo, Ph.D., Membership/
Subscription
Weyerhaeuser Senior Engineering
Specialist

●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전계상 박사
Ke Sang Chun, Ph.D.
Retired Boeing Engin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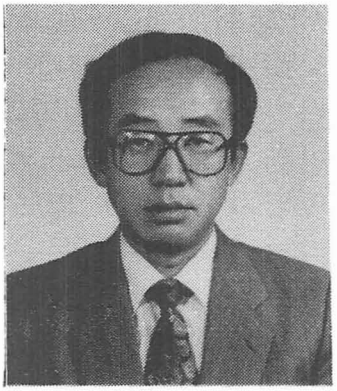
김간난 권사
Gloria K. Lee
Board Chairperson,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방선주 박사
Sunjoo Pang, Ph.D.
Archeologist, Washington D.C.

유재건 변호사
Jay Kun Yoo
Attorney at Law, Los Angeles

가시마 테쓰덴 박사
Tetsuden Kashima, Ph.D.
Director, Asia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창 간 사



회장 이익환

지난봄에 탄생한 이민사 연구편찬회의 회지 창간호가 추수감사절을 얼마 앞두고 햇볕을 보게된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의 발자취를 수록하겠다는 저희들의 취지에 찬동하시어 아낌없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으로 이루워진 결실입니다.

짧은 우리의 생애를 이민생활이라는 특수상황속에서나마 보다 긴 역사의 연속성위에 올려 놓겠다는 기본명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본 회지는 다음과 같은 편집방침을 따르기로 했읍니다. 첫째 인터뷰를 통하여 서북미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체험을 수록하여 우리의 내력을 알아보기로 했읍니다. 1898년에 Alaska 의 Ketchikan에 정착하여 75세를 일기로 타계한 홍지인씨의 일생을 그의 아들 Joseph Hong(64)의 기억을 통해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기록하여 이민생활 변천과정의 한 토막을 들어보았읍니다.

둘째로 이민생활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좌담회 형식으로 기록하기로 했읍니다. 창간호에 실은 『2세를 위한 한글교육』은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연석하여 미국에서의 한글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의 인간상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셋째 본 회지는 모든 글을 한글과 영어로 싣기로 했읍니다. 그리하여 자칫 멀어지기 쉬운 1세와 2세간의 간격에 다리를 놓고 세대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내력과 우리의 생각을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어 우리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저 했읍니다.

백년이 채 못되는 우리의 미국 이민사입니다만 피부로 절감하고 골수에 사무친 이야기가 너무 많고, 또 본회 창립회원들의 포부와 이민생활 현실간에 적지 않은 격차가 있다보니, 첫선을 보이는 저희 창간호가 다룬 범위가 좁아졌고 그동안 수집해 놓은 자료의 극히 작은 부분밖에 못 실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회지 발간이 회수를 거듭하는 동안에 수집된 자료는 꾸준히 소개될것입니다.

또 한가지 특기해야 할 일은 본회가 U.W. Korean American Research Project 의 연구비조로 $10,000을 U.W. Graduate School Research Fund 에다 Korean American Community Matching Fund 로 기증한 일입니다.

그 결과 현재 유대식씨가 집필중인 『Koreans Americans in Washington State : Their past & Present』가 명년 봄에는 탈고되서 가을에는 출판될 예정입니다.

저희 임원일동은 지난봄 여러분의 후원을 호소했을때에 보내주신 격려를 잊지않고 있읍니다. 『한인사회에 유익하고 실현가능성이 농후하기에…』 하시며 수표를 보내오신 어느 실업가, 『족보를 만드는것은 세속적인 일이라

서 교회이름을 걸고 밀수는 없으나 과감하게 욕먹을 각오 단단히 하고 밀고 나가시오. 개인적으로 돕겠수다』 하신 어느 종교계 대표의 말씀, 『고작해야 파티나 야유회 또는 운동회하게 돈내라고 졸릴때 내 돈은 어느 호수에서 물퍼오듯 거저 생긴줄 아느냐고 거절해 왔으나 이민사연구 편찬사업이야말로 피땀 흘려 번돈을 낼 가치가 있어보여서…』 하신 어느 은행가, 『언젠가는누군가가 꼭 해야될 이라고 늘 느껴왔었는데 당신네가 이렇게 나섰으니 믿고서…』 하신 어느 의사선생님의 말씀, 그외에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성원을 받으며 출발한 저희들은 항시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쓸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이민사기록을 해 나가면서 바랄수 있는 최대의 의미와 기쁨은 우리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본다는 점에도 있지만, 우리의 후세가 우리가 없어지고 난후, 지금 우리가 궁금해 하듯이 우리 내력의 문제에 봉착해서 과거를 뒤쳐보다가 우리가 남긴 작업을 발견함으로서 느끼는 희열리라고 믿습니다.

창간호를 일독하신 다음에는 미흡하고 부족한점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과 함께 배전의 후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창간사를 줄입니다.

민용익 전권대사
1883년 **7**월 **19** 일 고종황제가 파견한
최초의 특별 미국사절단을 인솔

Yong Ik Min
Minister plenipotentiary who led the first special mission sent by King Kojong to America in July, 1883.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한인 이민사 연구 편찬회
취지문

어느 옛적에 지었는지 모르는 Alaska 생선통조림 공장의 허름한 근로자 합숙소에 들어가면 퇴색한 벽에 낙서가 즐비하다는데, 그중에는 틀림없는 한국사람의 이름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알리기나 하듯 희미하게 남아있는것을 볼수가 있다는 목격자의 말이 있읍니다. 또 Seattle 의 China town 에는 Hawaii 초기이민 직후부터 1940년대까지 10명내지 20명의 한국 독신남자들이 여름엔 Alaska 에 가서 돈벌이를 하고, 고기잡이 철이 지나면 Chinatown 으로 돌아와『도박이나 음주』로 겨울을 보내다 이듬해 고기잡이 철이 시작되면 다시 Alaska 에 일하러 가곤 했다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혹시 Alaska 통조림공장 합숙소 벽의 낙서속에 남아있다는 한국이름들이 Seattle 에 첫발을 딛고 Chinatown 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때, 역사의 미궁속에 간직된 이 비밀을 어떻게 풀어보느냐는도전을느끼기전에가슴을뭉클하게하는의문이앞섭니다.

우리가 이땅에 묻힌 다음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는 어떻게 후손들에게 남을것인가? 의식주 해결을 위해 맞벌이로 동분서주하다 죽으면 우리의 행적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남을것일까?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경위를 거쳐 미국에 오게 되었건, 어떤 이유로 워싱턴주를 제이의 고향으로 택하게 되었건간에 누구나 한번씩은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해야만 할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에 관련된 부문의 이민사 연구는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또 Hawaii, Los Angeles, San Francisco, Chicago, New York 등지에서 이민사에 관한 저서가 몇권 햇빛을 보았는데,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몇개 미국대학에서 Asian American Studies 가 활발해지자 그 일환으로 미주 한인사회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워싱톤주에 거주하는 3만 한인들의 역사에 관한 저서는 한권도 없는 실정입니다. 1973년에유재건씨가 영문으로 쓴 Seattle 한인사회 실태조사 보고서 첫장에서 워싱턴주 한인사의 윤곽을 추리해본것이 유일무이하게 있을뿐입니다. 그후 십몇년 동안에 워싱톤주 한인 인구는 급증해서 39개 카운티 중 둘을 빼고는 37개 카운티에 한국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 1980년도 국제조사에 나타났읍니다.

본 한인 이민사 연구 편찬회에서는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워싱톤주

각계각층에서 생업을 추구하고 있는 한인들의 활동상황과 이민생활의 현실을 수록하며, 한편으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발자취를 밝히는 작업을 하고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1. 년간계획 : 『워싱톤주 한인들의 과거와 현재』

이 프로젝트는 워싱톤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글과 사진으로 묘사하는 책자를 출판하기 위하여 본회가 앞으로 일년간(1985~86)에 실천할 사업입니다. 본회의 유대식 박사가 제출한 『Korean Americans in Washington State : Their Past and Present』가 최근 U.W. 대학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읍니다. 비록 프로젝트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U.W. 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것은 우리의 이민사가 워싱톤주 문화사에 차지하는 비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읍니다.

앞으로 일년동안에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사진을 복사해서, 출판될 책자의 원고를 영문으로 쓸 예정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전반에 걸쳐 한인들이 이룩한 업적과 공헌을 미국사회의 의식속에 다져 넣어서 우리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저 하는것이 이 프로젝트의 한 목표입니다. 특히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은 일세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세들이 읽고 이해할수 있도록 영문으로 기술함으로써 벌어져 가는 세대간의 간격에 다리를 놓고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산물로 출판될 『Korean American in Washington State : Their Past and Present』가 대학에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Korean American Studies 의 교재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그 교육적인 의의가 있읍니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사진과 기타자료를 간추려 한인사회 실태를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도 계획중인데, 프로젝트 완료후에는 모든자료가 우리 이민사 연구 편찬회와 U.W. 도서관에다 영구 보존하여 후대에 남기게 될것입니다.

2. Korean 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본회의 장기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의 체험을 녹음으로 기록하고 또 이를 서면화하여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 이민사에 발췌 수록할 계획입니다. 저명 인사들의 기록은 비교적 손쉽게 입수할 수 있으나 이민생활 전선의 최전방에서 묵묵히 우리문화의 기초를 쌓아 올린 수많은 무명인사들에 관해서는 서류화된 기록이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입니다. Oral History tape 는 이런점에서 우리 이민사에 남을 귀중한 자료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원초적인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는것은 본 사업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는것입니다.

3. 한인 이민사 연구 편찬회 정기회보 발간

본회는 정기회보를 발행하여 이민사 연구활동의 진전과 결과를 회원

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의 반응과 글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회보의 내용을 한글-영문 대역으로 실어 두가지 언어로 발행함으로서, 항상 그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등한시 되어온 세대간의 대화의 터전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문화의 연속성과 그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본 회보는 미국 주류사회에 우리의 생각과 위치를 부각시킬것입니다.

우리 이민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없이 어느 한 사람 또는 몇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방대한 과제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력이 통조림공장 합숙소 벽에 묻혀버리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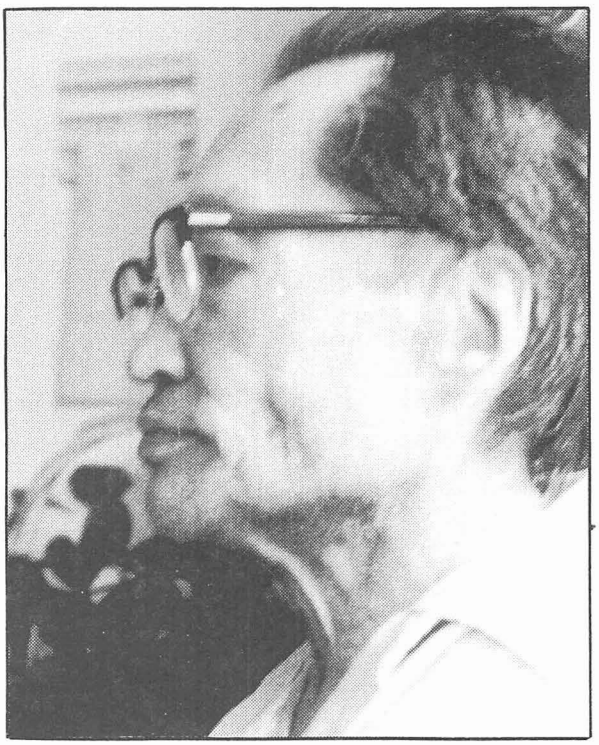
시작한 사람들(가나다 순)

권영길, 김철준, 김홍기, 박건홍, 백광호, 우영덕, 유대식, 이기련,
이익환, 이영주, 최재원

최초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여인은
기록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름이 없다

"The first Korean woman to visit America" remains nameless because of some historian(?)'s error.

Joseph Hong 과의 인터뷰



알라스카의 Ketehikan시에서 태어나 성장한 Joe Hong(64)는 Fairbanks에 있는 University of Alaska 재학중 2차 대전이 터지자 미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2차대전후에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대학교육을 끝냈다. 졸업과 동시에 Joe Hong은 연방정부 관리로 취직 Seattle에 있는 19th Board of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출생지인 알라스카로 가서 알라스카주 전체의 Housing Program담당관으로 일했다. 1963년의 대지진으로 알라스카의 여러 도시가 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Johnson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Joe Hong은 6개도시 복구사업의 총 책임자로Anchorage, Cordova, Valdez, Celdovia, Kodiak, Seward 등 6개 도시에 2억불의 예산을 할당하며 복구공사의 총 지휘를 했다.

한편 Anchorage시에 오랫동안 살아 온 고참 시민으로서 Joe Hong은 알라스카 주의 JuniorChamber of Commerce 임원직을 맡아 공헌을 했고 Veterans of Foreign Wars의 극동지역 담당관으로 U.N군 사령관의 영접을 받으며 서울을 방문하는 등 그의 이름은 알라스카 주에서 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졌다.

Alaska Alumnus지는 Joe Hong을 미국 주류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인사로 소개하는 글에서 "Joe Hong은 최초로 알라스카에 온 Korean American Alaskan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Anchorage Times지가 두차례에 걸쳐 Alaska's most eligible Valentine's Day bachelor로 선발하여"퍼레이드와 축제등을 통해 그의 공헌을 치하했다고 소개했다.

Joe의 부친 홍지인씨는 또한 서북미 지역에 최초로 이민 온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1903~1905년 동안 구한국에서 7,226명의 노동이민이 정식으로 하와이에 이주하기 5,6년전인 1898년에 홍지인씨는 이미 알라스카에 갔다고 그의 아들 Joe는 설명한다. 알라스카에 도착후 홍지인씨는 Skagway에 가서 금광을 탐색하러 다니는 Prospector들의 짐을 등에지고 운반해주는 힘든 노동을 2년 동안하다가 Ketchikan으로 가서 자영사업을 시작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Ketchikan 마을에서 부유층에 속할 정도로 자수성가를 했다. 그러나 불행이도 1929년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인해 홍지인씨의 사업은 재기 불능의 파탄을 겪었다. 불황의 희생이 되기 직전에 성공을 자랑도 할겸 일시 귀국한 Joe의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끝내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별세했다. 여객선의 일등실에 태워보낸 부인과 딸을 공황의 제물이 된 이후에는 여비를 마련할 돈이 없어 데려오지 못했다.

Joe Hong은 1975년 관리 생활에서 은퇴했고 지금은 당뇨병으로 Ballard Convalescent Center에 입원가료 중이다. Joe Hong과의 인터뷰는 지난 3월22일과 4월3일 이민사 연구 편찬 회의 유대식이 병원으로 방문하여 녹음했고, 녹음된 인터뷰는 안윤자가 활자화 했으며, 활자화된 원문의 한글번역은 김홍기와 이익환이 분담해서 수고했다.

유 : University of Alaska 동창회지에 실린 홍선생님에 관한 Oral history기사에 의하면 선생님은 Alaska의 Ketchikan에서 태어나셔서거기서 자라나셨다는데 몇년도에 출생하셨는 지요?

홍 : 1921년 생입니다. 실은 이달(3월) 말일이 64번째 마지하는 생일이 옳시다.

유 : University of Alaska에서 시작하신 다음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대학공부를 마쳤다고 하셨지요.

홍 : 네. U.A.에서 시작했다가 이차대전 후에 여기 U.W.에서 공부를 마쳤지요. U.W에는 46년부터 1948년까지 다녔읍니다.

유 : U.W.에서는 무엇을 전공하셨읍니까?

홍 : 상경학 전공입니다. 그 당시엔 경제과와 상과를 합친 상경학 학위 과정이 있어서 상경학과를 졸업했읍니다. 우리 Class가 마지막으로 상경학 학위를 받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졸업하면서 경제과와 상과를 합친 학위는 없애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U.W당국에 의해서 채택됐기 때문이지요. 우리 동급생들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실무경험을 갖고 대학을 다녔는데, 경제과와 상과가 합병이 되어서는 어느 한쪽 공부도 착실히 깊이 있는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경제과와 상과를 분리해서 학위수여를 해야 자격있는 학생을 배출할 수 있다고 우리 졸업반 학생들이 제의한 것이지요.

유 : U.W의 교과 과정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 하셨다고 볼 수 있겠군요.

홍 :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졸업반 학생들이 상경과를 상과와 경제과로 분리해야 한다고 투표로 결정했고, 대학당국이 그 다음해 부터는 두과로 분리하기로 받아 드렸기 때문에 우리 Class가 상경과의 마지막 졸업반인 셈이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경제과와 상과를 합친 학위를 받고 졸업 했읍니다.

유 : University of Washington을 졸업하신후에는 무엇을 하셨읍니까?

홍 : 졸업과 동시에 나는 일을 했는데 실은 내가 학위를 마치자 직장이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나는 연방정부의 19차 연방노사관계법 관리국의 일원으로서 처음 일을 하였읍니다. 그 당시 Seattle Board는 워싱톤주, 알라스카 주, 몬타나와 오레곤주 일부를 맡고 있었지요. 대학 졸업후 이것이 저의 첫 직장이었읍니다.

유 : 어떤일들을 이 Board에서 하셨읍니까?

홍 : 연방노사 관계법 관리국(Board of National Labor Relations Act)는 Taft-Hartley Act에 의해서 탄생하였는데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는 주요 부서 였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동 조합에 가서라도 조합 선거과정을 관찰하고 또 고용주들이 노동법을 지키고 있나를 감독하였지요.

유 : 사무실은 어디에 있었읍니까?

홍 : 내가 처음일을 시작했을 적엔 우리 사무실은 스미드 타우워 안에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른곳으로 옮겼죠. 지금도 노동문제 재심소(Labor Review Board)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했을 그당시와 같은 대규모는 아니지요. 그 후에는 모든 공장이나 영업체들이 노동법을 잘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일이 그전같이 많지 않게 된 거지요.

유 : 그러면 두번째 직장은 무엇이었읍니까?

홍 : 가만히 있자…… 좀 생각해 봅시다… 이곳에 내가 2년 있었으니까……

유 : 40년대 지요?

홍 : 네 40년대 초반은 전쟁에 나갔었고, 후반기는 대학 졸업후 직장을 2년간 다녔지요. 그땐 나의 부친을 모시고 올려고 했지요. 우리 부친은 30년이상 외부 구경을 못해 보셨거던요.

유 : 외부라니 어디 말씀입니까?

홍 : 외부이라면……우리는 Alaska남쪽 48개주를 "외부"이라고 부르죠. 이건 그당시 흔히 부르는 말이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내부" 그외에는 다 "외부"이라고 해서 유행했던 단어지요.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 하와이 섬들은 자기네들 것이고 즉 "내부"이고 그 외의 이 대륙의 주들은 다른 사람들 즉 "외부"이라고 호칭하는…… 말하자면 "우리와 그들"의관계지요.

유 : 그래서 부친을 모시고 오셨읍니까?

홍 : 아닙니다. 우리 부친은 그 당시 중풍을 앓고 계셨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부친을 보살피러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 드렸지요.

유 : 부친은 그당시 연세가?

홍 :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을 적엔 75세 였읍니다.

유 : 부친께서 몇년도에 돌아가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홍 : 기억할수가 없읍니다. 50년대 라고만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죠 50년대지요. 알라스카의 Ketchikan에서 돌아가셨읍니다. 우리 집이 알라스카의 Ketchikan이었으니까요.

유 : 제가 알기로는 부친이 1898년에 씨애틀에 처음 오셨다던데요?

홍 : 아마 그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당시 알라스카의 금광 때문에 왔으니까요. 그땐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이리로 몰려 왔는데 우리 부친도 외국(한국)에서 오셨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898년도는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어 있는 최고의 Gold rush의 해였지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획천금의 꿈을 꾸고 이리로 왔죠. 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고…… 우리 부친도 처음에는 실패를 몇 번 했으나 뒤에는 성공하셨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아주 부유했으니까요. 실은 알라스카의 Ketchikan에서는 우리 부친이 몇번 째 꼽을 수 있을만큼 부유했지요.

유 : 그 당시의 Ketchikan 인구는 얼마나 되었읍니까?

홍 : 19세기 말엽에는 약2,000명정도 였다고 합니다. 나는 Gold rush가 한물 간후에 자랐는데 그때는 대강 3,000명 정도였읍니다.

유 : 홍선생님의 부친께서는 대단한 모험가이셨던가 봅니다.

홍 : 네, 허지만 환경이 우리 부친을 그렇게 만들었읍니다.

유 :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니요?

홍 : 글쎄요. 우리 부친께서 미국으로 건너온 경위는 대충 이렀읍니다.

그 당시 미국 Gold rush는 세계 각국에서힛트 였으니까 한국에서 까지도 화제가 되어서 우리 부친의 집안에서도 한사람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당시 홍씨가문의 일곱 세대가 모여서 의논을 했답니다. 여비를 어떻게 모으며 누구를 보낼까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겠죠. 여비를 마련한 다음 홍씨 가문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을 보내기로 했읍니다. 그 결과 우리 부친이 뽑혔으니 자기의 의사라기 보다는 집안 어른들의 명령에 따른 셈입니다.……

유 : 그때 부친은 나이가 몇살이었읍니까?

홍 : 나의 생각으로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나이 였을 것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잘모르겠는데 그 옛날의 재료를 한번 뒤져 보아야 알수 있을것 같아요. 나는 그 당시의 부친 나이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읍니다.

유 : 대부분의 한국 이민은 1903~1905 사이에 하와이를 통해서 왔지요. 그러니 아마 선생님의 부친도 틀림없이……

홍 : 우리 부친은 그 이전에 왔지요. 선박편으로 샌프란시스코나 씨애틀로 왔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는 이 두 항구로 주로 동양인들이들어왔지요.샌프란시스코로 왔던 씨애틀로 왔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유 : 부친이 씨애틀에는 얼마나 머물 었는지 아십니까?

홍 : 모르겠읍니다. 사실 부친은 이런것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읍니다. 우리가 알라스카에 정착하였고 또 우리가 거기서 자랐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부친이 씨애틀에 얼마나 살었는지는 화제의 대상을 삼지 않었읍니다.

유 : 한국에서 홍씨 집안이 부친을 미국으로 보낼적에 알라스카를 정착지로 정했었나요?

홍 : 아닙니다. 그당시 금광 발굴을 시작한것은 Canada였었지요. Canada의 금광으로 가려면 Alaska에서 가는길이 제일 쉽고, 또 거기다가 Alaska도 금광이 그때 발견되었지요. 알라스카 금광은 1910년에 붐이었는데 우리 부친은 이 채굴에는 참여치 않었읍니다. 그분은"Skagway"라는 "White Pass"길이 이 Canada로 연결되는 곳까지 갔었읍니다. 그런데 Canada 국경을 넘기가 그 당시 상당히 까다로웠 읍니다. 나의 부친은 거기까지 갈 여비는 충분히 있었읍니다 만 Canada국경 수비대에서 일톤의 음식이나 $1,000없이는 입국을 시키지 않었읍니다. 부친은 음식 일톤도 $1,000도 없어서 미국 쪽의 "White Pass" Trail에서 Canada로들어가는 사람들의 짐을 등에 실어 운반해 주는 일을 했읍니다. 등에 짐을 지고 White Pass Trail로 올라가는데는 사흘이 걸렸지만 내려올적에는 약 한시간 밖에 안걸렸답니다. 저의 부친은 키가 작았죠 5피트2인치밖에는 안되었죠. 허지만 몸무게는 130파운드 였었읍니다. 내가 장정이었을 적에 그 정도의 무게가 나갔읍니다. 나는 병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줄어서 지금은90파운드 밖에는 안되지만 정상 때에는 130~140파운드 정도 나갔읍니다.

유 : 참 안됐읍니다.

홍 : 뭘요, 이게 다 인생이 아닙니까?

유 : 이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군에 입대

하셨다고 읽었는데요?

홍: 어떻게 이야기 하면 군대는 안간 셈이죠. 그당시 나는 University of Alaska에 다니면서 예비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나는 예비역장교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실은 군에는 나가지 않은 셈이죠. 그때 대학생들은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모두가 ROTC로 근무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당시 새 세대의 장교가 될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유: 그때 초대 Alaska주지사 Bill Egan을 홍선생님이 입영 시켰다던데요?

홍: 내가 입영시키것이 아니고 그당시 나는 서부 Alaska 지역의 훈련을 맡고 있는 훈련소에서 그 사람을 받어 들였읍니다. 우리는 그당시 훈련병을 받아 들여 훈련을 시켜 군인을 만들어서 부대 배속까지 시켰지요. 예 내가 Alaska 초대지사 Bill Egan을 훈련 시켰지요. 그이와 나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읍니다.

유: 주지사 Bill Egan이 연회석상에서 홍선생님을 소개할 때 늘 하던 농담이 있다던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홍: 실은 주지사가 나를 상당히 좋아해서 연회석상에 나와같이 참석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곤 했읍니다.

"저기 저 Joe (홍씨의 First name) 있지! Joe는 25년전 이차대전 때는 나의 boss였단 말이야. 헌데 나는 출세 하여서 지금은 내가 저 친구의 boss란 말이야!"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늘 즐겨서하던 농담입니다.

유: 농담조로 그렇게 이야기 했겠지만 또 한편으론 홍선생님이 Alaska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를 말해주는 농담속의 진담이겠읍니다. 더욱이 우리 한인 이민사의 관점에서 볼때 특기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홍: 당신은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 하겠지만 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단편이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당시 나와 같은 처지에서 나와같은 생활을 했었다는 것 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개개인이 이런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집단들이 그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집단의 일구성원 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는것 뿐입니다.

유: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데는 다들 무관심해 왔읍니다. 다들 살기가 바쁘니까요. 허지만 지금은 많이들……

홍: 네, 많은 움직임이 있읍니다.

유: 지난 10년내지 20년간에 Washington 주의 한인수가 약 5,000명에서 지금은 약 30,000명으로 늘었읍니다.

홍: 6.25동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겠읍니다. 사실 나는 한국 동란이 있기전 까지는 한국 여자를 본적이 없읍니다. 한국 동란이후 국제 결혼하여서 한국인들이 많이 왔지요. 어느 전쟁이던지 또 어디서 전쟁이 나던지 간에 미군 군인들이 많은 외국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건 사실입니다. 하. 하.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내가 상항 영사관을 방문 했을때 영사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적이 있읍니다. 영사가 하는 이야기가 "Joe 당신은 교육도 받었고 또 좋은 배경도 가졌으니 당신 집안의 내력을 역사로 한번 쓰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름있는 저자가 아니니 글을 쓰기 위한 자금은 어떤 한인재단에서도 얻을수 없읍니다. 그러니 당신의 혼자 힘으로 결국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곳에서 나하고 같이 자란 사람들이나 모든 알라스카의 목재나 수산업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해온 사람들이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알고선 "이건 반드시 역사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하였읍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한데로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한일에 나는 참가하지 않었고, 나는 다만 우리 어른들이 한일의 결과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기록을 써야되겠다는 욕망이 없었지요. 실은 우리 양친이 50년 동안 알라스카에서 고생하면서 얻은 것이라곤 일획천금의 꿈은 사라지고 변변치 못한 이 자식 하나 남었을 뿐이고 보니 그 분들이 적지않게 실망하셨을 것이요. 가문의 수치로 여기셨으리라고 나는 이따금 말하지요.

유: 수치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홍선생님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느 가문에서도 수치라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틀림없이 선생님이 양친에게는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홍: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런지도 모르겠읍니다. 내가 자랄적에 우리 아버지는 정

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훌륭한 아버지 였읍니다. 그분이 살어서 내가 한일을 보았더라면 그분도 아마 자랑스러워 했겠지요. 우리 아버지는 남의 능력을 꿰뚫어지게 잘 보았읍니다. 내가 무슨 커다란 능력이 있다기 보다는 단지 미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의 일원으로서 그런데로 곧 잘 꾸려 왔다는 점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유 : 어느 부친이더지 선생님 같은 아들을 둔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실은 선생님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둔 집안이 얼마나 되겠읍니까?…… 아버님께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요?

홍 : 그건 참 이상합니다. 우리 부친은 이상할 정도로 한국에 관해서는 말씀을 거의 안하셨읍니다. 내가 꼭 질문을 하여야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정도 였지요. 허지만 나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한국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별로 없었읍니다. 돌이켜 보건데 아마 부친 생각은 나는 한국말도 모르고 또 커서는 한국에 나가서 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 부친은 한국이라는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 안하시고 미국에서 살것이니까 그저 미국에서 잘 살수만 있으면 하고 원했을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날그날을 옳바르게 살면 된다고 본 당시의 부친의 입장에서 온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유 : 부친께서 결혼하러 일시귀국하셨을 당시 Ketchikan에서는 제일가는 부자였던 것으로 아까 말씀 하셨는데……

홍 : 아닙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부자들 중에 한사람이었지 제일 부자는 아니었읍니다.부자였던 건 틀림없지요.

유 : 바르게 아르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는 건 결혼하러 귀국하기 전에 이미 부자가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홍 :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잘 살었기 때문에 배를타고 한국으로 나가는데 특등석의 표를 끊어서 나갔지요. 그때 동양인들이 여행하면 짐짝을 싣는 한모퉁이에 자리잡는 제일 싼 표를 사서 하였지 특별실은 꿈도 못 꾸었지요.

우리 부친은 그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던 사진 결혼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했읍니다. 결혼하기전에 만나보고 결혼했으니까요. 귀국하여서 여자들을 먼저 만나보고 그중에서한사람을 골라서 결혼 했읍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는 우리 어머님 집안 식구와 우리 아버지 식구들이 모여서 식을 하였읍니다. 참, 동양인 들의 결혼이라면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하와이에서는 결혼 브로커들이 있어서 여자 사진들을 보여주고서는 남자들이 결혼하겠다면 그 나라에서 하와이로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지요.장가들려고 하는 신랑감들은 대부분이 40대와 50대 사람들이라 길거리를 가다가 약 25세 가량 보이는 남자들만 지나가면 "$1.00을 줄터이니 너의 사진 좀 찍자"고 하곤 했지요. 혼인브로커는 이 젊은 청년의 사진을 출가할 여자들한테 보내고는 이 사람이 남편감인데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거지요. 사진을 보니 잘 생긴 청년이거던. 그래 가족들이 동의를 했다. 배를 타고 호노루루에 도착해 보니 사,오십난 노총각이 신부의 사진을 들고 기다리는데, 신부는 다른 사람 사진을 갖고 내리고는 했지요.

사진결혼은 적지 않은 사회혼란을 초래했지요.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들이 모두 사진 결혼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기된 혼란이 1930년대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20년내지는 25년이나 되고 보니,신부들한테는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그러나 대부분의 사진 신부들이 중년기에 달 했을때 는 아들 딸 키우며 안정된 가정을 꾸며 나감으로서 처음 도착했을때의 불안과 혼란을 극복해 나갔읍니다. 나중에는 모두 별 근심 걱정 없이 잘들 살게 되었지요.

유 : 사진 결혼의 이야기와 거기에 관련된 사회문제는 주로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홍선생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와이에서 사신적이 있으신지요?

홍 : 소년 시절에 2년동안 거기서 살았지요. 1928년 경에는 우리 부친이 이미 자수 성가를 해서 꽤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됐지요. 우리 어머님이 자기네가 성공한 것을 자랑도 할겸 한국에 다녀오기를 원하셨읍니다. 아버님이 여기에 동의해서 가족이 하와이에 갔는데, 아버님은 사업차 잠시 하와이에 머물고, 어머님과 누이동생은 한국으로 떠났읍니다.

유 : 선생님도 같이 가셨읍니까?

홍 : 나는 아버님하고 하와이에 머물었고 어머님과 누이는 한국으로 떠났지요. 그러자 경

제공황의 변을 당한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은 하와이에서 큰 사업에 투자를 했었읍니다. 나중에 1959년에 내가 하와이를 방문했을때 부친이 99년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던 땅을 가 보았읍니다. 당시에는 백인 인구가 동양인에 비해 소수였는데 동양인들이 토지 소유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서 동양인들은 토지나 부동산을 전세로 빌려쓰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 우리 아버님은 도시 한 복판에 반 블록이나 되는 땅을 99년간 임대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보니 과연 놀랐읍니다. 50년대의 싯가로는 1평방피트에 $1,000은 할 비싼 땅이었읍니다.

"잘 됐으면 나는 귀족가문의 귀공자로 자랄 뻔 했군요."

내가 같이 간 아버님 친구분께 놀라움을 표시했더니 그분 말씀이,

"귀족가문이 아니라 황족 가문이지, 이 땅은 이 도시 전체에서 제일 비싼곳이야"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제는 남의것이 되고 만 금쌀아기 땅을 바라보며 인생이란 변화 무쌍 하구나 하고 나혼자 말로 중얼 거렸지요.

유 : 그후에는 어떻게 됐읍니까? 어머님과 누이 동생이 한국으로 가신 다음……

홍 : 어머님과 누이는 다시 모시고 올 여비를 마련할 돈이 없어 한국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우리는 당시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여행 하던 식으로 하물선 편으로 돌아왔읍니다. 특등 선실은 생각도 못하고.

유 : 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읍니까?

홍 : 돈이 없어 그랬지요. 우리의 모든 재산이 다 공황으로 날라간 거지요. 1929년과 1930년도의 경제 공황은 미국을 일대 위기에 몰아넣었읍니다.

유 : 그래 하와이에서 알라스카로 돌아 갔읍니까?

홍 : 그렀읍니다. 알라스카에 돌아갔을땐 이미 그 아름다운 집도 넘어갔고 부친이 하시던 사업등 일체가 다 망했지요. 집도 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거지요. 다행히 부친의 친구가 자기네 땅에 움막이라도 지으라고 해서 "뱃집"을 하나 지었지요. "뱃집"이 뭔지 아세요? 형편없는 자료로 만든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은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고, 나무를 때는 조그만 스토브가 있었고, 벙커식 나무침대 위에서 부자가 누워 잤지요. 이런 집에서 나는 컸읍니다. 수도 물도 없었고 전기도 16살이 될때까지 없었고, 물론 수세식 변소도 없어서 깡통을 변기로 썼지요. 이것이 당시 내가 처했던 생활조건이었읍니다.

유 : 1929년에는 홍선생님이 8살의 소년이었겠읍니다.

홍 : 그렇습니다.

유 : 그런 어려운 생활이 얼마나 계속되었나요?

홍 : 1939년까지 이런 어려운 생활이 계속됐지요.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님은 1920년대의 번창하던 사업가의 지위를 끝내 회복하지 못하신거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과 같은 사정에 처해 있었지요. 그러다가 2차대전이 터졌고 얼마 안되서 아버님은 돌아가셨읍니다.

유 : Ron Inoue란 사람이 쓴 선생님에 관한 기사에 보면 선생님이 University of Alaska에 재학당시 파아티를 너무 요란하게 했다던가 해서 퇴학처분을 받을 뻔 했다는 재미난 에피소오드가 있던데 그때의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읍니까?

홍 : 아 그건 참 우스운 일화지요. 저는 U.A.에 갓 입학한 풋내기 신입생일 때 입니다. 상급생들의 신입생 환영 파아티를 받은 인사로 어느 금요일 밤에 내 방에서 상급생 몇명을 초대해서 조그맣게 파아티를 갖기로 했지요. 저복도 건너편의 방만한데서 이층침대를 나누고 지내던 내 Room mate하고 같이 파아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무렵에 술이 떨어지자 상급생 한 친구 왈

"걱정마라 내가 Fairbanks에 있는 Black & White 리커스토어 Credit Card가 있으니 전화로 술좀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안나" 그리고는 전화통을 들고 위스키 한 상자(열두병 들이)를 보내 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얼마 안 있다 술이 도착했다. 우리가 어찌나 소란을 피우고 놀았는지 다른 방 학생들이 무슨 변이라도 일어났나 보러 왔다가는 전부 Join을 해서 방안 밖에 한 20명이 모여 새벽 3시가 지났는데도 만취가 되어서 대성 방가를 하며 폴카 춤을 추면서 떠들어 댔지요.

그러다가는 모두 닥치는 대로 때려 부스기 시작들을 했어요. 의자, 책상, 가구 할것 없이

방바닥에다 산산 조각을 내 놓고는 신들이 나서 노래를 하며 껑충 껑충 뛰고 놀았지 방에 있던 침대 두개도 부셔 뜨리고 그 다음 나는 윗층으로 가서 Ketchikan에서 온 고향 친구 방에 가서 잠깐 눈을 붙히고 아침 7시경에 일어나 내방에 가서 그 난장판 끝에 남어난 것이라도 있을까 가 보기로 했지요.

내려가 보니 그야말로 수라장이더군. 술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고는 시멘트 방바닥에들 팽겨 쏘았으니 온 곳에 깨진 유리 투성인데다 침대는 그 모양을 알아 볼수 없이 부셔졌고,내 책은 누가 내다 던졌는지 하나 같이 다 창문밖에 흩어져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책도 다 찢었을 꺼야.

그래 하는 수 없이 큰 빗자루를 갖다 쓸어 내고는 할수 있는데까지 청소를 하는데 한 시간도 넘어 걸렸어요.

아침 11시쯤 됐을때 일이 벌어졌지요. 전날 밤 파아티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 친구가 굵은 크레욘으로 벽에다 파아티에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 놓았어. 나중에 술값을 거출해 받을 심산으로. 어찌녁 파아티에서 생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라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지.

아침 11시쯤 내 방에서 벽에 극적어려 놓은 낯선 이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때 늙스구레한 신사가 와서,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이 방에 기숙하는 사람인가?"하고 묻지 안아요.

"네, 그렇습니다만"하고 대답을 했더니 그노인이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Brunnell총장인데, 월요일 아침에 자네 한테 할말이 좀 있으니 내 사무실로 와서 비서하고 시간약속을 하도록 하게"

그리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고는 그날 저녁 식당에서 파아티에 왔던 친구들한테 총장이 월요일 아침에 나를 보잔다고 했더니, 상급생들이 이렇게 위안을 해주더군요.

"아이구. 하나님 맙소서. 어쩌면 너는 쫓겨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아서 파아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너는 쫓겨나지 않도록 해줄 터이니 염려 마."

월요일 아침 총장실에 가서 비서한테 이름을 댔더니 전화를 들어 총장하고 통화끝에 15분후에 총장께서 부르실터이니 앉어 기다리라는 거야. 15분이 지나서 총장이 나오더니 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앉힌 다음 폭탄 선언을 하는거예요.

"젊은이, 자네가 알다 싶히 자네는 용납 못할 과오를 범했어. 자네가 저지른 그릇된 행위 그리고 거기서 파생한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나는 자네를 퇴학에 처하기로 정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쇽크를 먹은 나는 계속하는 총장의 훈계를듣고 있었지요.

"나는 U. A에다 훌륭한 학업의 전당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 자네 같은 야생마들이 캠퍼스에서 난동을 치며 학풍을 흐리는 행위를 허용할 수가 없어,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되겠네"

이 말을 듣고 잠시 앉아 있자니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 올라 나는 입을 열었지요.

"총장님, 총장님께서 저를 집으로는 못 보내십니다"

"아니. 이 젊은 친구야"총장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네 같은 학생을 퇴학시킬 권한이 없단 말인가?"

"아니 올시다. 제가 한 말씀은 그런 뜻이아닙니다. 단지 제 설명을 들어 보시면 저를 퇴학은 안 시키실 것이니까 저에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 들어나 보세" 이 말끝에 내 설명이 시작됐지요.

"총장님, 저기 도서관에는 University of Alaska에 특별히 의의가 깊은 인명록이 있읍니다. 1926년에 U of A가 재정 위기에 처했을때 총장님이 Alaska 도처를 순방하면서 기부금을 요청한 적이 있고, 그때 총장님은 기부 한 사람들에게 그 인명록에 서명을 하도록 하셨읍니다."

그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틀림 없으나 그 사실이 지금 자네 케이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고 반문하기에 내가 이렇게 말을이었읍니다.

"총장님, 그 인명록을 보시면 그 안에 우리 아버님의 성함 홍지인이란 이름이 있읍니다. 제 소견에는 이 대학교를 위기에서 구출하는데 공헌한 사람의 아들을 단순히 상급생들이 그의 방에서 Wild party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리시지는 않으시리라는 생각뿐 입니다."

총장은 파이프를 피어 물면서 날 더러 담배 피우느냐고 묻는거예요. 그래 골연은 안 피우

지만 Cigar는 이 따금 피운다고 했더니,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나하고 같이 가세"하시며 학생회관의 식당과 오락시설이 있는 매점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거야. 자기 팔로 내 어깨를 감아 안고. 거기에 있던 학생들은 내가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정답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

매점 카운터의 청년이 와서 "무엇을 드릴까요"하고 묻자, 총장 말씀이 "Cigar를 좀 주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하시는 거야. 1886란 Cigar가 여기서 파는것 중에는 최상급 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응, 잘됐다. 이 학생에게 둬 개를 주게"하고 자기가 돈을 내셨지. Cigar값을 지불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학생. 고맙네, 우리 대학의 재정난으로 과거에 내가 당면했던 여러 문제를 상기시켜 주어서" 총장은 다른 여러 학생들이 보는데서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는 총장실로 돌아 가셨어요. 쫓겨 나는 줄 알았다가 나는 위기를 면하고 살아났지 !

이제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자니 세상 살이란 참 모를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날 우리 아버님이 University of Alaska가 재정난을 당했을 때 기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도 U. A. 다니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별관심없이 장차 때가되면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은 그후 한번도 아버님이U.A 구출에 기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해 본적이 없었거든. 참 이상한 일이지.

유 : 홍선생께서 가장 요긴한 순간에 Brunnell총장에게 U.A를 위한 아버님의 공헌을 상기시켜 위기에서 빠져났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홍선생님의 능력과 임기응변의 묘를 말해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아버님께서 얼마를 U.A에 기부하셨는지 금액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홍 : 그런 말씀은 못들었고, U.A도서관 인명록에도 액수는 기재가 안되어 있읍니다.

유 : 저희 이민사 연구 편찬회 임원들은 이지역으로 온 초기 이민들, 특히 Seattle이나 워싱톤주에 최초로 온 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Ron Inoue씨가 그의 Oral history기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홍선생님의 부친 홍지인씨께서 1898년에 Seattle을 경유하여 Alaska로 가셨다면 홍선생님의 부친이 바로 저희들이 찾고 있는 이 지역에 최초로 이민 온 한국인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아버님 홍지인씨가 미국에 처음 도착하셨을때에 Seattle에 내리셨는지 혹은 San Francisco에 내리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홍 : 그 질문에 대한 확답은 할 수가 없는데, 왠고하니 내가 Alaska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우리 아버님이 어디에 도착했느냐는 문제는 관심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Seattle에 먼저 내리셨는지를 알아 볼 길은 한국 영사관의 초기 기록을 참조하는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Seattle 주재 한국영사관이 아니라 San Francisco영사관의 초기 이민 기록 말입니다.

동양인 인구의 증가로 해서 San Francisco의 한국 영사를 방문한 일이 있어요.

1950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한국 영사가 우리 아버님에 관한 기록을 갖고 있더군요. 그러니 그 쪽에서 알아보시지요. 특별히 큰 변이일어나지 않은 한 일단 수록된 기록은 지금도 보존되고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유 : 그 동안에 영사관의 인사 변동이야 있었겠지만 급격한 변동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일이 없으니 San Francisco 영사관에 문의 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말씀이 선생님의 부친께서 한국 출발 당시에 뜻하신 대로 캐나다로 못 가시고 캐나다와 인접한 미국 땅에 머물러 산길로 짐을 지고 등에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동안 그 일을 계속 하셨는지요?

홍 :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 일은 아마 2년이상은 안 하신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엔 보석상에서 시계수선 견습공으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유 : 어느 곳 보석상에서 일을 하셨나요?

홍 : Skagway에 있는 보석상입니다. Gold rush가 1900년도까지 계속했다는것은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금광으로 가서 일확천금하겠다고 도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가장 큰 Canada Gold rush는 그 당시 벌써 한 물이 지난 다음이었읍니다. 거기에다 캐나다 경찰이 얼마 이상의 식량과 현금을 가져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법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려던 많은 사람들이 Alaska에

멈추게 되었읍니다.

유 : 그럼 부친께서 Ketchikan에 처음 정착하신것은 언제였읍니까?

홍 : Skagway가 폐지된 다음이지요. Skagway는 사실상으로 그때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유 : Skagway란 마을의 이름인가요?

홍 : 지금은 인구가 1,200정도되는 작은 마을이지, 지금도 자그만 해요.

유 : 금광이 많은 마을인가요?

홍 : Alaska에서 Canada로 가는 산길의 초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온 겁니다.

유 : 아버님께서는 그 외에 또 어떤 사업에종사하셨읍니까?

홍 : 처음엔 닥치는대로 다 하셨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1920년대에 접어 들면서 Joe Smith라는 사람과 동업으로 업체 세개를 경영하게 됐어요.

유 : 어떤 종류의 업체였읍니까?

홍 : 우리 아버님이 Joe Smith하고 같이 빵공장, 식당 그리고 당구장을 사서 경영을 하셨어요. 그 밖에도 돈이 잘 벌리는 일이면 과감하게 장사를 하셨지요.

유 : 그러면 사업에 성공 하셨을 때는 Joe Smith씨와 같이 경영한 세 업체를 통해 돈을 버신 것입니까?

홍 : 그래요.

유 : 사업에 성공하신 시기가 언제 쯤이었나요?

홍 : 일차세계대전 부터 1929년의 대공황 직전까지의 시기였어요. 29년의 공황으로 여러사람이 폭싹 망했지요.

유 : 1950년에 San Francisco주재 한국영사를 만나신 때로 내려와서……

홍 : 50년대의 일인데 정확한 날짜는 자신이 없는데……

유 : 그때 영사가 선생님께서 홍씨가문의 역사를 책으로 엮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하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 : 영사가 그런 제안을 했었지요.

유 : 그후 그 책을 쓸 기회가 있었읍니까?

홍 : 아니요. 못 썼어요. 못 썼다기 보다는 안썼다고 해야겠지. 왜냐하면 나는 홍씨가문의 과거 역사 보다는 홍씨가문의 장래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나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과거사 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보다 큰 관심사였으니까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유 :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홀로 보내는 시간도 많고 하시니 이제라도 홍씨 가문의 역사를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홍 : 글세.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 하겠군요. 당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 나에겐 그것으로 족해요.

유 :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내력을 기록해 왔읍니까?

홍 : U of A동창회지가 내 생활을 부분적으로 기술해서 최근 한 페이지 짜리 기사가 나왔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내가 짧막한 글을 쓴 일이 있읍니다. 1955년으로 생각 되는데 그때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 가족의 수기를 싣겠다고 해서 내가 썼지요.

유 : 어느 신문에 내셨읍니까?

홍 : Ketchikan Chronicle지 였어요. 옛 신문을 소급해서 찾아보면 아마 찾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요.

유 : 지난번 인터뷰에서 선생님의 어머님 과 누이동생이 아버님의 자수성가를 과시도 할겸 모국 방문차 한국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후 어머님과 누이동생은 어떻게……

홍 : 어머님과 누이동생이 한국에서 별세 하셨읍니다. 어머님은 1936년에 돌아가셨고 누이동생은 아마 1946년 2월11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던 날 죽었어요. 제대 직전에 군에서 유급휴가를 주는데 "Terminal leave"라고 하지요. 내가 "Terminal leave"로 집에 다니러 갔을때 내 6학년 담임 선생이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나에게 한국에 있는 어머님과 누이 동생의 소식을 알아 볼 길이 있는데 내가 원한다면 수속을 할 수 있다기에 그 여선생과 같이 적십자사에 가서 집안 내력을 말했읍니다. 여선생 말씀이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24군사령부에서 머지 않아 결과 보고가 올거 라는 거에요. 과연 그 선생의 예상한 대로 이주일이 안되서 소식이 왔어요. 한국말을 잘하는 장교(소위)로 하여금 조사를 해보니 우리 아버님의 먼 친척들은 있으나 직계 가족은 사망 했다는 보고 였읍니다. 우리 어머님과 누이 동생의 출생및 사망신고 서류를 조회해 본 결과 였어요. 내 동생은 나보다 한살 아래인데 내가 군에서 제대한 1946년 2월11일에 세상을 떠났대요.

유 : 그러면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었군요.

홍 : 22살 아니면 23살이었지요. 아마 당신도 알겠지만 그때 한국엔 영양실조가 대단했지요.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쓰려고 한국에서 나는 식량을 모두 모아갔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문자 그대로 굶어 죽었으니까요.

유 : 선생님이 아버님과 함께 Hawaii에서 Alaska로 돌아갔을때 Seattle이나 San Francisco 를 경유하셨나요. 아니면 Hawaii에서 Alaska로 직행을 하셨나요?

홍 : 직행은 안했고 어딘가 거쳐갔는데 Seattle인지 San Francisco 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Seattle을 경유했을것 같아요. 더 가까우니까.

유 : 당시 선생님은 8살의 소년이셨겠군요.

홍 : 예. 그쯤 됐었지. 1930년엔가 31년었던가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데요. Hawaii에서 유치원에 다니다 돌아 왔으니까요.

유 : 홍선생님은 Anchorage신문에 두 차례나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갖춘 독신남성(most eligible bachelor)으로 크게 소개되어 그 지역의유지로 유지대우를 받은 일이 있다는데, 그 때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홍 :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요. 미국엔 Valentine's Day라는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Valentine's Day에는 독신남성 가운데 사회 활동이 큰 사람을 골라서 most eligible bachelor로 독신 여성들에게 소개하는 풍습이지요.

내가 35살 때에 Anchorage의 어느 신문사가 주최를 해서 Valentine's Day행렬을 했는데 …… 어느 신문인지는 생각이 잘 안나는 군요. 그때 Alaska의 동남지역에서 10명 뽑았을때 내가 그중의 하나로 선발됐었어요.

그 다음엔 15년 후에, 아니 20년후에 또 선발이 됐는데 그때는 내가 55살 때 였읍니다. 두 차례 뽑힌 사람이 둘이였는데 나하고, 건축가로 저명한 Wally Willenstein하고 내 생애에 두 차례 있었던 일인데 참 즐겁고 추억에 남는 명예로운 일이었읍니다.

유 : 그렇게 뽑힌 결과로 일어난 일로 기억나시는 것 없으세요?

홍 : 한 여인이 Propose를 해 왔어요.

유 : 어떤 여자 였읍니까?

홍 : 아주 예쁜 젊은 여자였는데 거절을 했지요. 이유라고는 간단해요. 내가 혼인할 여자는 내가 골라야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그럴듯 하다고 그러더군요.

Veterans of Foreign Wars(재향군인회) 대표로 나의 담당구역인 극동지역을 순방한 일이 있는데, 극동지역을 방문한 V.F.W 임원으로는 내가 처음이었읍니다. 나의 방문 목적이며 여정같은 것이 라디오, 테레비, 신문 등의 미디아에 사전 배부가 된 다음에 갔어요.

내가 서울에 도착하니까 비행기 타랍에 Red Carpet를 깔고 다른 승객들이 비행기 안에 기다리게 하고는 귀빈 영접을 받았읍니다.

유 : 서울에는 언제 가셨읍니까?

홍 : 2차대전 후의 일인데 한국전쟁 중인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군요.

유 : 한국전쟁 이후 였읍니까?

홍 : 아니, 전쟁후가 아니라 한국전쟁 이전이었나 봐요. 1958년쯤의 일인데…… 내가 1954년부터 1958년까지 전 미국 V.F.W의 임원이었으니까.

유 : 그렇다면 선생님의 서울 방문이 한국전쟁 이전일 수가 없지요. 전쟁이 1953년에 끝났으니까요.

홍 : 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전쟁후에 서울에 간거예요.

유 : 그때는 이미 군에서 제대하신 다음이 었겠읍니다.

홍 : 그러믄요. 제대는 40년도 중반에 했으니까요.

유 : 저는 선생님 한국에는 한번도 가본 일이 없으신걸로 알았는데 서울을 다녀오셨군요.

홍 : 갔다왔어요. 비행장에 내리니까 Red Carpet를 깔아놓고 U.N군 사령관, 동경에 주둔하고 있던 해군기지 사령관을 위시해서 친구들 여럿이 마중을 해주더군요. 그리고는 비행장 귀빈실로 안내하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많은 기자들로 부터 여러가지 질문을 받으 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읍니다. 여러 질문중의 하나가 바로 조금 아까 배우자 선택에 관해서 내가 한 말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기혼 이냐 미혼이냐는 것이었어요. 독신이라고 했더니 한 기자의 말이 "홍선생님. 나에게 20분만 주시면 홍선생한테 시집가기를 원하는 여자들 20명을 데려오겠읍니다." 지금 당장에 데려와서 최소한 인사라도 올리도록 하겠다는 거어요. 그래 좋을 대로 하라고 했더니 여자들 20명을 데려오더군요. 모두 대학 출신이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영어는 못하고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한둘 있어서 나에게 하는 말이 한국에서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이목이 군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차제에 높은 자리에 있는 Korean American을 만나뵙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생각하고 영광스럽다고 정중한 인사를 하더군요 또 관습이 다르니까 중매결혼을 않고 배우자 선정은 내가 직접하겠다는 입장도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 다복하시기 바란다고 하더군요. 하하하하 그 기자가 2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데려와서 인터뷰를 시키는데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하나 같이 나에 관한 보도를 제일면 기사로 실었읍니다. 다음날 아침에 호텔 식당에서 조반을 하고 있는데 head waiter가 와서 "이 신문에 난 이 분이 바로 홍선생님이 아니세요"하고 묻더군요. 전면은 영자 후면은 한글로 찍은 신문을 들고와 자기는 한글판을 먼저 읽고 영자판 기사를 보았 다고 나에게 주고는, 저명인사를 모시게되서 영광이라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그 head waiter가 준 신문을 갖고와서 알라스카의 미국신문들이 나의 극동지역 순방을 보도하는데에 많이 인용됐읍니다.

유 : 기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극동지역 방문을 하신 시기를 말씀해 주셨 으면 좋겠읍니다.

홍 : 내가 V. F. W의 극동지역 담당임원으로 있었던 54년~58년 기간이었음이 틀림 없읍니다. V. F. A가 내 여비를 지불했으니까 내가V. F. W의 임원으로 있었던 동안에 갔다 왔는데 어느 해였는지 정확하게 날자를 기억 못할 뿐이지요.

나의 Scrapbook를 들춰보면 정확한 날자를 알수 있는데…… 극동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Alaska의 모든 주요신문이 나에 관한 보도를 내 사진과 함께 일면에다 실었고, 나의 비망록에보면 그 기록이 다 보관되어 있는데……

유 : 홍선생님의 기록이나 비망록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홍 : Anchorage 시에 있는 집의 방하나에다 내 물건들을 쌓아서 넣어 두었는데, 그 어느 한 구석에 끼어 있읍니다. 내 기록을 찾아 낼려면 한참 고생해야 될것이에요. 방안에 물건을 하나 가득 쌓아 올려 놓았으니 말이지요.

유 : 빨리 완쾌하셔서 정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빌겠읍니다. 그리고 Anchorage 에 가시면 좋은 자료와 기록도 저희에게 보내 주시고…… 그런데 선생님의 치료경과는 어떤 상태이신지 좀 여쭈어봐도 좋을까요?

홍 : 상관없어요. 현재 경과는 서서히 조금씩 낳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쾌 여부는 금년 일년은 더 치료를 받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주일에 네번씩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유 : 그래 지금 현재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혼자서 걸어다니지 못하시나요?

홍 :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입원을 하고 있지요. 전적으로 남의 도움에 의존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여하턴 남의 손을 약간은 빌려하 하니까요. 빨리 회복하려면 이런 요양원이 좋다고 의사들이 판단을 내린것이지요.

유 : 무슨 질환으로 입원을 하셨는대요?

홍 : 당뇨병에서 온 신경질환으로 왼쪽 다리가 거의 기능을 잃어서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왼쪽 허리 뼈가 골절이 되어서 오래 동안 고생을 했어요.

유 : 허리 뼈는 어떻게 골절이 됐읍니까?

홍 : 병원에서, 이 병원말고 전에 있던 곳에서,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져 7개월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유 : 참 안 됐읍니다. 아니 병원 안에서 입은 골정상이시라니 더욱 놀랍습니다.

홍 : 부상에다 신체 일부의 기능 장애가 겹쳐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지요.

유 : 이곳 Ballard Convalescent Center에는 얼마동안 계셨어요?

홍 : 지난 11월에 왔으니까 한 4개월 됐어요.

유 : 이곳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읍니까?

홍 : 병원 두개를 거쳐 왔는데 하나는 Virginia Mason이고 또 하나는……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 군요.

유 : 입원가료를 받으셔야되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읍니까?

홍 : 꽤 오래 전으로…… 한 2년전으로 소급해야 되겠군요. 그때 나는 이미 직장에 은퇴해서 별로 특기할만한 일이 없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장차 은퇴생활의 계획을 세우던 중에 부상을 입었읍니다.

유 : 은퇴는 언제 하셨는 대요?

홍 : 55세에 은퇴하곤 이제 64살이니까……

유 : 은퇴하시기 직전에는 어떤 직장에서 일

하셨읍니까?

홍 : 아 그때는 연방정부의 감독관이 었읍니다. 나는 알라스카에서 연방정부의 큰 프로젝트 하나를 책임관리 하고 있었읍니다. 1963년 알라스카 지진 때에 6개도시 복구사업 책임자로써 Johnson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읍니다

유 : 어떤 6개 도시 였읍니까?

홍 : Anchorage, Cordova, Valdez, Celdovia, Kodiak, Seward…… 이렇게 여섯개의 도시입니다. 1963년의 알라스카 지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무후무의 대지진이었읍니다. 진도가 8이상 되는 심한 지진이었대요.

유 : 어느 해에 홍선생님이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읍니까? 1963년도 입니까?

홍 : 1963년도 이후입니다. 지진은 1963년도 일어났고, 64년도에 내가 임명되었는데 날자는 잊어버렸읍니다 만 64년 봅이었읍니다.그때 대통령이 복구 위원회를 임명했고 내가 그 책임자였읍니다.

유 : 그래서 홍선생님이 복구 사업을 이끌어 나가셨군요.

홍 : 경제복구 프로젝트를 하고 6개도시 복구작업을 했지요. 당시 그 프로젝트의 예산이 2억불이었는데 내가 예산을 책정해서 각 도시에 할당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감독을 했 읍니다.

유 : 홍선생님 그때는 대단한 감투를 쓰셨군요?

홍 : 네, 큰 감투하나 썼지…… 하하하

유 : 은퇴 하실때까지 그 자리에 계셨나요?

홍 : 아닙니다. 복구사업은 3년만에 끝이 났는데 끝날때까지 그 일을 하였고 복구 사업이 완료된후에 은퇴했읍니다. 내가 받은 임명은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만료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Lyndon Johnson이 대통령에 출마할에때 선거공약으로 연방정부의 경비절감을 약속 했는데 대통령 당선후 공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연방정부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55세된 사람은 이런 특별 프로젝트에 본인이 원하면 임명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조기 은퇴를 하겠끔 만들었읍니다. 그러니 프로젝트가 몇년이 걸리던 그 사업만 끝나면 65세가 되어서 은퇴할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은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나는 그걸 택했지요.

유 : 아 이제 알겠읍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은퇴를 하셨나 궁금 했었지요.

홍 : 네, 그렇게 된거예요.

유 : 진주만 공격후 미정부는 서부에 사는 모든 일본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보냈는 데 그 당시 알라스카에는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살었으며 어떤 박해를 받었는지요?

홍 : 그당시 알라스카에는 약 10가구가 살었는데 그중에는 나와 절친한 친구도 있었 읍니다. 알라스카에서는 일본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었읍니다. Ketchikan의 해양경비대장은증언하기를 자기가 Ketchikan에 있는 다섯 일본가구를 책임지고 맡어서 보호하면 도망을 칠 염려도 없다고 까지 했읍니다. 또한 자기은행 구좌를 일본인들에게 열어주겠다고 까지 했지요. 왜냐하면 일본사람들에게는 은행구좌도 다 닫어 버렸어니까요.

결국 그들은 모두 강제로 수용소로 넘어 갔지요. 실은 내가 군 복무시에 Hagawara 씨를 위해서(Mike 아버지) 그를 보증하는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그가 Idaho의 수용소에서 나와 시카코로 baker가 되어서 갔지요. Mike가…… 442부대에 있었읍니다. 442부대엔 내 친구가 많이 있었읍니다.

바로 며칠전날밤 여기 Channel 9 (공영 T.V)에서 "보이는 목표물"이라는 30분짜리 기록 영화를 보았읍니다.

유 : 홍선생님도 그걸 보셨군요.

홍 : 당신도 보았군요.

유 : 네, 그건 Bainbridge섬에 산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 였지요.

홍 : 맞어요. 나는 미국내 딴곳에 있은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모르기 때문에 그 기록영화를 참 흥미있게 보았읍니다. Alaska의 남동쪽에 있은 일본사람들의 경우는 알았어도 나는 여기에 살지를 않어서 U of W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Bainbridge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요. 그 영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읍니다. 한 백인 친구가 헌법에 위배되는 일본인 강제 수용을 했다고 들고 일어서는 가슴을 뭉클게 하는 프로그램이더군요.

유 : 네. Bainbridge Island 신문의 주필이지요.

홍 : 네. 조그만 신문, 발행부수가 천부 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신문이지요. 그이는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적은 거지요.일본인에 관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글 때문에 뒷날 "퓨리쳐"특별상을 받었지요.

유 : 저는 그 부분은 놓쳤나 보군요.

홍 : 그부분은Documentary에들어있지 않었읍니다. 몇년전에 조그마한 섬의 신문사 사람이 그 상을 탓다고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Documentary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이더군요. 나는 놀랬지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일이 Documantary로 나오니까 놀랍기도 하고 반갑더군요. 정말! 442부대만큼 메달을 많이 받은 전투 부대가 전미국 역사상에 없읍니다. 나는 442부대에 친구들이 많었읍니다. 도리켜 보면 참……

유 : 어떻게 그들과 사귀게 되었읍니까?

홍 : 그들은 고향 친구들이죠. 그들은 알라스카의 남동쪽에 살던 일본인들이었읍니다. 나는 알라스카 남동쪽의 대여섯 도시에 산 일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읍니다. 여행을 그 쪽으로 자주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죠. 소년시절에 나는 Seascont로써 여러도시를 여행 했었읍니다. 마치 여기서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할려면 hitch hike로 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를얻어타고 여행을 했읍니다. 어디던 가고 싶으면 가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아주 간단했죠.

나는 그 Documentary를 황홀한 기분에 도취되어서 보았읍니다. 정말 좋은 프로였고, 그 주인공이 말한대로 "일본인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낸것 같은일은 두번다시 일어 나지 않아야 만한다"고 한것이 옳은 말이지요. 특히 나의 친구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았읍니다。그런일은 정말 비극적인 불상사이고, 이 나라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늦게나마 인정하게 되었으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유 : 특히 Bainbridge 신문사 주필이 마지막 고등학교 야구시합 장면을 회상할때 가슴이 벅찬 기분이더군요. 경기가 끝나서 일본인 학생인 Catcher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야구장을 나가면서 머지않아 수용소로 떠나야 하는 가족들 있는 곳으로 그 장면 말입니다. 맥 빠진 발걸음을 걷는데 금발의 소녀 하나가 뛰어와서 이별의 키스를 해주고는 급히 달아나듯 사라지더라는 그 장면이지요.

홍 : 네. Ketchikan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John Talbolt라는 친구도 자기 아버지가 그곳의 시장이었는데 내가 도와준 Haragawa일가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를 섰지요. 그리고 John은 나에게 편지로 자기가 Haragawa 일가를 위해서 어떤일을 하는지 알려 주었읍니다. 한번은 John의 상관이John을 불러서John이 쓴 편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John, 네가 이 편지를 보내겠단 말인가?" 이런 편지를 Haragawa 일가를 위해서 쓴데 대해서 무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보내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아" John의 대답이 "네, 이건 내가 쓴 편지고, 나는 그런 편지를 쓸 권리가 있고,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도와줄 의무가 있는것입니다"그랬더니 그 상관이 "나는 이 편지 사본을 만들어서 군정보부에 보내야만 되겠네"했답니다. John의 대답이 "아무대나 보내더라도 우리 친구편에 서서 그를 힘닷는데로 돕겠다는 나의 뜻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는 그 당시 군대내에서 용납을 않던 일인데도 John Talbolt 는 과감하게 자기의 소신대로 했지요.

유 : 그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적습니까?

홍 : Talbot. 그 친구 일가는 Ketchikan을 개척한 가문이지요. 실은 지금도 그이의 이름으로 된 큰 회사가 있지요. 아마 회사 이름은" Talbot and Spalding"이라는 부두의 하역작업 회사지요. 한때는 그 회사가 석탄도 팔고 기선도 있었고, 아주 큰 회사였지요. 지금도 그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허지만 Talbot가문은 그곳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요. 나는 그 친구집에 자주 놀러 갔었읍니다. 그럴적 마다 케이크랑 커피랑 우유랑 많이들 먹었지요. 그이 모친이 늘 우리를 대접했지요. 이 친구는 Haragawa와의 우정 때문에 정부가 일본인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낸것이 잘못 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했었는데 그 친구 말이 옳은 말이지요.

나도 바른소리 한 사람중의 하나죠. 그리고 John이 일본인들을 도울려고 하다가 당한 일들이 나한테도 있었지요. 내가 일본인들이 미국시민으로 귀화할 때 그네들을 위해서 추천서를 섰읍니다. 그랬더니 부대장이 나를 불러서 내 편지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내 서신을 검열한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참 불행한 시절에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절을 일본인 친구들과 지내면서 많은 것을 체험한걸 다행으로 여기고 있읍니다.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이란 참 이상 하여서 언제 그런일이 일어 났던가 까맣게 잊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나에게도 자식이 있다면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어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겠어요. 미국 역사상에 앞으로 두번 다시는 그런 헌법에 위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는 국민들이 그런 일이 일

어나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죄 없는 이십만 일본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잡혀 갔으니까요. 그런데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때는 적국이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독일인이나 이태리 인들은 일본사람같이 수용소에 가두지 않았읍니다. 독일인 한사람 만이 철저한 나치 색채를 띄었다고 붙잡혔을 뿐 이지요. 단지 한사람 뿐이지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그당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읍니다. 불행한 일을 자주 도리켜 생각해 볼려는건 아니지만 그런 역경을 이겨낸 일본인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희생됐어요.

유 : 미국은 세계각국에서 이민온 사람 으로 구성된 나라이고 모두가 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유, 평등, 박애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편견 등의 여러가지 모순을 지니고 있는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홍선생님은 성장과정에 차별대우 같은 것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홍 : 특별히 생각나는건 없읍니다만, 지적을 하자면 단 한가지 교회에서 일어난 일 있는데 별로 괴로움을 당한 일은 없읍니다.

모든 동양인들 중에서 우리가 유일한 한국사람 이었는데 동양인들은 거의 모두가 Episcopalian이었읍니다. 왜냐하면 Episcopal 교회가 우리 동양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인 들은 자녀들을 제일 가까운 교회에 있는 일요 학교에 다 보냈읍니다. 카토릭 교회나 감리교회로 보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Episcopal Church로 보냈읍니다.

Dix라고 하는 백인 가족이 새로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그집 어머니가 Episcopal교회는 일본사람 교회니까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안 보내겠다고 하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른들간에는 약간의 승강이가 있었던가 본데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 나가는 어른들 몇 분이 Dix내외를 찾아가서 이렇게 따졌대요. "당신네 아이들을 어느 교회로 보내느냐 하는 것은 당신네가 결정할 일이고 아무도 간섭할 수 있는 일이 못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단지 그 교회에 나가는 우리 때문에 못 보내겠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핑계만은 퍼뜨리지 마시오." 결국 서로 이해가 잘 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그집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일요학교에 다니게 됐읍니다.

그집 아이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환영파티를 해준 생각이 나는군요.

우유랑 과자같은 것을 갖다놓고…… 그 후에는 우리 모두가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자랐어요. 특히 Richard란 아이하고 나 하고는 그가 세상을 떠날때까지 둘도 없는 친구로 평생을 사귀어 왔어요. Dix가족 모두가 교회에 적극 참여를 해서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풀렸어요.

내가 Aisan이기 때문에 받은 차별대우 라고는 내 일생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있은 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인종차별이란건 당해 보지 않은것 같습니다.

내가 연방정부에서 일을 했고 또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진급 했다는 사실이 인종차별이 그렇게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정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겠어요? 나중에는 내 이름이 Alaska주는 물론 전국에 알려져 명성을 누렸으니까요?

유 : 홍선생님의 탁월한 재능, 높은 의식수준 풍부한 표현력 앞에는 편견이 맥을 못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 : 내가 전번에 실력 Test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죠.그건 Columbia Achievement Test라는건데 군에 입대하면 누구나 다 그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배속이 결정되니까. 나는 재학시절 ROTC에 있으면서 시험을 쳤는데 교관이 나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Joe, 너가 이 대학에서 시험친 학생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중의 하나라는 걸 아는가?"하지 않겠읍니까? 나는 아직 이야기를 못들어 그 결과를 모른다고 했더니 그 교관이 "그러니 내가 지금 자네에게 알려주는 걸쎄"하더군요.

그당시 보병학교에 갈려면 110점을 받어야만 되는데 보통 평균점수가 90점이었거던요. 그런데 그 교관이 "Joe, 네 점수가 알고 싶지 않은가?" 하기에 물었더니 "136점이야, 4점만 더 받았으면 천재라는 칭호를 받을뻔 했어."

무슨 얘긴지 잘 못 알아듣겠다고 했더니."네가 4점만 더 받어 140점을 했으면 너는 천재로 분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됐더라면 내가 너한테 절절매야 할뻔했어. 네가 나의 사령관이 될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야" 그래서 서로가 웃었어요.

유 : 그 Columbia Acheivement test라는것이 지금의 I. Q Test와 같은건가요?

홍 : 네. I. Q. test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죠. 이건 그 당시 전국적으로 쓰여지고 있었읍니다. 내가 4점이 모자라는 천재의 부류에 속했었죠. 하하하……

유 :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것도 당연한 일이었군요.

홍 :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일을 할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 나의 태도의 덕이 더 크다고 봅니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잘 지냈고 또 연방정부 직장은 항시 어떤 사람이던간에 협조하며 남하고 같이 일을 할 줄 알아야만 성공합니다.

내가 그 Bainbridge섬의 기록영화를 보면서 나자신을 회상해 보았읍니다. 나는 다행이 도 그런 일본사람과 달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출세가도를 달렸으니까요. 아무런 장애도 나는 받지 않고. 그 영화를 본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지만 이제는일본사람들을 다 동정 하게 되었으니 흐뭇한 맘이 듭니다.

유 : 2차대전 당시 하와이에 산 한국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한국사람이라는 뺏지를 달어서 일본 사람과 구별하도록 했다던데요? "Korea an for Victory"라는 등의 표어를 찍은 뺏지를 달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홍 : 네. 맡습니다. Alaska에서는 우리 집이 유일한 한국사람이었고 우리 부친은 그곳 사람들을 다 잘 아는 사이였으니까 작은 마을이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두 우리 부친을 알었죠.어느 누구도 일본인들이 겪은 그런 불상사를 우리네에게 주지 않었고, 전쟁중에는 우리 부친이 오히려 안일한 생활을 유지 할 수가 있었읍니다. 실은 내가 군복을 입고 집에 휴가를 왔더니 우리 부친이 처음에는 나를 알어 보지 못하더군요. 우리 부친 어깨를 턱 쳤더니 "네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하더니 나를 한참만에야 알어보고 "아니 이거 Joe가 아니냐?"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반가워서 우시더군요. 하하하. 그래서 "울지마세요, 아버지 저가 집에 왔지 않습니까"했죠.

유 : 군에서 제대했을때 계급이 무엇이 었읍니까?

홍 : 난 군에 오래 근무하지 않었읍니다. 나는 장교 후보생으로 OCS에 갈 예정었었는 데 많은 예비역 장교가 현역으로 소집된 관계로 장교 양성이 필요없게 된데다 이미 하사관으로 근무처에 **배**속이 됐기 때문에 하사로 제대를 했읍니다.

제대 당시는 계급이 하사이었읍니다. 아참 깜빡 잊었읍니다. 나는 당시 육군사관 학교로 가게 되어 있었읍니다. 나는 사병으로써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 페어반크스(Fairbanks)에서 근무 했는데 그곳 공군기지에 사병이 12,000명 있었읍니다.

그 많은 사병중 나 혼자만이 Columbia Achievement Test의 결과가 뛰어났고 정신 상태나 연령이 꼭 적합하다고 해서 육군사관 학교에 가라는 추천을 받았읍니다. 하루는 상관방에 불려갔는데 그이가 나의 어깨를 붙잡으며, "Joe, 오늘 나는 자네가 굉장히 대견하게보여' 하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항시 대견하여 보여야지 하필이면 오늘만 그렇단 말입니까"하고 대답했지요. "특히 자네가 오늘은 기특하게 보이네"하기에 무슨 영문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술을 한잔 권하길래 마시겠다고 했죠. 그는 좋은 술을 특별한 날을 위해서 늘 Tent에 보관하고 있었읍니다. 술을 두잔에 부어서는 자초지종 설명을 하더군요. "Joe, 자네가 친 입학시험(사관학교) 결과를 아는가?"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어서 모른다고 했더니. 그래 맞었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입학시험 성적이 제일 좋아서 나 혼자만 사관학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흥분하여서 자기의 경우를 설명하더군요. 그이는 그 당시 대위 였는데 Oregon주에서 자기가 사관학교로 가게 되어 있었더군요. 사관학교는 한 주에서 한사람씩 선발되어서 가게 되어있으니 굉장한 엄선이고 사관학교로 간다는건 최대의 영광이었지요. 정치적인 농간으로 자기대신 다른 사람이 선발되어서 갔다더군요. 그래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나서 실력과 자격을 구비한 나를 꼭 사관학교에 넣겠다는거에요. 내가 만일 사관학교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화를 내더군요.나는 지금 있는 여기가 좋고 사관학교에 갈 생각이 없다고 했지요.

나는 그 당시 사관학교에 관해서 조금 알고 있었죠. 누구나 사관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는 사년이 아니고, 삼년 만에 졸업하게되어 있었

는데 그 이유는 지금같이 9개월 학교 다니고 3개월 방학을 하는 정규대학의 과정이 아니고 일년(12달)을 꼬박 공부를 했으니까 3년제 였읍니다. 사관학교 졸업후 입관이 되면 선서를 하는데 전쟁이 끝난후 최소한 3년 동안은 계속 군복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쟁이 끝나고도 3년은 복무를 더 한다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정부에서 장교하나 육성하려면 많은 경비가 드니까. 그래서 "대위님, 나는 Extra로 3년을 더 근무하고 싶지 않으며 나는 정규대학에 가고 싶으니 사관학교는 생각이 없읍니다"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없는거야, 그리고 내가 자네의 직속 상관으로써 나의 추천에 모든것이 달렸지 자네가 가고 싶다던가 가기싫다 던가 등 자네 생각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쎄." 하더군요. "대위님,기분인데 술한잔만 더 주십시오"하였죠. 그래서 우리 두사람은 위스키를 한잔씩 더 했죠.

우리 두 사람은 나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읍니다. 그 사람은 Oregon에서 죽을 때까지 나와 아주 절친하게 지냈고 매번 크리스마스때는 서로가 편지 왕래를 하였읍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본 지휘관으로써는 가장 뛰어 났던 장교로써 전쟁중에 서부전선인 불란서 전선에 배치되어서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고 돌아 와서는 결국은 그 부상 때문에 죽었읍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하여튼 그당시 사관학교 건은 특별한 경우였읍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군대 경력을 이야기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는군요.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보통 한국사람과는 조금 달랐다고 할까요. 허지만 한국인이 몇사람 없었어니까요.

유 : "조금" 달랐다는 말은 과소평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기 이민온 한국인 약 칠천 명과 그들의 이세가 홍선생님 같이 모두 출세했다면 Korean Community의 입장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 글쎄요. 내가 출세를 했다면 다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 부친의 덕이었읍니다. 그이는 항시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했고 또 그 목표가 허황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천할 수가 있었고, 나를 능력껏 힘자라는 한 도와 주었읍니다. 내가 대학을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언제나 대학에 관해서 이야기 하셨고 늘 대학에 가는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하였읍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때 대학에 가느냐 안가느냐를 정해야 돼었어요. 대학입학을 위한 필수과목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친에게 "대학을 가기위한 과목들을 선정하겠읍니다"고 했읍니다. 저의 부친이 하시는 말씀이 "잘 정했어, 그런데 나도 능력껏 너를 도우겠지만 자네도 일을 하여서 자신의 식비와 생활비는 벌도록 해야 될꺼야. 나혼자서는 대학을 마칠때까지 일체를 다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물론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고 대답했거니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었읍니까? 하하하

우리 부친은 나를 위해 알뜰히 저축 하였읍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읍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 관해서는 언제나 뛰어난 부친이었다는 것 만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유 : 홍선생님이 알라스카에서 두번이나 가장 뛰어난 남자 혼인 대상자로 뽑혔는데 그러면 알라스카에서는 독신으로 지내셨읍니까?

홍 : 네. 결혼은 한번 했읍니다. 허지만 Walleustein같이 늘 독신으로 지냈읍니다.

유 : 언제 결혼했으며 그 결혼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홍 : 내가 아주 젊었을 때에 결혼했읍니다.그때의 나이가 21살인가 22살이었는데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때 였지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직장을 가져서 돈을 안벌고 대학에 들어간 이유로 나의 처와 이혼을 했지요. 그녀는 내가 대학에 가느니 보다는 바로 돈 벌이를 하기 바랬지요.

유 : 그때는 그럼 홍선생님이 알라스카 대학에 입학했을때 였겠읍니다. 그 결혼 생활은 얼마나 지속되었읍니까?

홍 : 실은 나는 일년간 결혼한 셈이 됩니다. 내 처는 내가 대학에 가는걸 반대했고, 대신 직장을 가져서 자기를 먹여 살리기를 원 했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교육을 받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를 가야 하겠다"고 했읍니다. 집을 떠나 대학에 갔더니 자기 혼자서 남어서 생활한다는데 큰 불만이라 이혼소송을 해와서 그렇게 해 주었읍니다.

유 : 부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홍 : Marie 입니다.

유 : 간호부들이 자주 홍선생님 방에 드나드는데 병원 스케줄에 제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 : 네, 실은 저녁 시간이 되었군요. 여기서는 저녁을 3시 반에 시작합니다.

유 :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그만 두겠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다음번에 또 인터뷰를 하러 왔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홍 : 네. 좋습니다. 다만 먼저 전화로 확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어떤때는 내가 물리요법에 따른 운동을 하고 나면 쉽게 피곤해져서 콘디션이 안좋을 때가 있읍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주기 바랍니다.

유 : 대단히 감사 합니다. 홍 선생님의 지나간 경험담을 정말 재미있게 들었읍니다. 녹음테이프로 다시 들어도 더욱 흥미 진진 하더군요.

하와이 한인 성공회
1905년 **2**월 **10**일 창립
1925년 교회건물 준공

The Korean Anglican Church in Hawaii. First formed on February 10, 1905. The church was built in 1925.

좌 담 회

2세를 위한 한글교육

주 최 : 한인이민사 연구편찬회
일 시 : 1985년 3월11일 오후 7시
장 소 : Asian Room
Ethnic Cultural Center
University of Washington
사 회 : 이익환 이민사편찬회 회장
참가자 : 김간난 씨아틀 한국학교 교장
오계희 씨아틀 한글학교 교장
Treadwell 인희 한글학교 교사
신혜성 한국학교 교사
김정태 한국학교 교사
윤순자 한국학교 학부모 회장
김선혜 한글학교 학부모
이귀희 한글학교 학부모 회장
박건홍 이민사편찬회 창설위원
이기련 이민사편찬회 창설위원
유대식 이민사편찬회 창설위원

이 좌담회의 녹음테이프는 이숙진이 활자화 했고, 활자화된 원문은 이기련이 편집, 영문번역은 유대식이 분담했다

사회자 : 이제 한인사회도 인구가 삼만 정도 되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차차 기반이 잡혀가고 하니 그냥 정신없이 하루 일을 보낼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저희들의 행적(行蹟)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들에게 전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오던 중 마침 이번에 유대식 박사님의 프로젝트가 U. W에서 인가가 나서 연구비로 만불이 나오게 됨을 계기로 저희들이 이민사 편찬회를 정식으로 조직하여 사업에 착수 하기로 하였읍니다.

중요 사업계획의 하나로 2～3개월에 한번씩 Newsletter를 발간할 계획인데, 오늘 좌담회는 오는 6월에 나올 창간호에 실릴 계획입니다.

이제 씨애틀에도 한인학교가 두개가 생겨 여러 선생님들이 애써 주시는 덕택으로 아이들을 매주 학교에 데리고 나갈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만, 이세들의 한글에 대한 인식이 저희들과 달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읍니다만, 아이들을 한글학교에 데리고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읍니다. 미국아이들 하고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 것인데 왜 귀찮게 위크 엔드마다 한글학교에 가야하느냐고 물어올때 마다 아이들의 의문과 불만을 충분히 납득시킬만한 대답이 궁해지곤 합니다.

부모가 한국사람이니 너희들은 한국 말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미국에서 살더라도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살려면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가능하다는 정도의 대답은 해주고 넘깁니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항상 남게 됩니다.

한글교육, 한국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1세들이 의심않고 거의 습관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다시한번 비판해 보고 검토해 볼때 우리가 교육을 어떤것이라야 되겠다는 것도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느끼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생각해오신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먼저 한글 학교 학부형인 동시에 교장선생님이신 오계희 박사께서 시작 하시지요.

오계희 : 글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낳아서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목적이요, 교육자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기본요소로 자아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자아의식이란 자기를 안다는 것이고,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다 안다는 것이겠읍니다.

자기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여건 중에 가장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봅니다. 언어는 문화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사회생활에서 의사소통에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운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종족의 문제가 곧 문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마이너리티로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여건은 주류사회 문화의 그늘 속에 감추어져서 사실상 자기 자신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사람이란 어느 때인가는 자기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면 이런 사람은 갈등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자신이 자기를 이해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매조리티 사회에 있는 사람이 자아의식이 박약한 한국사람을 볼때 저 사람은 미국인은 분명히 아닌데 존재가 확실치않으니 결국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지 못하고, 둘째로 남이 자기의 존재를 뚜렷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처지에서는 자아의식이 건전하게 발전 못하고 그렇게 되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게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또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문화의 하나인 한글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자기를 발표하고 발휘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인 자아의식이 불확실하면 갈등이 온다는 말씀을 오계희 박사께서 해주셨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오계희 : 이런 예가 있읍니다. 어느 일본 계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퍼블릭 스쿨 학생들에게 너희들 중에 미국 사람 손들어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양계 학생들의 손이 반쯤 올라가서는 주춤주춤 망설이다가 어떤 학생은 손을 들고 어떤 학생은 눈치를 살피다 반쯤 올린 손을 내리고 말더랍니다. 그런데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번쩍 들거든요.

이것은 동양계 학생들의 자아의식이 부족하다는 실례라 할 수 있겠읍니다.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려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자기가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 의식이 명확치 못하면 Vision이 없어지고, 방향이 분명치 않고, 동기가 없고 박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예라고 하겠읍니다. 우리의 자녀 들도 무언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사회 : 우리 자녀가 미국사람 손들어 봐라 했을때 손을 못드는 이유는 반은 미국에 온지가 얼마 안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가령 2세나 3세들을 가정해 볼 때 한글교육을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미국 사람 손 들어라 했을때 손을 들꺼 아니예요?

오계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란 도대체 무어냐 하는 것을 다시 정의를 내려야 하겠지요. 얼굴이 희어야만 미국 사람이다 검은 사람도 미국사람이다. 영어를 꼭 해야 미국 사람이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미국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정의도 내려주어야 할것 입니다.

미국의 주류사회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만이 중요한 가치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 됐다고 하는 그릇된 인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미국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말도 잘하고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있을때 미국 주류 문화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 주어야 되겠읍니다.

사회 : 그 다음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금요 한글학교에 보내고 계신 박건홍씨께서 학부형의 입장에서 왜 한글학교에 보내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박건홍 : 저는 우선 쉽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측면하고 추상적인 측면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먼저 실질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첫째, 지금 우리는 이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갓 이민온 1세들이 미국에 적응하면서 자라는 2세들하고 코뮤니케이션이 안되기 때문에 2세들이 모국어를 배워서 1세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바라는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한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는 defensive한 동기에서도 한글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박사님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물어 봅니다. 너희들 왜 한국말을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을때, 좀 생각 끝에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것을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동양사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양어를 잘 하고 동양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 가정하고 가령 한자로 쓴 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너 이거 알지"하고 물어 본다는 것입니다. 내 측에서 보다 먼저 상대편측에서 나를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너는 미국사람하고 다르지 않으냐 하고 구분을 해서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도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가 방어적인데 있을꺼라고 봅니다.

세번째로 조금전 오박사께서 말씀하신 추상적인 차원에서 Identity를 확고하게 갖기 위하여 한글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내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한국인의 범주에다 귀속 시키고 있을때 그 Koreanness의 필요불가결의 일부분인 한글을 반드시 알아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글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위 주체성이라던가 identity 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만큼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것과 비례해서 그 강도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내가 100%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만큼 내가 한국말을 더 해야되겠다고 느낄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세 육세쯤 내려간 후 내가 10% Korean이라고 할때는 한글의 필요성을 적게 느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켜야 하는 또한가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민 사회 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산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공동체 의식을 이세들 한테 불어 넣어 줄 수있

는 기회를 한글교육을 받는 동안에 동시에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글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회 : 사회자로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 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초점을 한글에만 두고서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요 한글하고 한글문화를 함께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비중은 한글이 더 크겠지만서도 우리가 가르 칠려는 것이 한글만은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담당하고 수고하시는 조혜성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혜성 : 저는 한글학교에서 2.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집에서 만화영화를 즐기며 노는 시간에 한글학교 교실에 나와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대견 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따금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하고 얘기 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느냐 물으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영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너희들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으니까 한참 망설이더니 자기네(아이들)가 한글을 배우는 것이좋겠다고 하더군요.

첫째로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 학부모에 비해서 학생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한국말을 더 배워서 부모님들과 의사 소통을 하는것이 좋겠읍니다. 둘째로 학교에서는 불어, 서반아어 등 제 2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들은 한국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제 2 외국어로 해두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편지도 할 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 펜팔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으냐 했더니 좋다고들 해요. 그래서 기왕 만화영화도 못보고 왔으니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사회 : 사실은 우리가 2세 학생들을 일반화해 얘기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을지 몰라요. 여기서 낳았거나 아주 어려서 이민 온 아이들하고 중고등학교때 온지 3.4년 밖에 안되는 아이들 하고는 전연 문제가 다를 수가 있읍니다. Mrs. Treadwell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Mrs. Treadwell : 제 아이들은 여기서 낳았고 자랐지만, 저의 아빠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아까 조선생님 말씀대로 어차피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두분다 한국인 이던지 엄마나 아빠 한쪽이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을 공부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아요. 실생활에 있어서 음식, 예절, 친척 왕래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의식중에 몸에 배어서 한국적인 문화 배경을 상당히 알고있어요. 이런 이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말을 배우면 왜 배워야 되는가도 이해하기 쉽고, 또 말 자체를 배우기도 훨씬더 쉬울것 같아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고 한국말을 제 2 외국어로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련 : 학부형으로서 아까 박건홍씨가 말씀하신것 이외에 제가 느끼는 희망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몇분 말씀중에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넘어서고 싶어요. 왜냐 하면 한국에서 중학교 들어가면 덮어놓고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다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독일어나 불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개념의 제2 외국어로 교육을 시킨다면 부모 입장으로서 저는 좀 섭섭한 감이 들어요.

일주일에 세시간 정도 밖에 안되지만 저희가 여기서 한국말을 가르칠때는 물론 말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단순히 말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아이들이 거기가서 여러 선생님들 한테 듣고 다른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사이에 어딘가 모르게 한국인으로서의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글만 가르쳐 주는것은 저희 부모들도 조금 고생하면 가르칠 수 있읍니다. 주말에 교재를 사다가 놓고 녹음해 놓고 Video taping 도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minority중에서도 제일 minority에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majority사회에서 살아나갈때 자기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것은 단순히 한국말을 하고 한국 글을 읽는다는것 보다도 한국의 독특한 문화 사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기여할 수 있는데서 아이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나오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고전무용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명절 때 송편도 빚고 팥죽도 쑤고 영화 필림도 보여주고 하는것이 저는 가갸거겨 가르쳐 주는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오계희교장 선생님과 김간난 교장 선생님이 헌신적으로 수고 해주시는데 대해서 뒤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김정태 : 실무자로 대답 비슷한 얘기를 좀 해

도 괜찮겠읍니까?

사회 : 말씀 하시지요.

김정태 : 저도 지금 2년 남짓 가르키고 있는데요. 가끔 한글 배우는 것이 어떻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모국어이니까, 부모님들이 강요 하니까 또는 High School에서 Second Language로 택할 희망이 있으니까, 정도로 반응을 보이던 아이들이 한번 모국 방문을 하고 오면 한글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져요. 제 사촌 아이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한국에 가서 어른들도 만나고 친구 들도 만나지만 한국 말로 대화는 잘못해서 어깨만 들썩 들썩 하다가 돌아와선 분발해서 한글 공부는 열심히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왜 한글공부를 해야 되느냐?"고 회의를 보이던 아이들이 스스로 한글의 가치를 재 인식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때 저희들은 Seocnd language로서 말만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기련 씨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수반해서 민족얼과 문화관(文化觀)도 가르치려 하고 있읍니다.

저희 한인장로교회에서는 이삼 주에 한번 씩 문화영화를 보여 주는데요, 영사관에서 필림을 빌려다가 한국의 고유한 풍습, 한국 어린이들의 생활, 태권도의 유래, 시조 읊는 법과 붓 글씨 쓰는 법등을 보여 줍니다.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주입시켜 주며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이 호흡을 같이하면 아까 이 선생님이 희망하신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씨애틀에서 2세를 한글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각을 오래 해 오셨고 실제로 공헌을 많이 해오신 김간난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한인장로 교회 부속)를 창설하실 때의 얘기와 그후 발전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김간난 :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반복될른지 모르겠읍니다. 한국학교 창설 목적 중 가장중요 한것은 나는 한국 사람인 동시에 American이다 라는 identity를 가지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사회에 나아가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자는데 있읍니다.

이차대전 이전까지는 일본계 학생이나 중국계 학생들이 대학에를 안 갈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identity가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단 말씀이지요. 공부를 해봤댓자 대학교수도 못될거고, 공학박사가 됐댓자 공장에 가서 노동일을 할바에야 고등학교 마치고 training이나 좀 받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을높이 갖지 못하고 희망을 잃은 어린이들이 되는경향이 많았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처해있는 처지가 그때 시대에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들의 입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세들이 갓 이민와서 터전을 닦고 있으며 거기에 이세들이 자라나고 있는 요시기가 가장 한국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 교육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지도를 잘하고 아이들 중에 수재가 많아서 아이들에 대한 고충이 없읍니다. 그러나 일반 이민 교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미국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안되겠다고 깨닫게 하는 많은 고충을 당면하고 있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로 한 십년 일을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연 자라서 어른과 아이들이 말도 딴 세계요 생활도 딴 세계에서 살고 있는 현상이 여러 가정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아이들이 일곱살 부터 정신상태가 부모와 이반해 가요.

그래서 지금시대가 Seattle 뿐만 아니라 각도시에서 정성어린 노력과 시간과 자금을 들여서 한국 학교를 완성을 해서 한국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 학교는 이런 뜻에서 시작했고 불과 이년 밖에 안됐지만 한국 교육을 실시하니까 그 효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와서는 김정태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I hate Korean School 하는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하는 것을 보고는 미국학교 선생들의 지도와는 다르거던요. Korean school teacher는 어머니 같은 선생님. 또 집에 가서도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었는데 일곱살 여덟살 짜리가 무궁화 노래를 가져와서 흥흥거리니까 고단해서 누웠던 엄마는 일어나 나오고 TV 보던 아이들도 TV 끄고 엄마하고 무궁화를 불렀대요. 아이는 아이대로 TV만 보고 앉었고 어른은 어른대로 드러 누웠다가 어머니도 고단할 줄 모르고 아이들도 TV 끄고 엄마와 무궁화를 부를때 벌어져가던 부모와 자녀간의 간격이 좁혀지고 친근해진거지요.

또 나는 교회에서 심방을 하는데 부모들은 한국말로 아이들 한테 "권사님한테 인사해라. 목사님한테 인사해라"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뒷방으로 달아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며는 부모들이 시키기전에 아이들이 척 현관에 나와서서 "어서 오십시오"하고 으젓하게 인사를 해서 보며는 한글학교 학생이예요. 반면에 한글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역시 숨어버려요.한국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또전화를해보면 그 전에는 다Mommy부르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를 찾느냐 아빠를 찾느냐 하면서 제법 대화를 하자는거예요. 한국말로.

이런것을 볼때 가르친 사람들은 한글 교육이 뜻있는 일이라는 보람을 느끼게되고 또 부형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한글교육의 목적이 "나는 한국사람인 동시에 American이다"라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데 있는데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학교는 매주 토요일 아침 세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그중 두시간은 한글을 가르치고 나머지 한시간은 역사, 지리, 윤리를 한글 선생이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다 넣어서 그저 가갸거겨를 읽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중에서 광명한 역사의 일면, 본 받을 만한 우리 한국의 윤리를 골라 가르칩니다. 역사시간, 지리시간, 윤리시간을 따로 따로 두며는 한글시간이 없어지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동시에 거기다 한주일에 한시간씩 지리 역사 윤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온 선생님들의 노력의 효과가 일년동안엔 나타나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앞으로도 큰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 : 한글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을 얘기 하시는 동안 한시간이 지났읍니다. 앞으로는 교과내용, 교수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낼것이냐 하는 우리가 바라는 인간상도 아울러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선혜 여사께서 말씀좀 해주세요.

이선혜 : 실질적인, 정신적인 필요성을 느껴서 제 아이들을 한글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어려서 그런지 왜 가냐고 물으면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가지 학교가 재미 있어서 간다는말은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싸우고 울기도 하고 해서 억지로 데려다 놓던것이 일년반이 지나니까 이제는 제발로 가게까지 됐고 글도 조금씩 읽고 시험치면 50점도 받을 정도로 됐어요. 너 한국아이냐고 물으면 제 아이들은 자기는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미국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미국사람하고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지요. 제가 한글학교에 꼭 가라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가며는 자기랑 같은 친구들 그룹을 만나면 꽤 재미있어 하더군요. 갈때는 울고 가도 가서는 재미 있어하고 올 때는 웃고 나와요. 그러는 동안에 지금은 제 발로 걸어가게 까지 됐읍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말씀 드리자면 저희 아이들은 한글 배우는 것을 제일 좋아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만 그러는지는 몰라도 학교에서 보여주는 필림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 없어하고, 한국 역사시간에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루하다고 그래요. 아들아이는 태권도도 싫다고 그리고 한글만 배우면 좋겠대요. 딸아이 경우에는 고전 무용을 배우는데 화려한 옷입고 어디가서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런것이 좋아서 첫째 시간에 무용만 하고 집에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도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애써 가르쳐 주신 덕분으로 집에서 한국말 하는 것을 자신이없으니까 꺼려했었는데 요새는 손님만 오시면「안녕히 가세요」라든지 「안녕히 계셔요」라든지 분명치는 못한대로 그래도 꼭 한국말로 인사할 줄 알게까지 됐어요. 또 할머니하고도 우리 말로 몇마디씩 대화가 생겼고, 태극기만 보면 태극기 있다고 하고, 차타고 놀러가던가 할때는 차안에서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많이 불러요. 음악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이 참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느껴졌읍니다.

그리고 역사나 윤리 같은 것은 아까 김간난교장 선생님이 말씀 하신것 같이 한글 시간에 포함해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경우에는 수업이 금요일 저녁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 해요. 공작 시간에 한국그림에 색칠하는 것은 Kindergarten 에서 coloring하는것 정도이상의 도움이되는것같지않아요. 영화는 가끔 한번씩은 몰라도 자주 하니까 아이들이 지루해 합니다.

사회 : 한국학교 학부모 회장님이신 김순자 여사께 인간상에 관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김순자 : 다른 목적이 있어서 미국에 오신 분도 있겠지마는 대개가 바람직하고 좀더 보람있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에 목적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은 뒤로 제치고, 사는데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 컸고, 또 아이들의 생활 양식이 미국의 풍습과 문화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부모들과의 대화가 없어졌고 또 감정적 이해도 멀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들은 한국의 풍습과 문화를 이어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식으로 되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반면에 아이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지지요. Language Problem으로 인한 세대간의 격차가 많이 생겨서 여기에서 파생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한글 교육의 주목적으로 저는 삼고 있읍니다.

첫째, 집안에서 부모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며는 먼저 모국어를 알아야 되겠고, 또 문화와 풍습과 한국인의 기질을 배우므로서 자아 파악을 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Vision을 아까 오계희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찾아서 자기가 서야할 곳에 서야 되겠기에 한글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했읍니다.

한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에게 부담이나 고충이 없는것은 아니지요. 5일 동안 학교생활을 했는데도 토요일날 한글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 다음 일요일에는 저희들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을 교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크기 때문에 학교의 과외활동 같은 것을 하다보면 Private work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주입시키고 있읍니다.

사회 : 다음엔 수준문제로 들어가겠읍니다. 어떤 때는 한국에서 있는 아이들하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혀 다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얘기할 때도 이런 점이 고려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의 범절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서도, 할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한국말을 가르쳐서 부모님들과의 의사 소통을 잘 하게 한다는 것도 한정이 되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때는 점점 더 영어를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니 한국말은 일상용어에만 국한 되고, 조금만 골치 아픈 문제가 나오면 영어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제한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해야될 수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얻는것이 뭐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읍니다. 또 자기 발전을 하는데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지, 한국문화교육 없이도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아울러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 읍니다.

Mrs. Treadwell : 한국문화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예요. 그것이 없어도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서 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한국사람으로 생겼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사람이니까 우리 문화의 배경을 배웠을 때 한가지를 더 알게되서 그만큼 안목을 넓히고 배우는게 중요한거지 우리가 여기서 이세들을 가르쳐서 Korean Speech를 할 만큼 높은 수준은 바랄 수가 없지요.

우리 아이가 한글공부를 시작하고 두달쯤 지난 후에 일인데 길을 가다 간판을 보더니 「약방」하고 읽고 맞느냐고 묻는데 대견하더 군요 그러니까 한글을 매스터 한 것은 아니지만 좀 읽을 수 있을때 아이들도 배운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끼고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하라 하라 하시는 강요에 못이겨 억지로 하는척 하고 지난것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좀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후회스러운것 많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꼭 필요한 것을 못 느끼고 부모가 가라니까 가는거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뜻이 다 있어서 그렇게 시킨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올테니까 그것 만으로도 부모는 만족을 해야 되겠지요.

사회 : 유선생님 좀 말씀 해 주시지요.

유대식 : 먼저 두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여러가지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두 학교 학생들은 참으로 다행 스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 중에 한글교육의 구체적인 효과를 많은 실례를 들어 얘기 하셨는데 저도 저의 집사람이 가르친 학생들의 편지를 통해 과연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읍니다.

한글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고시조「태산이 높다 하되……」를 가르치고 그 다음 부터는 수업이 시작하면 먼저 다같이 또는 한 사람씩 이 시조를 외우게 하고서 그 주의 공부를 하도록 했더니 얼마후에는 소나무반 학생이 다 유창하게 이 시조를 외우고 쓴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읍니다. 그런데 요즘 몸이 불편해서 가르치지 못 하니까 소나무반 학생들이 병문안 편지를 한글로 보내 와 어떤 병이라도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이겨 낼 수 있으니 다 하늘 아래 뫼이로다. 그러니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빈다는 뜻으로 시조를 인용한 학생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는 집사람을 보고 과연 한글교육의 효과란 이런거 구나 하고 느꼈읍니다.

오늘 저녁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미국에서 Korean identity를 주장할때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 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개성이 당면하는 문제점을 이세교육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십사고 제의 하고 싶읍니다.

우리가 어떤 미국인 한테서 인종차별을 받었다고 하면 부당한 인종차별을 금지 하는 법조문 이라던가 미국이 건국이래 실천하려고 애써온 민주주의 원칙을 들고나와 우리는 항의 를 하고 싸울것 입니다. 또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인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Koreanness를 주장할 때 우리는 미국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또 이것은 일종의 Self-imposed discrimination이될것입니다.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해서는 안되고 우리는 스스로가 백인하고 다르니까 또는 흑인하고 다르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흉금을 털어놓고 우리 2세 교육을 얘기하시는 차제에 화제의 하나로 이 문제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련된 문제는 identity라는 것이 광범위한 범주로 Cultural identity 또는 ethnic identity도 있지만 개인의 identity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identity 가 없으면 개인간의 차이가 없어 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 받았고, 그들의 배경에는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는 사실을 물론 인식해야 하지만, 그들의 지성과 정서가 크게 성장해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무대로 모든 분야에서 활약 하기를 바랄때, Koreanness라는 테두리가 우리 2세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육성하는데 혹시 편협 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 봅니다.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것 공동체로서의 한인 코뮤니티가 필요로 하는것이 우리 이세들의상상력을 자극해서 학계에서는 Korean American Studies 같은 분야에 실사회에서는 Social work 같은 분야에 크게 공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전부를 이런 분야만으로 인도한다는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바람직한 일도 아닐것 입니다.

Ethnic identity가 Ethnic Group에 속해있는 개인이 당면하는 인생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Korean identity를 주장할때 이것이 Self-imposed discrimination이 아니냐는 반문을 받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건지, 또 한국 문화라는 테두리를 강조할때 그 테두리 안에서의 개개인 간의 차이는 어떻게 이세들에게 설명하느냐 하는 두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사회 : 제가 몇번 인간상 얘기를 여쭈어본 이유가 부모들이 미국에서 살기를 택한 관계로 아이들이 처한 여건이 한국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우리 일세들은 한국문화가 몸에 배어와서 아이들한테 impose하는 경향이고, Cultural identity로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Cultural identity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 하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얼만큼 이 아이들에게 한국교육을 시키고 어디 까지를 달성하는것 목표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 입니다.

박건홍 :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의 문제를 일직선상에 놓고 볼때, 한쪽 끝에는 Korean이있고 다른 쪽 끝에는American이 있고 그 중간에

Korean American이나 American Korean이 있읍니다.

지금 이민 세대의 자녀들은 그 중간을 택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숙명적인 처지에 놓여 있어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사는 아이들하고 똑 같이 만들려고 하는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우리 아이들은, 언어를 예로 들어 말한다면, 영어와 한국말을 완전히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사람은우리가 만들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어떤 한 순간에 한곳에서 사는 것이지 한 순간에 신이 아닌 다음에야 두 군데에서 다 살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분명히 Korean American이라는 중간 지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한국아이들과 꼭 같이 만들려고 하는것은 저는 달성할 수 없는 꿈이라고 봅니다. 허황된 꿈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살펴 볼때 지금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똑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겁이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면에서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순박하고, 더 솔직하고, 더 곧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것 같읍니다.

그런데 아까 유대식 선생 말씀하신 Self-imposed discrimination이란 문제는 우리 들이 자신이 없을때 그렇게 나아갈 위험성이 있읍니다. 우리가 영어도 못하고 미국 사회를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움추려서 자꾸 만 자기를 강조하다 보며는 바깥 세상에 대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Self-imposed discrimination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장벽을 뚫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그 장벽이 밖으로부터 나한테 작용을 해오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이 피해자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때는 제가 보기에 Self-imposed가 아닌것 같읍니다. 밖에서 오는 충격을 내가 받는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나아가야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것은 자신을 갖는 수 밖에 없읍니다. 아까 김간난 여사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밝고 명랑하게 미국 사회를 뚫고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그런 사람을 만들어 내야지만 그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사회 : 한국학교 교과중에는 문화 역사 예능 체육등이 있고, 그중 한글교육이 마땅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 해야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보내면서 느낀것은 자기네와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Peer group 의식이 어느면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박귀희 여사께서 말씀좀 해주셨으면……

박귀희 :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떤 사람 으로 키우겠느냐 하는 인간상 문제와 Peer group 문제는 물론 다른 문제이긴 하면서도 또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이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했고해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아이들을 Korean American으로 또는 American Korean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것이 어떻게 보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아이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연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아이들하고 좌담회를 갖는다니까 그때 아이들의 생각 자체…… 아이들이 어떤 모양 으로 자라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들어 본다음 다시 인간상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아이들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자라고 싶은가 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결부가 되어야지 교육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Peer group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아이들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자라는 과정에 배운것을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Korean Community가 사실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추상적일 수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사람만 모인곳에서 한꺼번에 많이 만날수 있는 기회가 많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서 사는 얼마동안에 왜 한국에는 머리가 새까만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는 아이들의 불평이었는데, 이런 쇼크는 한글학교를 통해서 갔더라면 좀 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이 한글학교에 일년쯤 다니는 동안

에 Peer group이 생겼어요. 각계 각층에서 나이도 다르고 부모의 배경도 다르고, 다니는 학교도 다르지만, 살고 있는 환경의 공통점 때문에 각자가 받고 있는 Stress도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서로 고민을 얘기하듯이, 아이들도 저희들의 고민과 기쁨을 나눌수 있게 해주고 Role model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한글학교의 큰 기능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옷 차림이나 몸가짐에 관한 공통적인 Style이나 fad를 나눌수 있다는 것이 Stress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고 봅니다.

그 다음엔 아직 제가 체험하지는 못 했지만 나이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집에서 한국식으로만 길렀더니 혼기가 됐는데도 미국 아이들과 나가지도 못하고 한국 사람과 접촉도 못시켜 주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한글 학교가 그런 만나는 장소는 아니지만 서로를 쳐다 볼 수 있고 한국 청소년의 image나 행동 Pattern도 볼 수 있어서, 조금 나이든 아이들 에게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계희 : 유대식 선생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박건홍 선생이 현실적인 면에서 실질 적인 대답을 하신 것 같읍니다. Korean American 이란 중간 위치에 있다. 또 박귀희 선생 께서 Peer group를 형성하면 서로를 관찰해서 자신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셨읍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여러가지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사회가 어떻게 다르냐는 문제가 되겠읍니다.

미국에서 사는 학생은 첫째로 영어를 잘 해야되고 미국의 주류문화를 잘 이해해야합니다. 둘째로 자기 종족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고 자기 종족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자기종족의 코뮤니티안에서 활약하면서 동시에 다른 종족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미국에서 실시하는 한글교육의 Guideline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에서의 교육문제는 교육자체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인종정책 문제가 되겠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화 문제를 논하게 됩니다.

과거에 미국을 설명하던 Melting Pot 이론이 여러가지 규탄을 받자 아시는 바와 같이 Cultural Pluralism으로 대치되었는데 Cultural Pluralism은 세가지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종족과 그 종족의 문화는 그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여러 종족들이 Universal Society를 형성해서 생활하고 이 Universal Society 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쓴다.

그러니까 밤에는 종족사회에서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언어를 하는 생활을 하고 낮이되면 Universal Society에 와서 사는데 각자의 문화는 인정하되 언어만은 공식언어를 쓰자는 것이지요. 셋째로, 모든 기회는 균등하되 모든 종족이 제 각기 결속해서 다른 종족과 대항 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해 주자. Cultural Pluralism이 주장하는 이세가지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Culture가 서로 다른데 피상적인 차이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기본적인 이념을 가르쳐 주면 학생이 다른 문화와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말을 가르쳐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종족에 짓밟힐때 자기를 알음으로서 이를 극복하고, 나아 가서는 다른 종족과 경쟁할 때에 단합함으로서 힘으로 대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사회 :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의논하고 싶은 문제가 몇가지 남았으나 계획한 시간이 다 지나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좌담회는 끝맺기 전에 저희"편찬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한두가지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오늘 좌담회의 내용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6월에 나올 저희 회지 창간호에 한글, 영문으로 동시에 실려 1세, 2세가 같이 읽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2세들(초, 중, 고 생들)만 데리고 좌담회를 갖어 그들의 숨김없는 의견을 들어 회지 2호에 실도록 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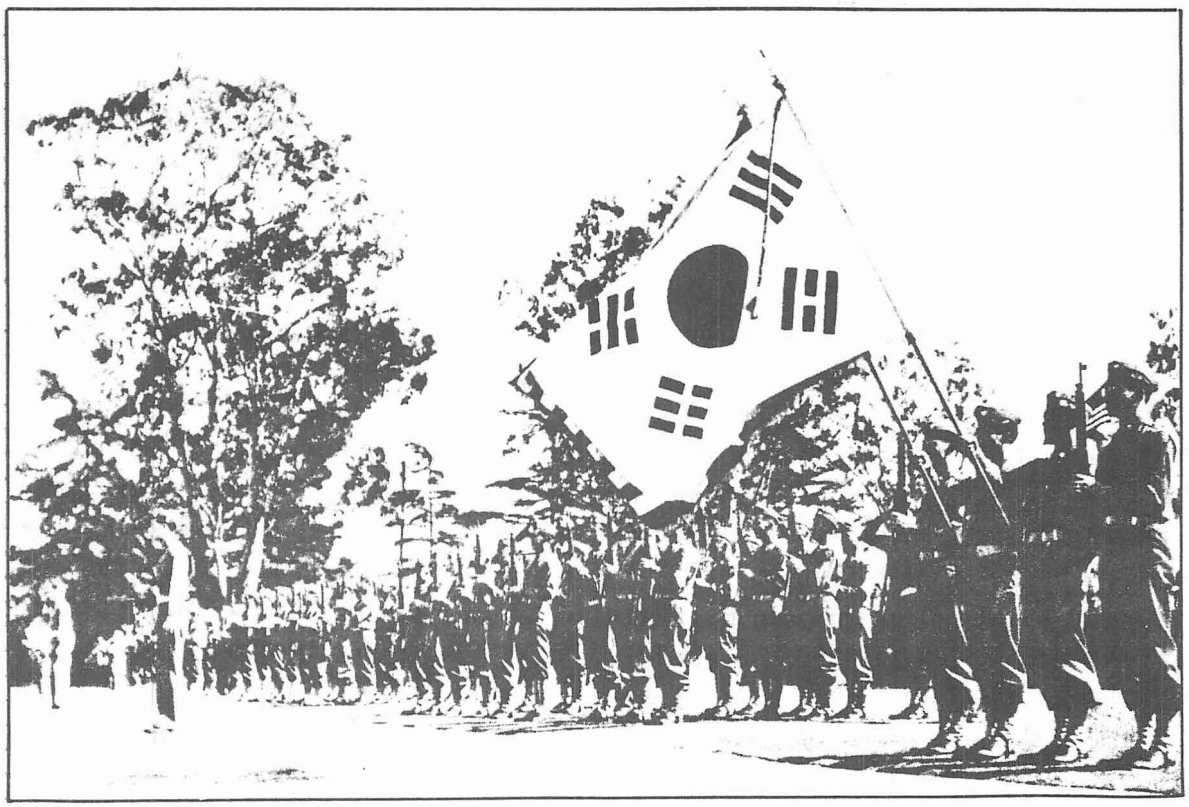
우리 한인사회가 여태까지 너무 일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인제 그 초점은 이세들에게 서서히 옮길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두 학교가 생긴지 2년이 되었읍니다만 아직도 School District와 유대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

여 일본어와 중국어는 High School에서 벌 써 Second Language 로써 인정받고 있읍니다만 아직 우리 한글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두 학교에 관계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편찬회가 다 같이 힘을 기울여 한글도 Second language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인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어 저희 편찬회의 사업과 이세들의 교육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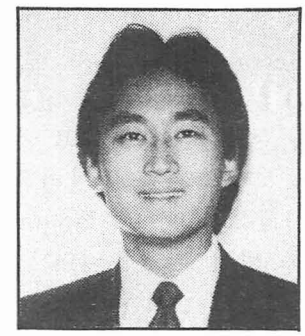
감사 합니다.



가주 한인국방 경위대 맹호군
1941 년 **12** 월 **22** 일 진주만 공격직후 창단

California National Guard's Tiger Unit comprised of Korean Americans; formed on December 22, 1941 in the wake of Pearl Harbor.

『모범소수민족』은 미디어의 무책임한 보도



변호사 심 영 식

미국 전역에서 구독되고 있는 유력지의 하나인 Parade Magazine은 얼마전 6월2일 호에 "촉망되는 미국의 앞날"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은 바 있는데, 이 기사의 주제인 동양계 미국인들의 성공담은 미디어가 급진전인 빈도를 보이며 지난 2년동안에 자주 다루어온 주제 이기도 하다. 필자는 위에 말한 Parade지의 기사를 쓴 저자 앞으로 편지를 내고 동 기사에 대한 논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발췌 해서 여기에 소개한다.

과거 수십년동안 동양계 미국인들을 가차없이 짓밟고 깍아내리던 Yellow journalism이 근자에 들어서는 새로운 수법으로 Asian American들을 스테리오 타이프에 몰아 넣으려고 하고 있다. 홍수 같이 쏟아져 나오는 신문 잡지 기사들이 우리를 소위 모범 소수 민족이라 치켜 올리며 늘어 놓는 주장에 의하면, 입신 출세의 기회가 만인에게 활짝 열려있는 미국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Land of Opportumties인데, 어느 종족보다도 동양계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모든 분야에서라면 과장이겠지만 적어도 경제계와 학계의 두분야에서는 그들의 탁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의 업적에 대한 찬사는 감미로움의 도가 지나 마치 사카린 덩어리를 씹는 듯 쓴 맛이 돈다.

한국에서 이민온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오랜 동안 짓밟혀 땅에 떨어진 재미 한인들의 이미지를 바로 잡아 개선하려는 듯한 근자의 보도를 읽을때, 나의 반응은 그저 좋기만해야되겠는데 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 달콤한 성공담들은 동양계 미국인들을 천시하여 Ching Chong Chinamen등의 image를 그려내어 학대 하던 과거의 각종기사에 비하면 많이 양호해 진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근자에 자주 선을 보이는 소위 긍정적인 기사들은 한결같이 동양계미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출세의 길이 트여 있는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 하는데, 이것 또한 동양계 미국인들의 생활상을 왜곡하는 기사라고 본다.

Asian American들을 모범적인 소수 민족으로 보도하는 이 새로운 경향은 미국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동양계 미국인을 깔보며 비천한 인간의 무리로 보도해오던 미국의 미디어가 일시적인 탈 바꿈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디아는 지금도 계속해서 Asian American전체 인구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몇몇 사람들, 특히 요즘의 Yuppy 기분에 맞추어서 고등교육을 받고 학계에서 또는 경제계에서 두각을 보인 극소수의 성공담을 마치 Asian American코뮤니티전체가 다 화려한 성공을 누리고 있는 양으로 보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싹트고 있는 이 새로운 경향은 동양계 미국인들이 이 땅에 첫발을 디딘 그 당시 부터 우리를 못 살게 굴어온 미국 미디아라는 짐승이 계속 우리의 현실 왜곡을 일삼아 오다 근래에 와서 새로운 탈을쓰고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미국사회에서 성취한 업적은 필자도 물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몇몇 개인의 업적이 소수민족 코뮤니티전체의 성공담인 양 소개한다는 것은 정의를 저바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양계 미국인들의 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전국의 일반독자 들로 하여금 동양계 미국인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생활현실 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듯한 착각을 이르키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야기된 일반국민들의 착각은 심각한 사회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기 일수다.

여기에 너무나도 뚜렷한 실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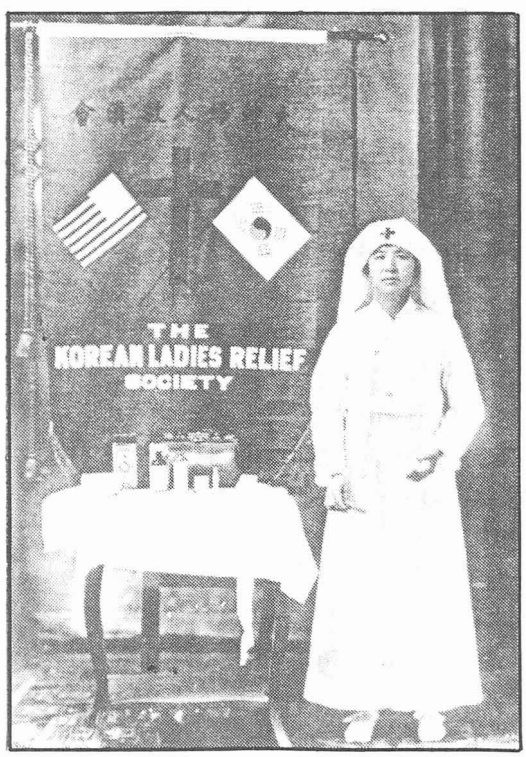
경제계나 학계에 공헌한 Asian American코뮤니티의 업적을 과대평가하는 낙관논으로 말

미아마 주류사회에서는 Asian American을 위한 Affirmative Action Program을 말살 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졌고 그 결과 여러 가지로 불리한 배경에서 자라난 수많은 동양계 미국인 들에게 사회진출의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다. 또 현실을 바로 보도 하지 않고 정확성을 잃은 기사들로 말미아마 인종간의 불화와 만행이 유발된 경우도 있다. Detroit에서 일어난 Vincent Chin살인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았으면 잘 기억하리라 믿는다.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된 두명의 백인이 경제적인 질투가 동기가 되어 Vincent Chin의 결혼식 전야에 야구방망이로 이Chinese American을 타살한 흉악한 살인 사건도 미디아의 그릇된 낙관논에서 유래된 정신 착란증이었다.

동양계 미국인을 찬양하는 최근의 기사들은 1980년도 미국 국세조사의 통계수자를 무분별하게 적용해서 동양계 미국인들이 백인보다 돈을 더 잘 벌어서 백인보다 더 많은 평균 수입을 즐기며 산다는 그릇된 주장을 밑받침 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국세조사 보고는 이민집단, 특히 최근에 온 이민집단에 관한 Information이 항시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다. 갓 이민와서 언어장애가 극심한 사람들이 우편으로 그 복잡한 국세조사 용지를 받았을때 어떻게 할것인지 상상해 보면 알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에 이 나라에 도착한 수십만명의 동남아 피난민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영구직장은 구할 길이 없고 운이 좋와야 어쩌다 한번씩 차례가 오는 품팔이 노동으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아니면 몇푼 안되는 그 나마 머지않아 못받게될 정부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피난민들을 생각해 보라.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세조사보고에 나타난 통계숫자란 신빙성이 박약하니 보다 조심성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것이다.

책임있는 보도란 극소수의 몇사람의 경우를 보고 전체 코뮤니티에 관한 추측이나 막연한 일반론을 전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앞으로 또 그런 기사를 쓸 기회가 있으면, Kansas City의 한 구석에 격리되어 있는 한국 사람 몇명을 보고 전미국의 Asian American코뮤니티 전체를 운운하지 않기 바란다. Asian American 코뮤니티도 어느 다른 소수민족 코뮤니티 못지않게 다양해서 무책임한 일반론을 펴서는 실태를 바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하와이 대한부인 구제회
1919년 **4**월 **1**일 창설
30 년간 독립운동지원

The Korean Ladies Relief Society in Hawaii formed on April 1, 1919; a strong supporter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for 30 years.

추 도

고 안윤자 여사

숙환으로 U.W. 병원에 입원중 1985년 9월27일에 별세한 안윤자여사는 1968년 12월에 세 자녀(당시 1,3,6세)를 데리고 씨애틀에 도착, 그보다 4개월 앞서 U.W. 대학원 영문과에 유학온 남편 유대식씨와 미국에서의 살림을 시작했다. 그후 만학도 남편을 도우며 세 자녀를 훌륭하게 육성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현모양처의 모범을 보였다.

안윤자여사는 1972년 U.W. 토목공학과의 비서로 근무를 시작, 1977년 공대학장실로 전근하여 연구담당 부학장의 행정을 도왔고, 1980년에는 학장실 행정책임자로 진급, 공대학장의 행정보좌관직을 맡아 크게 활약해왔다.

공과대학에서는 고인의 탁월한 재능과 헌신적인 공헌을 인정하여 Yunja Yu Memorial Fund를 U.W. Hub 안에 있는 People's Bank에 설립하여 세 자녀들의 장학금을 적립중이기도 하다.

한편 안윤자여사는 한인장로교회 소속 한글학교의 강사로 봉사도 했다.

또 한인생활상담소가 창설되기전에는 자주 U.W. 병원에서 한인환자를 위한 통역으로 여러시간 자원봉사를 했고, 생활상담소 창립시에는 상담소 정관 기초 및 영문번역, 영문 브로슈어 작성, 상담소를 위한 모금음악회를 주선하는등 뒤에서 돕는 일을 즐겨했다. 또한 U.W. 의 Korean American Research Project 와 한인 이민사 연구 편찬회 창설에도 안윤자여사의 숨은 공이 크다. 불치의 암과 투병중 특히 방사선 과열 치료에서 온 심한 부작용때문에 병석에 있으면서도 안윤자여사는 U.W. 교수회관에서 있었던 이민사 편찬회 모금 만찬회를 주선했고, Joseph Hong 인터뷰를 녹음테이프에서 받아써서 활자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며, 창간호의 영문원고 타자를 완료해 놓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편집후기

다음호에는 김간난여사와의 대담을 통해서 씨애틀 한인회 17년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 20세기 초엽에 사진혼인으로 미국으로 출가해와서 Gresham, Oregon에 정착하여 인생의 황혼길을 걷고 있는 할머니 세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세번째로 2세 학생들(중고대별로)과의 좌담을 소개하려고 한다.

1948년 이창희 선생님과 함께 Seattle에 도착하신때부터 근 40년동안 이곳 한인사회의 젊은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아껴주시어 코뮤니티의 어머니라는 별호를 받은 김간난여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2차대전 직후의 Seattle 한인들의 활동상황, Chinatown에 살던 연로한 초기이민 독신 남자들의 이야기, 한인회 창설 경유와 내력, 그밖에 여러가지 궁금한 이야기를 수록하려고 한다. 지난 7월8일 녹음한 인터뷰, 김간난여사가 제공하신 자료, 그리고 오계희 박사 회장 당시 한인회보에 실린 역대 한인회장 회고담 등 그동안 수집해둔 자료를 참조해서 엮어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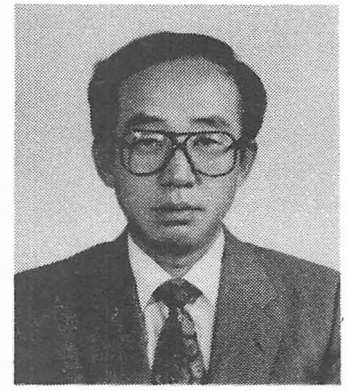
창간호에 소개한 Joseph Hong 씨의 부친 홍지인씨의 Alaska 초기이민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에는 Gresham 에 정착한 할머니 세 분의 사진혼인으로 시작한 생활경험을 들어보기로 한다. 손자손녀에 증손까지 둔 이 할머니들의 집안내력이야말로 한인 이민 90년사의 산 증언이다. 눈물겨운 고생을 이겨낸 강인한 생활력, 또 2세 3세와의 가치관의 격차,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세대간의 견해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야기한 가정문제, 노후의 외로움과 생활대책 등, 1960년 이후 온 사람들이 듣고 배울점이 많다고 본다. 지난 9월 중순과 10월초에 Gresham 과 Bremerton에 가서 녹음한 인터뷰를 위주로 기록하고, 또 D.P.A.A.에서 입수한 초기 이민 인터뷰 테이프(양주은, 김원용, 황사선, 김형순, 노정순, 안승화)도 참조할 예정이다.

2세 학생들과의 좌담회는 U.W. 한인학생회 간부, 한글학교 교장선생님들, Seattle School District의 이중언어 교육관계자들과 상의해서 U.W. Ethnic Cultural Center에서 2,3차에 걸쳐 공개좌담회를 갖고 그 기록을 토대로 정리해보려고 계획중이다.

앞으로 계속 저희 이민사 연구 편찬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 이 기회에 선배 여러분께 특청을 드린다. 이곳 한인사회의 원로 이창희 선생님이 작고하시기전에 사귀시고 일하시던 동안 알게된 이창희선생님의 생애에 관한 Information을 기억 나시는 대로 편지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충실한 기록작성에 더욱 도움이 되겠다.

보내주실곳
Daeshik Yu
Project Director
Korean American Research Project
Dept. of American Ethnic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98195
(206)543-6301
(206)523-4902(집)

Presenting the Inaugnral Issue



Ick-Whan Lee
President

Thanks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the community members,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still in its infant stage since its birth last spring, is able to publish the inaugural issue of the Society's Journal. With Thanksgiving Day just around the corner, we humbly present this volume to celebrate a harvest of concerted effort by a group of Korean Americans in the Northwest.

As we stated in our mission statement and elsewhere, it is our goal to give a sense of continuity to the short spans of our individual lives in the context of Korean American history, and we have adopted a few simple principles to achieve this goal in our Journal. The Oral History section documents the life stories of historically significant Korean Americans in the Northwest region. An interview with Joseph Hong (64) featured in this issue is also a story about his father, Mr. Ji In Hong, who settled in Ketchikan, Alaska in 1898. In all probability, Mr. Ji In Hong may be the very first Korean to have set foot in the Northwestern region. Secondly, the Panel Discussion section of our Journal focuses on current issues of common interest to all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is volume, the teachers and parents of the weekend Korean language schools exchange opinions on the subject of teaching Korean to children growing up in America, and discuss what kind of human beings they wish to raise their children to be. Thirdly, all items appearing in the Journal will be presented both in Korean and English. By keeping the Journal bilingual, we hope to bridge the widening ga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hile at the same time advocating Korean American interest by informing the mainstream society of our heritage and beliefs.

Korean American history, though less than a century long, has far too many variations of the saga of the journey to a new land to be told in a single volume. Also the inevitable lag between the dream and reality--between what the Society's founding members wish to accomplish and the financial constraints under which they have to operate--has placed a further limit of the scope of the Journal. Consequently, we could carry only a small portion of the materials collected since we began in the spring. We will continue to introduce these and other materials in our future volumes.

One of the things that deserves special mention is that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has provided a community matching fund of $10,000 to the Graduate School Research Fund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to support the Korean American Research Project headed by Dr. Daeshik Yu. As a result, a book-length pictorial essay on Korean Americans in the Northwest will be published in the fall of 1986.

As we continue to work on our projects, the founding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will constantly remind ourselves of your encouraging words. Pledging a $1,000 donation for the Society's cause, one businessman said, "Your projects seem highly feasible, and I am sure the Korean community will benefit form them immensely." One Korean American religious leader, likening our project to a family geneology on a grand scale, urged us: "Though I cannot officially solicit support from my church members since yours is an activity of secular nature, I can assure you of my personal backing because as a Korean, I think it is a very worthy project. You should push it on despite a lot of criticism you may encounter down the line." "This business of documenting our footsteps," said a Korean American banker, "appeals to me unlike those frequent requests for donations for some silly events like parties, picnics and recreational sports. I am glad you came up with a project worthy of some of my hard earned money." A Korean American physician said, "I always felt the need for something like this in my 20 years in Washington. Somebody has got to do it sooner or later, and I am glad you are doing it." These and many other encouragements will be kept alive in our hearts as we strive to live up to your expectations.

Although we may be motivated by our own need to satisfy our instinctive curiosity for our past, the greatest reward conceivable for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would have to be the delight our posterity would feel when our future generations, puzzled by the question of heritage and history just as we are now, happen to come upon the works we have left behind us.

Finally, we welcome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inaugural issue of our Journal. We need your candid criticism as well as your support for our growth.

유 길 준
1883년 최초 외교사절단원으로 방미후 미국에 체재하여 학업을 시작한 최초의 한국유학생.
"서유견문 저자"

Gil Joon Yoo
A member of the first diplomatic mission. He stayed behind to become the first Korean student in America. Author of What I Saw & Heard in My Visit to the West.

Goals of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In the Alaskan fish canneries of old times, the faded and dilapidated walls of workers' dormitories had a variety of graffiti among whose squiggles and sprawlings were quite a few names of people. Some were undoubtedly Korean names, which revealed to many an eyewitness of the late 1960's the vicissitudes of immigrants' lives in the United States.

Until about 1948 or thereabouts, according to one story, there were ten to twenty Korean men, all bachelors of advanced age, who had lived in Seattle's Chinatown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immediately following the first Korean emigration to Hawaii between 1903 and 1905. These men went to work in the Alaskan canneries during the fishing seasons and returned to Chinatown in Seattle to while away winter months, gambling and drinking until the next season.

Could those Korean names found among the graffiti in the Alaskan cannery possibly belong to some of the Koreans who passed away after living part of their lives in Seattle's Chinatown? Who were they? How did they get there? What went through their minds and hearts?

While these questions challenge our sense of history to uncover the secret hidden in the labyrinth of time, other questions cloud our minds about our own destiny. When the Korean American husbands and wives, after consuming themselves to eke out a living, are finally gone, where would their records be kept? After we are buried in this land, how can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know about us?

This is a problem that concerns every one of us, no matter what motivated each of us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for whatever reasons we chose the state of Washington to be our second home.

In the past, Korean American history received much attention for its involvement with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 Several books were published on the history of Korean Americans in such areas as Hawaii, Los Angeles, San Francisco, Chicago, and New York. More recently there has been a promising development in the study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especially as part of Asian American studies in several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Unfortunately, however, very little has been written on the history of Korean Americans in the state of Washington. The only existing study on the subject is a 1973 report by Mr. Jae Kun Yoo. In the decade since that report,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in Washington showed a phenomenal growth. The 1980 Census data showed that Korean Americans are actively engaged in the socio-economic and cultural enrichment of Washington State in 37 of its 39 counties.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is formed in order to record the current activities of Korean Americans in every corner of Washington State and, at the same time, trace the footsteps of those Koreans who came before us back to the beginning.

We, the founding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will try to achieve these goals by means of the following short and long range programs.

1. Korean Americans in Washington State: Their Past and Present

This project will conduct a one-year search for materials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a book-length pictorial essay on Korean Americans in Washington State and prepare for publication a manuscript entitled "Korean Americans in Washington: Their Past and Present." Dr. Daeshik Yu,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has been awarded a grant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Graduate School for this project. Although the UW grant covers only part of the project funds, it is highly significant th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officially recognized the important role Korean American history plays in the enrichment of the Washington State's cultural history.

The proposed pictorial essay will be written in English, incorporating the data and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and also photographs and documents gathered from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other sources. By realistically portraying various aspect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state--political, social, economic, cultural, religious, and educational--we will try in this book to clearly etch the history and contributions made by Korean Americans into the consciousness of Washingtonians, and thus advocate the Korean American interests.

2. Korean 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The Korean 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is a program, which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keeps functioning as a perpetual non-profit corporation. A wide range of Korean American experiences of historical significance will be recorded on tapes through oral history interviews, which will then be transcribed, translated, and edited.

Although documents on well-known historical figures are readily accessible, ordinary men and women who have been silently contributing to the foundation of Korean American culture are frequently neglected. The Korean 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will focus on documenting the experiences of unsung heroes and heroines, young and old, rich and poor alike.

3. Publication of Journal

A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Journal will be published regularly to keep its members and the general public informed of our research activities as well as the opinions of concerned Washingtonians.

The bilingual journal with a Korean-English facing text is intended to promote an ongoing dialogu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By presenting issues and problems of common interest in two languages, the journal will try to bridge the ever-widening gap between the old and young generations. It will provide materials for mothers and sons and fathers and daughters to read together in a language they are more comfortable with, and thus enhance their mutual understanding by shar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with one an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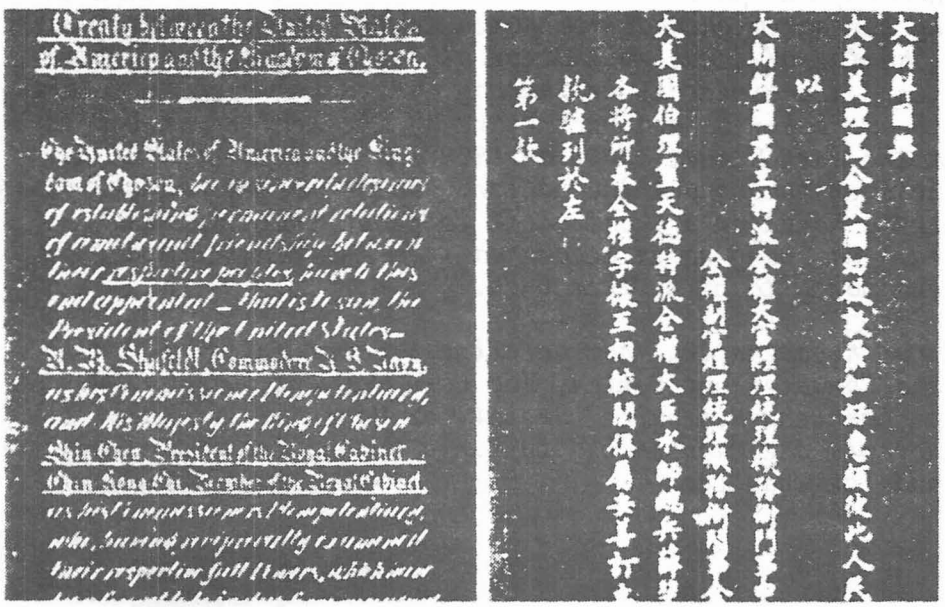
All materials produced by our projects will be kept at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for permanent preservation, and a set of duplicates will be sent to appropriate libraries.

The country we chose for our second home is a nation of immigrants aspiring to the principles of equality, freedom, and democracy. And no group of people can effectively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process without an accurate sense of who they are and where they have been.

We, the founding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urge our fellow Korean Americans in Washington State to join our effort to record where we have been and define who we are. Our task is not simply that of a few individuals, but rather that which concerns everyon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Your participation and support is essential if our footsteps are not to be buried in the graffiti on ancient walls of some workers' dormitories.

Founding Members: Kwang Ho Baek, Jae Won Choe, Chul Joon Kim, Hong K. Kim, Young Gil Kwon, Ick-Whan Lee, Ki Lyun Lee, Young Joo Lee, Kun H. Park, Yung D. Woo and Daeshik 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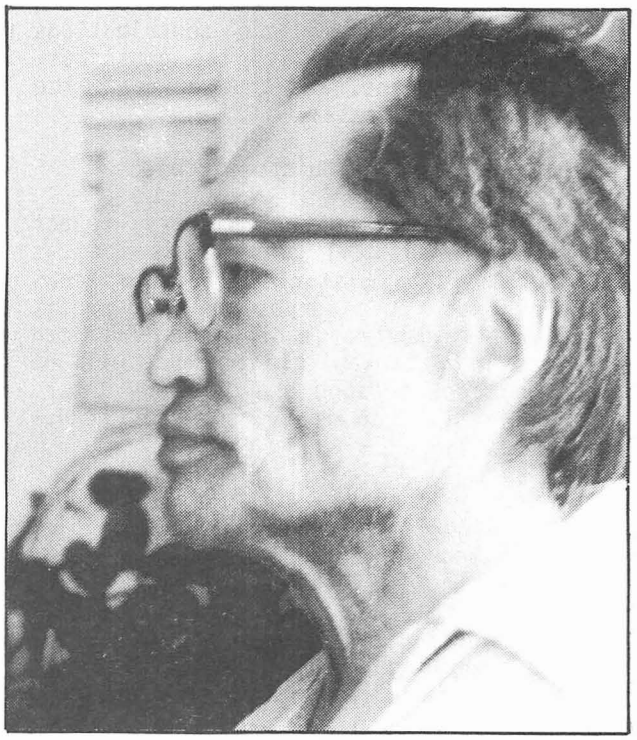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체결된 평화, 우호, 통상조약사본

A copy of the Korea – U.S.A.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signed on May 22, 1882.

Oral History

An Interview with Joe Hong



Born and raised in Ketchikan, Alaska, Joseph S. Hong attended the University of Alaska in Fairbanks but left at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to join the US Army. He later completed his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e worked for the Federal Government as a member of the 19th Board of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in Seattle before returning to Alaska where he administered housing programs statewide. When Alaska was hit by a devastating earthquake in 1963, Joe Hong was appointed by President Johnson to direct and supervise a $200 million six-city recovery project, which covered Anchorage, Cordova, Valdez, Celdovia, Kodiak and Seward. As a long time resident of Anchorage, Joe participated actively in many local civic groups and served in state and nationwide offices for groups like the Junior Chamber of Commerce and Veterans of Foreign Wars.

Recognizing him as "an Alaskan of distinction," The Alaska Alumnus said in the December 1984 issue that "Not only is he one of the first Korean American Alaskans, but was twice named one of Alaska's most eligible Valentine's Day bachelors by the Anchorage Times."

Joe's father, Mr. Ji In Hong, was probably the very first Korean to arrive in the Northwest. Mr. Hong senior emigrated from Korea to the United States in 1898, several years before the official emigration of 7,226 Koreans to Hawaii. After working as a packer for prospectors in Skagway, Mr. Hong moved to Ketchikan where he started his own business and became one of the wealthiest men in town by the 1920s. But the Wall Street crash of 1929 was to wipe him out as it did many other businessmen throughout the nation. Joe's mother and his sister who had gone back to Korea on a short visit to prove their success stayed and died in Korea. Mr. Hong never recovered from the tragic impact of the Depression; he had no money to bring them back.

Retired since 1975 and now recuperating from an illness complicated with a hip injury at the Ballard Convalescent Center, Joe Hong was interviewed by Daeshik Yu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on March 22 and April 3, 1985. The following excerpts are transcribed by Yunja Yu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Hong Ki Kim and Ick-whan Lee.

YU: I learned from an article in the Alaska Alumnus that you were born and raised in Ketchikan, Alaska. What year were you born in?

HONG: I was born there in 1921. In fact my birthday is the 31st of this month (March 1985). I'd be 64 then.

YU: You went to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to complete your education which you started at the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HONG: Yes, I started at the University of Alaska. Then after World War II, I completed my education here. I went here from 1946 to 48.

YU: What did you major in?

HONG: I was in what was known as economics and business--a two-part degree. And my class elected to abolish the degree. We stated that we wanted to be the last to be graduated under that economics and business degree because we felt from our experiences, since we had already been out in the world, that we didn't have enough economics to be in the field of economics and not enough in the business field to sort of fit in. So we wanted the degree separated. In other words, you ought to take a degree in economics or you took a degree in general business in order to be better qualified.

YU: That seems to be a trend-setting event in the University's curriculum.

HONG: Yes. The class took a vote, and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recognized us at that time and stated that that would be carried out, and that we would be the last known class. So far as the future was concerned, they would leave that alone. And if they want to go back to it, they would have to make some modifications for it. I don't know what exists today, but that was the degree that I graduated under.

YU: What did you do after you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ONG: When I graduated I already had a job. The job field that I entered was open and was just awaiting my graduation. I couldn't take the job until I had the degree in my hand. And I went to work for the Federal Government as a member of the 19th Board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The Seattle Board covered so many states--Washington, Alaska, part of Montana, and part of Oregon. That was the first job I had when I graduated.

YU: What kind of work were you involved in at your job?

HONG: Under the Taft-Harley Law, which created us, we operated in carrying out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law. We would go into the field and supervise holding elections for Union shops and see to it that management practices complied within the law.

YU: Where was your office located when you held your first job?

HONG: My office was in the Smith Tower when we first started, and later it was moved. I think that the Labor Review Board still exists, but not in a grand scale that we existed because we were the beginning. Most of the manufacturing concerns and businesses and labor unions have complied with the law. So there's very little need for the Board now. Everything has fallen in line.

YU: What was your second job?

HONG: Let me see. I was here for two years.

YU: During the 40's?

HONG: Late 40's. I was in the war in the first part. In the late 40's, right after the graduation, I got the job, and I worked here about two years, and thought I'd like to have my father come down. He hadn't been outside at that time in over 30 years.

YU: Outside where?

HONG: Outside of .... We call the south 48 states "outside." That's sort of a linguistic jargon. As to what was the outside, we were on the inside and the people down here were on the outside. It's just a very curious way we use. That's the way we thought of it because we were so far away. Right. The people in Hawaii had some type of a jargon for that relationship, too. They talked about states; they talked about the islands. The island was theirs; the states were something different. Yeah, us and them.

YU: So did you bring your father down here to the outside?

HONG: No. He couldn't come because he had a stroke. So when I went home, I quit the job because I had to take care of him. I went home to take care of him and he was placed in a hospital.

YU: How old was he then?

HONG: When he died, he was 75.

YU: Do you remember what year he died in?

HONG: I can't remember. He died in the 50's. Yeah, it has to be in the 50's. In Ketchikan, right. That's where he made the home.

YU: I understand that he first came to Seattle in 1898?

HONG: Something like that because almost all of the people at that time that came to Alaska came because of the gold rush. An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ame, and my father was one of those who came from a different country. The reason for it was very simple. The 1898 was the biggest gold rush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ame to try and make their fortune. Very few of them did, and my father was one of the very few, too, on that same basis although he later became a very good--had a very good success as far as that was concerned. He had no problems--financially or anything like that. In fact, as far as the town of Ketchikan was concerned when I was young, my father was one of the wealthiest men in town.

YU: How big was the population of Ketchikan at that time?

HONG: The population of Ketchikan at that time--at the turn of the century was less than 2,000. When I grew up after the gold rush subsided, the population was roughly around 3,000.

YU: Your father must have been a man of adventures because ...

HONG: Yeah, he was, although he was sort of forced into it.

YU: How was that?

HONG: Well, the way he came to America was like this. When the gold rush news hit in Korea, the family talked about it, and they decided that they should send someone. So the family planned--not only my family but the relatives of the family through marriages and so forth--there were about seven families involved in the Hong family. And what they did was they got together and sat down to discuss how to raise the money. They raised the money as to how much money they needed, and then they decided on sending the youngest and brightest one of the group. And my father was selected because of that. He was ordered to go. Ha, ha, ha ... different.

YU: How old was your father then?

HONG: I think he was in his late teens or early 20s. I don't know his age at that time. I would have to research it as far as that's concerned. I wasn't concerned about my father's age.

YU: Most of the early Korean immigrants came through Hawaii during the period of 1903-1905. In view of that fact, your father must have been ....

HONG: He came before that time. He had a ticket for either San Francisco or Seattle. I am not sure which town he came to enter the United States, but those were the two towns on the West Coast that dealt with Orient. So it doesn't make much difference whether he came through San Francisco or Seattle.

YU: Did your father ever talk about how long he stayed in Seattle?

HONG: No. Quite frankly, we never talked about it ... I knew about it ... because there was nothing to talk about as far as coming through here was concerned. The very fact that he was making his living in Alaska in a settled home and was raising a family (was important to us). Nobody was interested in how long he stayed here.

YU: When the family meeting back in Korea decided to send your father to America, did they have Alaska as the definite destination?

HONG: Not exactly, because the gold rush was actually started in Canada. But to reach the gold field, the easiest way was to go through Alaska. And Alaska ... oh ... Alaska had a gold rush, too. But the gold rush in Alaska, I think, was 1910; my father did not participate in that one.

He got as far as the town of Skagway where the White Pass trail winds up over into Canada. And the Canadians at the border had requirements. My father had enough money to get there, but the requirement that the Canadian Mounted Police set up was that no one could enter Canada without one ton of food or $1,000 in order to subsist. My father didn't have one ton of food or $1,000. So he couldn't go into Canada. So he stayed on the American side and worked as a packer on the trail. He packed goods up for the prospectors on his back. It took three days to get up there but only an hour to come down because it is a sharp incline. And they just took one step at a time with a 100 pounds on their back. Wow! My father was small; he was only 5 feet 2 inches tall, but he weighed around 130 pounds--as much as I did when I was fully grown. I have lost a lot of weight because of illness, and I only weigh 90 pounds now. I normally weigh around 130 or 140.

YU: I am sorry ...

HONG: Ah, that's all right. That's life.

YU: I read that you joined the army when World War II broke out.

HONG: In a sense, I didn't join the army. I was attending the University of Alaska, and I was already in the military reserve. I was under what was known as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And so actually I didn't enter the war, I was just called to executive duty by the order of the President. All students at the University either had to join the ROTC or were made a member of it if they were physically fit and mentally capable. We were supposed to become a new breed of officers corps.

YU: Is it true that you inducted the first governor of Alaska Bill Egan into the army?

HONG: I didn't induct him. I got him as a recruit for training purpose because I was stationed with the training corps for all of Western Alaska. We got all of military recruits in and we trained them, made them into soldiers, and assigned them. Yeah, I got the first governor of Alaska, Governor Bill Egan. He and I became close personal friends.

YU: Would you tell me about the humorous line Bill Egan was fond of using in introducing you at the state functions?

HONG: Well, what happened was he had a great liking for me and I'd be at some state party that the governor was there. He'd be talking to some people, and he says, "You see Joe down there?" They'd say, "Yeah, we see Joe." He says, "You know, twenty-five years ago in World War II, he was my boss. By Golly, now that I'm Governor, I'm his boss. I made it." That's a story he used to tell all the time.

YU: I think the story illustrates rather poignantly how much contribution you have made to the state of Alaska. You are a person of important historical signifiance, especially from what we now call the Korean American point of view.

HONG: I don't consider it in a great historical point of view in the way you do because of the fact that you are recording and documenting it. I look upon it simply as a fact that it was a phase of my living that contributed to it just like many of the people are in the same situation as I am that are presently living in Alaska. Their families, in a sense, created a history for them. We didn't create it. We dind't do it. The families did it, you see. But we are part of the record as being part of the family.

YU: In a sense, record keeping is something that we as a group have been neglecting although understandably so because everybody was busy just making it through every day. But now there's quite a ...

HONG: A surge now.

YU: In the past ten or twenty years,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in the state of Washington has grown from something like 5,000 to 30,000.

HONG: The Korean War brought that about basically. In fact I had never met a Korean woman here until the Korean War came about. I saw all of the brides that the servicemen brought back. We had a big surge in the Korean population after every war, that is true no matter where the war is conducted, they bring back the women, ha, ha, ha. Another point that comes to mind for me is that when I visited the Consul in San Francisco, we sat and chatted. I went home with him to have dinner. He was interested in me, and so we talked and chatted. In the evening, he said, "You know, Joe? You have an education; you have a very good background." And he says, "What I would like to recommend to you is that you write a history of the Hong family." He says that he could not provide any funds nor did he know of any Korean American foundation that would have that kind of money to be able to spend, say, on you, because, one, you would be an untried author, and you just had a story to tell as far as that's concerned." And so he said, "You'll have to do it on your own."

Then, several people in my hometown that I grew up with, when they learned the history of my family, some of the kids that I grew up with, just came to Alaska. Their families just moved in because of the growth in fishing and timbering. And when they found out about my background, they said, "Gee, you know, this ought to be documented." Do you know the guy who came along and did it 50 years later? Ron. Fifty years afterwards he came around to do it. I had no great desire to do anything about the history because as I said I was just part of it. I participated in what the family did. I was just a result of it. It's like the fact that I tell the story that "my parents came to Alaska for the gold rush, and they have been mad for 50 years because the only thing they got was me." So I say I'm sort of a disgrace to the family.

YU: You are kidding, of course. A man of your achievement and of your personality cannot be a disgrace to any family or to any parents. I am sure you were the source of pride for your parents.

HONG: Well, they probably would be as far as that was concerned because I know one thing. When I was growing up, my father was a very good and very strong man mentally and physically. And if he saw what had happened to me and what I had done, he would have stood very proud. I know that because my father recognized the ability in other people, not that I had any great ability because of the fact that I worked with .... I was at home in the American scene. Right. Not that I was in a great thing or anything like that ... just part of the American scene, which he would have loved.

YU: Did your father talk much about Korea?

HONG: That's a curious part. He very seldom ever talked about Korea, and I could never understand it. I would have to ask him questions. He would answer the questions if I had questions. But since I had not visited Korea, I had very few questions. What did I want to question about a place I had never been? You know? I think that my thought as I was growing up was that, er ... and afterwards, after I was an adult, was that the reason he didn't speak about it was, one, my father realized I would never be going back because I couldn't speak the language or anything, and that there was no desire on his part to go back since he has made his home here. And it was because of that fact that my father kept the Korean background in the back because he wanted me to be accepted in part of the American scene. That's my feelings about it now. It was a good attitude at the time because he did what he thought was right.

YU: When your father went back to Korea to get married, was he already the wealthiest man in Ketchikan as you said earlier?

HONG: No, no, he wasn't the wealthiest. He was one of the wealthier persons in Ketchikan, not the wealthiest. No. He was among the cream of society when Ketchikan was concerned because he was well to do.

YU: Thanks for correcting me. I guess what I meant to ask you is "Was he that successful already before he had gone back to Korea?"

HONG: Yes, the very fact that he could take ... er ... he could go down to Seattle and buy a first class ticket proves it because most of the Oriental people never traveled in the cabin. They traveld steerage class because steerage class was the cheapest, and they slept in canvas bunks in the cargo haul.

My father was very peculiar and very outstanding in that when he went back to Korea to get married, he actually met my mother before he married her. She was not a picture bride. He went back to look, and he selected my mother and they met. And their families joined together and formed a marriage ceremony.

Oh, the great thing that the Orientials, all of them did it, was that in Hawaii there were marriage brokers, and what they would do is arrange marriages and get the brides from the old country. What the men did was, because they were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they walked down the street and saw a nice young man, about 25, you know. "Hey," they says, "I'll give you a dollar to take a picture." So the young man says, "why not?" They'd get a dollar just to have a picture taken by street photographers. The marriage broker sent that picture of the young man back to the proposed brides and says that "this is going to be your hasband if you elect to marry him."

Here was a nice looking young man. So the families agreed. When the ship came, and the old man got off and had a picture of the true bride; she had a picture of someone else.

There was a great deal of social unrest. In fact the social unrest lasted into the 30's because most of the early families, no matter whether they were Japanese, Chinese, or Korean, had the picture bride method. And so there was a great disparity--20 or 25 years of disparity in age. And it wasn't a funny thing for the brides. Most of the brides overcame it because they realized towards their middle age life that they had a good thing going, and that they were happy because they were raising a family. They had no worries, and things were going fine in most cases.

YU: These stories about picture brides and the related social problems were mostly about those in Hawaii. How did you become so familiar with these stories? Did you spend some time in Hawaii?

HONG: I lived there as a boy for two years. When my father went to Korea, what happened was that .... No, no ... er ... in 28 and 29 my father was very wealthy, well-off. And my mother wanted to go back to prove their success. And so my father thought about it and says, "Okay, let's go." So he stopped off in Hawaii and had a business deal there, and my other and my sister went to Korea.

YU: Were you with them, then?

HONG: I was with him. My father and I stayed in Hawaii, and my mother and sister went to Korea. And what happened was the the Crash. My father got invested in business there in Hawaii.

In fact, I looked, when I visited Hawaii in 1959, I actually looked at the property that my father had on 99-year lease. There was no outright land purchase in Hawaii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minority white population did not want the Orientials grabbing up the land. So they only leased land and property to the Orientials.

And so my father actually had under a lease for 99 years a half of a city block. And I looked at the property and I said, "My god, this?!" And a friend of my father's says, "Yes. The lease today would be worth $1,000 a foot." I said, "My god, I would have grown up with a silver spoon in my mouth." He

says, "Not a silver spoon, Joe. A gold one. This is one of the wealthiest part of the city--the highest value." And I looked at it, and I said, "Well, life changes."

YU: What happened then? You mother and sister went ....

HONG: My mother sister had to stay [in Korea]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money to bring them back. We came back the way that most Orientals traveled in those days. We came back steerage class, not cabin class.

YU: Would you mind explaining why?

HONG: Because we had no money. All of our property was wiped out by the Crash. The Crash was the great economic disaster of the 29 and 30. It put this nation into a depression.

YU: And you went back to Alaska from Hawaii?

HONG: Yeah. We went back to Alaska. We no longer had our beautiful home or the businesses that my father was in partnership with a friend of his. It was just a matter of existence. We no longer had a home, so a friend of my father's says, "I got a land here. Why don't you and your friends throw up a shack?" So they did build a shack. The house my father built was a one-room camp-fire lean-to cabin. It had a small wood stove in it, and we slept on wooden bunks. That was the way I grew up. In fact, I didn't have running water, electricity until I was 16 years old, nor a flushing toilet. We used a honey bucket. That was the condition of my life.

YU: In 1929 you must have been about 8 years old.

HONG: Right.

YU: How long did this trying life go on?

HONG: It went on continuously with a slow, gradual betterment up until 1939. In other words, my father never made it back to the position which he held in the 20's ... never made it back. Many of the people never made it back. A lot of my father's friends were in the same boat. Then, World War II came along, and my father died.

YU: Ron's article on you had an interesting episode you had at the University of Alaska where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tried to kick you out of school for throwing a wild party, or something?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that incident?

HONG: Oh, that was very simple. I was an entering freshman. The upperclassmen usually welcome the incoming freshman group. One Friday night we decided to have a small party and say hello to the upperclassmen. They came to my room. I had a roommate. There were two of us in the room--a double decker bunk. It was a concrete room about the size of that room across the hall with two beds in it.

The party kept going and we ran out of booze. And so one of the upperclassmen says, "Don't worry about that. I've got a charge account at the Black & White Liquor Store in Fairbanks. So we'll call 'em up and tell 'em to send out some liquor." And he went to the phone and called the Black & White Liquor Store and ordered about a case of liquor to be sent out. The liquor came and because we were so damn noisy that people in the hall wandered into the room to see what the hell's going on. So everybody joined the party. We had about twenty people in and out of the room at that time, and about three o'clock in the morning, we were still noisy, singing songs and jumping up and down.

So I went upstairs to sleep with a friend of mine from Ketchikan, and I guess I woke up, oh, about seven o'clock in the morning. And I decided to go down to see what the hell was left. I went down there and gee! it was a mess. Glass all over the floor--we drank a toast and smashed it on the floor. And my books? I went to the window and looked outside, they were out there. One of my friends had thrown my books out the window on to the snow. Otherwise, they would have been smashed, too.

So I got a big broom and swept most of the stuff out. Then, I cleaned it up as best as I could. Cleaning the floor took me about an hour, gee, throwing the broken furniture, chairs, and desks out.

And it was about 11 o'clock in the morning. Oh, one of the guys, in order to charge the liquor--to get their money back from the liquor store--wrote in great big letters with crayons that big! the names of everybody that was there at the party.

So about 11 o'clock, I was in the room, looking around at the names. I didn't know any of them because I just met 'em last night. I was a new student, a freshman.

Then this old looking man walked in, and he says, "Do you live in this room, young man?" I says, "Yes, I do." And he says, "All right. I'm President Brunnell of the University. I'd like to see you Monday morning. You come over and my secretary will give you an appointment time so that you can come and see me." I says, "All right."

So later that day at dinner time, we were talking with some of the upperclassmen, and I says, "Say, the President wants to see me Monday morning." And they says, "Holy Christ, you may be kicked out. We'll take the blame for it. We'll assume the blame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party so that you don't get kicked out." And so Monday morning came and I went over to the President's office, announcing who I was to the secretary. And she says, "Very good." She picked up the phone and called in. And she said that "President Brunnell will see you in 15 minutes. You can just wait here." I says, "All right, I will."

In 15 minutes he came out and ushered me into his office and sat down. And he says, "You know, young man? You set a very bad example. And as a result of the faults and problems you have created, I am going to send you home." I was shocked. I just sat there and listened to him talk, you know. He says, "I'm trying to run a fine institution, and I can't have wild mavericks like you roaming all over the campus. And so that's the reason you are going home."

So I sat there for a while, and then a thought struck me. I said, "Mr. President, you can't send me home." And he reached back in his chair, looking at me with steely eyes, and he says, "Young man, are you saying that I don't have the authority to send you back home?" I said, "No, sir. I didn't say that. I just stated that you would not send me home. I'll explain if you will let me." He says, "Go ahead."

And I says, "Sir, over in the library is a book. It's a very special book that has a batch of names in it. In 1926 when the University was failing, you toured the territory of Alaska, asking for cash contributions. And you had people sign their names in the book."

He says, "That's right.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us?" I says, "Sir, if you will look in that book, you'll find my father's name. He contributed to saving this school. I do not think you would send back home the son of the contributor, one of the saviors of the University, simply because his upperclassmen had a wild party in his room."

He lit his pipe and asked me if I smoked. "Oh, a cigar, now and then, but I don't smoke," I answered. "Come with me," he said. Then he took me into what was called University Mall that had a lunch counter, a soda fountain, pinball machines, you know--just sort of a little recreation area. He had his arm around my shoulder when we walked in. And everybody's eyes popped wide open because they knew I was going to be kicked out.

When we walked up to the counter, the young man came over and asked, "Sir, what would you like?" He says, "I'd like the best cigar that you have in this place." And the young man says, "That's an 1886." Brunnell says, "Fine. I want you to give him a couple." So the guy brought over a couple of cigars and handed them to me, and the judge paid for them, saying, "Young man, I want to thank you for reminding me of some of the problems I had." He shook my hand right there in public and went back to his office.

I was saved! Funny. I had never thought about the fact that my father had contributed to the saving of the University except my father told me. And he said, maybe, one of these days, you might go there. I said, "Oh, something to think about in the future, you know." Then, he said that was the way it turned out.

YU: I think you owe it to yourself to have reminded President Brunnell of your father's contribution to the University, especially at that critical moment. Did your father say what amount he had contributed?

HONG: No. There was no amount shown in the book.

PART II

YU: The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are very much interested in finding who was the first Korean to set foot in Washington state. And if your father had come to Alaska through Seatlle in 1898 as Ron Inoue's oral history article stated, then we think that your father is the man. Is there some way of verifying whether your father, Mr. Ji In Hong, landed in Seattle or in San Francisco?

HONG: I cannot answer that question because, very simply, since I was growing up in Alaska where my father landed was of no special interest to me, and I don't know how you would be able to corroborate his coming to Seattle first, except maybe through the early records of the Korean Consul, not here but in San Francisco. Because of the impact of the oriental population, I visited the Korean consul in about 1950. And he had a record of my father. So you might check with him. See, because if the record was written, it will still exist today unless there had been some disastrous changes, because the record was written.

YU: Well, we have heard of no disastrous changes, although the personnel in the Consulate may have been rotated around. You said that your father couldn't go into Canada as he originally wanted to, and he had to stay on the American side and worked as a packer on the trail. How long did he work as a packer?

HONG: I don't know, but the sheer record of that would be that he probably didn't work as a packer more than about two years, and then he worked in a jewelry store starting as apprentice jeweller--apprentrice watch repairman.

YU: I see. Where was this at?

HONG: Skagway--In Skagway. The historical record clearly shows that, although the rush entered into the 1900, the big rush was over. And there were more people coming out than going in. And also the fact of the food and money requirements which the Canadian Mounted Police put stopped many of the prospectors from going in.

YU: When did your father first go to Ketchikan to settle down?

HONG: He went there after Skagway closed down--practically disappeared.

YU: And what other kinds of business was your father engaged in?

HONG: Well, at first he did anything that he could, you know, to earn a living, and in the '20's he was a businessman in Ketchikan with interest with his partner Joe Smith in about three businesses--three major businesses serving the public.

YU: What did he specialize in?

HONG: They didn't specialize... They bought a bakery, a restaurant and a pool room. They had varied interestes in whatever was available that was making money.

YU: And when he became quite successful, did he make it through these businesses with Joe Smith as his partner?

HONG: Yes, right.

YU: And when was this roughly?

HONG: Oh, this occurred from World War I up to the crash of '29. The carsh of '29 wiped out everybody.

YU: Now, I am jumping back down to the time when you met the Korean Consul in San Francisco in 1950--

HONG: It was in the 1950's--the date I'm not sure.

YU: The Consul, you said, had suggested that you write a history of the Hong family. Did you have a chance to write one?

HONG: No, I never did. I wasn't interested in the Hong history. I was interested in the Hong future.

YU: I see.

HONG: I was more interested in the present than something which happened in the past which to me was of no value--to me, at the time.

YU: Now that you have some time to spend by yourself, would you like to try one?

HONG: I don't know. I'm not that interested, and because of the very fact that you and other people are recording it. That's enough for me.

YU: Have other people been recording your stories?

HONG: Oh, they have. I have had little snatches of my life written up in the University of Alaska Alumnus magazine, and there was a full page article on me in a recent issue. And I did a small article when my father died. The paper wanted a review of the family and I did that. That was in 1955, I think.

YU: Which paper was this?

HONG: The Ketchikan Chronicle. And you could propably find it by going through just reams of paper. It will take you a long time to find it.

YU: Was this article by Ron Inoue ....?

HONG: Yes, the one in the Alumnus. Yes.

YU: And, of course, you wrote the article in the Ketchikan Chronicle?

HONG: In the Chronicle, right.

YU: Did you know Ron Inoue personally?

HONG: No. I just met him because he came seeking information. We got to know each other because of the corroboration.

YU: Last time I was here, you told me about your mother and sister going back to Korea to prove your father's success.

HONG: Right.

YU: What's become of your mother and sister after they had gone back to Korea?

HONG: My mother and sister both died in Korea. My mother died in 1936, and my sister died in--I think it was February 11, 1946. The same day that I was getting my discharge from the army, she died. When I went home to visit during my what was called "terminal leave"--the leave before you got out of the service--there is a period which you could

spend at home and it was with pay--and I went home. And my sixth grade teacher knew about my background and family. And so she asked if I wanted to have them looked up. And I says, "Sure!." We both went down to the Red Cross station and related my family history, and she said that there would be a report coming back from the 24th Army Command, which was in Korea at the time, and that it would probably come very quickly. It did! It came within two weeks. They found a second lieutenant who could speak Korean, and they sent him out to investigate. And what he found out was this: that there were no immediate relatives of my father. There were distant relatives, but not immediate relatives. And that my mother had died. He looked up the birth certificate or the death certificate of my mother and also of my sister's. She died on the same day that I was getting out of the service--February 11, 1946, she died. She was one year younger than I was.

YU: So in 1946, she must have been ....

HONG: Oh... let's see... 22 or 23. They had a lot of malnutrition at that time as you probably were aware of. Because the Japanese had stripped the country of food in order to use for the war effort. And so the Koreans were starved to death, literally.

YU: So you found out about their deaths rather than your father learning about them.

HONG: No, my father was dead.

YU: When you and your father went back to Alaska from Hawaii, did you go back via Seattle or San Francisco, or did you go back direct from Hawaii?

HONG: No, we didn't go back direct. I don't know which city we came through, Seattle or San Francisco. I think we came through Seattle because it is more direct.

YU: I see. And that was when you were about 8 years old.

HONG: Yeah. We came back in about 1930 or '31. I'm not sure of the exact time, because I was in kindergarten in Hawaii when I came back.

YU: You were twice listed in the Anchorage newspaper as one of the most eligible bachelors. Would you like to tell me about those episodes?

HONG: Well, it's really very simple. We have what is known as a Valentine's Day--a special holiday here in America. And what the Valentine's Day does is that it picks out most eligible bachelors, and then they try to give them a valentine for the girls who want them. And when I was 35, one of the Ketchikan newspapers--I can't remember which one--ran a Valentine's Day parade, and they picked out from southeastern Alaska ten most eligible young bachelors. And I was one of the ten that was selected. And then 15 years later--no, 20 years later--they did another one. I was now 55. And they selected me again and a friend of mine, Wally Willenstein, again--Wally Willenstein, the architect. We were both selected at age 55. We were the oldest men ever selected for the Valentine's Day parade as most eligible bachelors. It happened to me twice in my life, which was a very good event, as far as memory and fun and distinction is concerned.

YU: What transpired as a result of being selected the most eligible bachelor?

HONG: Well, in my case, I got one proposition. I got a proposal for marriage. A woman came up and proposed to me.

YU: What was she like?

HONG: Oh, very pretty young woman. And I said, "no."

YU: Why not?

HONG: Well, it's very simple. I said that I would do the selection as far as I was concerned. When I made a trip for the Veterans of Foreign Wars, I covered my area, and I was the first Veterans of Foreign Wars officer to visit the Far East. The program of my visit--who I was, what I represented--had been forwarded for distribution among the radio, newspaper, and television people. And when I landed in Seoul, Korea, they had the red carpet out on the airplane for me to get off while the rest of [the people on] the plane waited.

YU: When was this?

HONG: It was after World War II during or after the Korean War. I can't remember the exact year. Let me see ...

YU: After the Korean War?

HONG: No, no, not after the Korean War. Before the Korean War. It was about in 1958 .... '54 to '58. During that time, I was the national officer of the Veterans of Foreign Wars.

YU: Your timing seems to be a little off. The Korean War ended in 1953.

HONG: Oh, then, I went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I know the period when I was a national officer. And I went during that period. I had to go during that period--'54-'58.

YU: By then you were already out of the army?

HONG: I was out of the army in the 40's. I got out of the army in mid 40's.

YU: That's very interesting. So you did go back to Seoul after all.

HONG: I did go back to Seoul. When I landed there, they had the red carpet out for me, and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American-Korean Armed Forced were there to greet me, and the Naval Commander who was stationed in Tokyo was also there to greet me, as well as my friends.

Then they took me to a VIP room where all the newspapers in Seoul, their representatives, were there to ask me questions. And one of the questions which was asked to me, which tied in with what I had said before, was that they asked me if I was married. And I said "no."

And one of the reporters said, "You know, Mr. Hong, in 20 minutes, I could have 20 girls down here--all college graduates who would love to marry you. And I'm going out to get them right now, at least to say hello to you."

I said, "Okay, that's up to you." And so they brought down the 20 girls--all college graduates--and they were all pleased to meet me. Most of them could not speak English. One or two could speak a little English. And the ones that could speak English said that it was a very rare privilege to meet a dignitary Korean-American here in Korea, with this amount of attention being given to them, because at that time only the military was given any attention in Korea ... because of the war ... Right.

And so she said it was a very rare privilege, and she wished me well, and she understood my position in that I should do the picking because our customs were different. Ha, ha, ha, ha. That happened. Yeah, I was surprised that he got all the girls--rounded them up and brought them down for the interview.

I made the front page of every paper--every large major paper--in Korea. In fact at breakfast time, when I was in the dining room having breakfast, the head waiter came up. He brought a paper with him. And he said, "Is this you, Mr. Hong, here in the paper?" It was in Korean. He had one in English that had its front page in English and the back pages were in Korean. And he says, he read it in Korean first, and then he saw the paper with the English version. So he brought both of them, and he asked me if I was that person in the paper. And I says, "Yes." And he says, "Thank you very kindly. It is a rare privilege to serve you."

That's the way it went. That was very interesting when that head waiter brought the two papers over, and I brought them back. They were used for publicity purposes by the American papers in Alaska, ditto, showing my interest during my visit in the Far East.

YU: Can you sort of try recollecting again the time frame of your visit to Seoul as the national officer of the Veterans of Foreign War?

HONG: The time would have to be during the period of 54-58 because that was when I was a national officer, and the Far East was part of my jurisdiction. And the organization had to approve the money for my travel. And so it was done when I was a national officer--a period within those three years. The exact year I couldn't tell you.

If I went through some of my old papers in the scrapbook, I could find out exact time because when I came back, I made a pictorial front page of all the major papers in Alaska, and I've got a record of it somewhere in my stack of memoirs.

YU: Where do you keep the stack of your memoirs?

HONG: In a room that I just stored some stuff as far as that is concerned in Achorage. It's stored in Anchorage, right. I would have a difficult time in finding it, because I've got a whole room stocked up with stuff. I'd just have to go through it to find it.

YU: Where in Achorage is that.

HONG: It's inside Achorage, yes. I live in a sub-division.

YU: Would you mind my asking you about your physical condition now?

HONG: Oh, no. The physical condition is on a very slow improvement basis. It will take me all of this year to find out exactly which way I'm going as far as improvements are concerned. I do walking exercise four times a week.

YU: So at this moment, you need somebody's help to walk around?

HONG: Yes. This is why I'm in this kind of home. I need some help--not a great deal of help but I do need it. And this is why the doctors decided to put me into a sort of convalescent home in order for me to get better faster.

YU: What kind of problems are bothering you?

HONG: Oh, I have a walking problem in that my left leg is almost useless, because of the diabetic neuropathy. And I had a broken hip, too, the same left hip, and that took a very long time to heal.

YU: How did you get a broken hip?

HONG: I fell out of a bed and hit the floor ... in the hospital, not here. I fell out of a bed in a hospital and I spent seven months in the hospital.

YU: I'm sorry. So it's an injury received in a hospital?

HONG: It was an injury plus a malfunction of part of my body, and I am trying to recover from it now. That's why I'm here.

YU: So how long have you been in the Convalescent Home here?

HONG: About five months since last year. I came here in November [1984].

YU: Where were you staying before you came to the Ballard Convalescent Center?

HONG: I was in two hospitals--the Virginia Mason and I can't remember the other one. I think it was called the Highland--I'm not sure. I was in two hospitals.

YU: What were you doing before you had to be hospitalized for treatment?

HONG: It sort of goes back quite a long ways. It sort of goes back over 2 years. I was just living my ordinary life, not doing anything spectacular, as I was retired. And I was looking into my retirement future at the time I got hurt. That's what happened.

YU: When did you retire?

HONG: Let's see. I retired when I was 55. I'm now 64.

YU: What kind of job were you involved in right before you retired?

HONG: Oh, I was a federal government supervisor. I managed large projects in Alaska for the federal government. I was in charge of ... when the earthquake came to Alaska in 1963, I was assigned--I was given the job of recovery of six cities by President Johnson. I think it was President Johnson. He appointed me as the head of the recovery team.

YU: I see. What were those six cities?

HONG: Anchorage, Cordova, Valdez, Celdovia, Kodiak, and Seward--the six cities. It was the biggest known earthquake in the history of the world--the strongest--the 1963 earthquake. The magnitude was 9 point something--that's never been recorded again since or before. It was a disastrous earthquake.

YU: And when were you appointed the supervisory position, in 1963?

HONG: It happened after 1963. The earthquake came in 63. In 64 I was appointed. It occurred in early spring--I forgot the date, and then--the appointment of the committee to do the recovery work was approved by the President, and I was in that first approval of what I was to do.

YU: So you were heading the project.

HONG: I was heading the project for the economic recovery, rebuilding the cities. It was a $200 million project that I had. I allocated the money and the project, and supervised them.

YU: You were a big shot then.

HONG? Yeah, I was a big shot then, ha, ha, ha ...

YU: And you held that position until you retired?

HONG: No. I was through with the position--it took only about three years for the final economic recovery, and then I left, and then I retired, because of the fact that it was a one-time presidential appointment. When the president ran for the office, he said that he would cut down on the cost of national government, and so when he won, the way he did the cutting of the national government, he offered a one-time employment for those who had 20 years of service and had the age of 55. And it gave you same thing as if you had retired at 65. It was a one-time event and I took it.

YU: Oh, that's why you retired early; I was wondering about that.

HONG: Right.

YU: After the Pearl Harbor, the American government rounded up all the Japanese Americans in the West Coast and sent them to detention camps against their will. Were there many Japanese Americans in Alaska at that time, and how were they treated?

HONG: At the time there were about 10 families in Alaska, some of whom were my dear friends. In Alaska, they were treated very well. In fact in Ketchikan, the head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testified that he would be willing to take all of the Japanese in Kitchikan--the five families--under his arm and grant that they would be safe and not run away. And he would even open up his checking account to them because the war closed down in Japanese checking account--closed down everything.

They were just rounded up and shipped to the detention center. In fact, for the Hagawara family, when I was in the service, I wrote a letter of confidence for Mike's father, so he could get out of the detention camp in Idaho, and he went to Chicago to work as a baker. And Mike ... Mike served in the 442. I had many friends who had served in the 442. Right.

In fact, just the other night, here on TV, on Channel 9, the Public Service Television, there was a half-hour documentary on what they called "Visible Target."

YU: Oh, you saw that program?

HONG: Oh, you did too?

YU: Yes, that was about Bainbridge Island Japanese Americans.

HONG: Right. It was very interesting for me because I didn't know what had happened to all the other Japanese Americans in the country. I only knew what happened to them in Southeastern Alaska. I had never heard of Bainbridge Island until I was entering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because I didn't live down here. I didn't know where Bainbridge Island was. That was a very interesting program--a very heartfelt program of an American who happened to be white and who stood up for the Constitution.

YU: Yes, the editor of the Bainbridge Island newspaper.

HONG: Yes, a small newspaper--less than a thousand circulation. He wrote what he believed was true, and later he was given a special Pulitzer prize for the work he did on the Japanese Americans and for them.

YU: Oh, I must have missed that part.

HONG: That wasn't shown in the film because the film was compacted. I knew about it because of the fact that people told me that a small town newspaperman was granted the Pulitzer prize one year for what he did. And that was that guy in that picture. And that caught me by surprise. I said, "Jesus, I know all about this." You know. It did my heart good. Yeah! And the 442 went out and collected more medals than any other fighting regiment in United States history. Gee! Amazing! Yeap, I knew many of the fellows in the 442. And I look back and ...

YU: How did you get to know them?

HONG: I knew them at home. These were the Japanese Americans in Southeastern Alaska. I knew all of the Japnese families in Southeastern Alaska--about six cities--because I traveled up and down there. As a boy I traveled to the various cities as a Seascout. That was my method of traveling, jumping on a boat, going to another town. All of us kids did it just like jumping on a car here nowadays. We jumped on boats. They only took you to a place, and if you want to get off, you get off. Simple! Right.

You know I watched that film with great fascination. They did a good job on that film, and I am glad they are showing it now because of the fact that what that guy said--"This must never occur again"--was really true. It could have occurred to anybody--you, me, Irish, Indians--anybody--black hair, blonds, you know. And it was a tragic mistake, and I'm glad that the nation has recovered, and recognizes that mistake. I felt it very keenly because it affected friends of mine. Right, right.

YU: I thought it was especially moving the way the Bainbridge Island newspaperman narrated the scene of the last highschool baseball game, at the end of which the Japanese American catcher was walking away from the field with his head hanging low to join his family who were to leave for the detention camp. And a blonde young girl ran up to him and gave him a big kiss and ran away.

HONG: Yes. Many of us in Ketchikan, John Talbot, his father was Mayor and one of the founders of the town--he spoke up for the same Haragawa family that I did. And he wrote to me, telling what he was doing. And his commanding officer called him in and said, "John, are you going to send this letter? I cannot do anything with it except to tell you that you shouldn't send this letter." And John says, "Yes, sir. I am. It's my letter and my privilege. And I want to stand by my friends." So the captain told him, "I have to make a copy of it and send it with military intelligence." And John says, "I don't care, Captain. You can send copies anywhere you want. I am standing by my friends."

John Talbot! He was one of the founders of Ketchikan. In fact, a big company is still in existence there. I think it's called Talbot and Spalding--a big coast-wide dockage firm. They sold coal; they had a steamer they had everything. Maybe, it's no longer in existence now, but I don't know. But the Talbots were well known. Oh, I used to go up to their house, we used to be up to their house as kids and played and had cake, coffee and milk, you know. His mother would make it, gee! And because of their friendship, they came out publicly to criticize the government for doing what they did. And they found out they were right.

I was right, too. Yes, it occurred in my family too in that when I wrote my letter for

the documentation of the Americanization of some of the Japanese, the commander called me in and showed me my letter. All letters were reviewed before they could be mailed.

It was a very mismatched sort of a time for many of us including me to have been brought up during that period. I'm glad that I went through that period with my Japanese friends because I know now what could possibly happen again, because memory is short. Human memory is short and short lived. This is why I will never forget that. If I had any children, I would tell them about it, too, so that they would know, so that this tradition will never die. I doubt that we will ever go through a period like that again in our history because it went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the people that understand our government would never allow it to happen again. I feel that very strongly because of the fact that 200,000 people [had been incarcerated].... Gee! And they didn't do this to Germans or Italians that were here in the country. They didn't round them up. There was one German rounded up as an outstanding Nazi. Only one German, that's all. No Italian. Amazing isn't it?

No. I am glad I went through that period because I'll always never forget it, and I look back upon it with not only some regret but some great honor of the way that the Japanese Americans came through. They did a magnificent job, and many of them died doing it. Right--right.

YU: The United States is a nation of immigrants--immigra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ey believe i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lthough they try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equality, freedom, and brotherhood of mankind, nevertheless, bias, misconceptions, and racism do exist in reality. In your childhood experiences, do you remember encountering problems of similar nature?

HONG: I don't recall any problems which would stand out in my mind. I only know only one thing that occurred, which dind't bother me at the time because I dind't think anything of it, but I remember it. What it was that ... er ... it had to do with the church.

Most of the Orientals,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mericans--we were the only Korean American family--all became Episcopalians, American Episcopalians. And the reason for that was that the church was located near the Oriental community where most of the Orientals lived. So when they sent their children to Sunday school, they sent them to the nearest church which was the Episcopalian. Some of them sent them to the Catholics, some of them to the Methodists, but most of them came to the Episcopal Church.

And then when I was growing up, and we were talking about a new family. A new family had moved in; we knew who the kids were; and some of the kids were talking about the church. And I said, "What's the problem?" "Oh," he says, "the new family doesn't let their children go to the Episcopal church because they say it's a Japanese church." And I says, "Well, that's not true." They say, "We know it's not true, but that was the feeling of the mother. She didn't want to send them there." And the parents got into a little bit of hassel. And some of the church members went to the family, and told them: "You certainly have a right to send your children any place that you wish, but please remember we are not part of the argument. It is your decision."

And you know what? We got them in the church ... ha, ha, ha. ... We got 'em in the church because people went and explained to the mother, "here we have no problem while this is your problem. We are not trying to interfere or anything like that. You have a decision to make; they are your children." And so, after a while, she thought about it and she sent 'em there. I remember we had a big party when they came in, had a little tea and milk, welcoming them. Yeah, we grew up as great friends. In fact one of the kids in the family was probably one of the strongest lifelong friends I've had. His name was Richard Hatfield.

I made a mistake. I said the Hatfield family. That's wrong. The original family were the Dixes. One of the Dixes married the Hatfield, and the name popped into my head. The family was actually Dix. And Richard, one of the sons, and we were very strong lifelong friends until he passed away. And the Dix family fitted in beautifully with the church. They were just happy, you know; nothing mattered as far as that was concerned.

That was the only thing that I can think of during my entire life, which affected me as an Asian. I have never had any other encounter that would show that as far as that was concerned. The very fact that I rose so high in the federal government is a very clear indication that I dind't run into prejudices. Because if it had, I would have never gotten where I was. I eventually achieved national fame--national and state fame.

YU: I also think that your outstanding ability and intelligence and your articulate expressions never gave a chance for prejudices to get in your way.

HONG: I was telling you about the achievement test when I took it. The Columbia Achievement Test was given to all of us when we entered the service. We had to take it and because of its rating, it would help determine

where you were going to be put. When I took the achievement test, I was in college. And my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Officer, called me in and wanted to talk to me. And I went in, and he said, "Joe, do you know that you have received one of the highest marks here at the University on the basis of your Columbia Achievement Test?"

And I says, "No. How would I know. They didn't tell me." He said, "Well, you did. I'm telling you." Because at that time, in order to go to Officers Candidate School, you had to have 110. The mental level of the average American was 90. And so 110 was a qualification score for officers candidates.

And he asked me, "You know what you received, Joe?" I says, "How would I know? Damn it, Captain, tell me." He says, "You achieved 136. Do you know you're within four points of being rated as a genius?" I said, "What do you mean?" "If you made a 140, 4 more points, you would've been rated a near genius, and I wouldn't have known what the hell to do with you. You're liable to wind up being my commanding officer." Ha, ha, ha, ha ...I laughed and I said, "I'm glad you are taking it so seriously..."

YU: This Columbia Achievement Test is something equivalent to what's called the I.Q. test now?

HONG: Yeah. It rated your I.Q. based upon what score came out of the test itself. Yeah, that was called the old Columbia Achievement Test. It was used nationally. And I came within four points of being a near genius... ha, ha, ha.

YU: Well, no wonder you rose so high in the federal government positions.

HONG: Maybe, but I think that it was also part of the way that I worked--my personality. I got along with people, and in the federal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success, you must get along with people and work with other people, so that you can go on further.

You know, I was looking back when that Bainbridge Island film came up, I was thinking about my past. I was very pleased as to what happened to me, and because of the fact that nothing hindered my achievement. I just went straight on through ... on that basis. But, gee, I was sure glad to see that Bainbridge Island picture. It did me good to realize that they have received such great sympathy and loyalty.

YU: Some of the Koreans who were brought up in Hawaii at that time say that they had to wear some kind of a badge to show that they were Korean Americans--a badge that says "Koreans for Victory" or something like that--so that they would not be mistaken for Japanese.

HONG: I know that that did occur. But it did not occur in Alaska because we were only one family. They never said to us anything. My father walked the street just as he always did as far as that was concerned. No problem there. He knew everybody in town anyway. Small town ... and they all knew who he was. And so nobody paid any attention to him. He had friends he associated with, and he ... he had a very relaxed time during the war. And in fact he didn't even recognize me when I came home in a uniform. I went up and I tapped my father on the shoulder. He was walking ahead of me. I tapped. He turned around looked at me and says, "Yes?" And then after he said, "yes," he said, "Oh my god! Joe!" He started crying ... ha, ha , ha, ha. I says, "Don't cry. I'm here."

YU: What was your rank in the army right before you got discharged?

HONG: I didn't stay in the army. I was supposed to have gone to Officers Candidate School. But because of the fact that I was assigned to immediate duty, and there was no need for that many officerss--they were called in back already by the time I entered the war...got active in the war. So I came out as a Lance Corporal. Right--right.

Oh. Good Lord, I forgot. I was supposed to have gone to West Point. I received the enlisted man's appointment to West Point. At Fairbanks where I was stationed, there were 12,000 men at the airfield. I was the only one that met the mental and age requirements for the enlisted man's appointment to West Point. And my Captain, when I entered to talk to him--I didn't know what about--he caught me around the shoulders and says, "Joe, I am proud today." I says, "What for, sir? You should be proud all the time." He says, "No, because of you, I am especially proud. You know what you did?" "No, I don't know what I did. That's why I've come--to find out. You are blobbing around here all the time. You are not telling me anything." He said, "All right, sit down."

He sat me down and asked, "Would you like a drink?" "Sure," I said. He kept a quart of a bottle in the tent for special occasions. He put out two glasses, poured a jig or two to each of it. And he says, "Here, Joe. I want you to have this shot first." So we drank the shot and sat it down. He asked,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you in the entrance examination?" I said, "I don't. How would I? They wouldn't tell me." "I know," he says, "because I got the word from personnel that you are a most unuausl individual, and that you have achieved not only one of the highest intelligence quotients ever registered on this field, but also the fact that you are eligible for the West Point enlisted man's appointment. I'm going to put you in for it."

He was supposed to have gone to West Point from Oregon. But because of politics, another person was picked. You see each state had one person sent to West Point. And in his case, because of the intensity of the politics down there, he dind't get to go. He was cancelled out, and another substitute was sent. And he says, "I've been mad about that ever since. And since you are eligible, I am going to push for all your worth." I says, "Gee Whiz. Suppose I don't want to go." "What?" he asked. I said, "Yeah, I'm happy here. I don't want to go to West Point."

I knew a little bit about it. If you receive the West Point appointment, you graduated in three years, not four ... you went to school twelve months a year--and no three-month vacations. Once you completed and got your commission, you signed a paper when you entered the West Point School that you would stay three years in the service after the war was over. When the war ended, you had to stay in three years. That was to pay back the government what it had cost them. And I says, "Captain, I don't want to stay three years. I didn't want to stay that extra three years. I've got the University to go to, and I just don't want to paddle around in the Service for that period of time."

And he says, "It's a great opportunity. I am going to put you in for it because of the fact that you don't have anything to say about it. I'm the one that says whether I recommend you or not." "Captain," I said, "you'd better give me another shot of whiskey." Ha, ha, ha ... He did. We both drank another shot.

We were very good friends until he passed away down in Oregon. We used to write to each other Christmas time. He was the best commanding officer I ever had. He was a good one ... yup. He was transferred to the Western front, and he was wounded in France when he went fighting over there. And that's what killed him eventually. Oh boy ... good guy.

But that West Point deal was most unusual. I'd forgotten all about that until we started talking about military career, because it came back to me then. Well, in one sense, I guess I wa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average Korean here. There weren't many anyway.

YU: "A little bit" is a great understatement. I wonder what it would be like today if all the seven thousand some early Korean immigrants and their second generations were capable of achieving the things that you have achieved.

HONG: Well, I look upon the fact that I was lucky--lucky in the sense that I had a good father who knew what he was doing, who set his sights on the proper goals for me, and helped me all he could. When I chose to go to the University, we used to talk about it, whether I was going to the University or not.

I said when I was a sophomore, I had to make up my mind because of the curriculum I had to take in our school in order to meet the college standard. And I said, "I am going to take the college prep course(s)." "Fine," he says, "you know I'll help you, but you'll have to work." "Why?" I asked. "Because," he said, "I cannot afford to pay to send you through college. You'll have to do some work of your own for your room and board." "That's no problem," said I, "I'll do it." I did it .... right. My father saved up every doggone penny he could save for me. He was that determined. He knew what he wanted for me ... Good father... I look upon him with fond memory ... right--right.

YU: Does the fact that you were selected as an eligible bachelor twice in Alaska mean that you remained a bachelor throughout?

HONG: Yes. I was married once, but I remained a bachelor just like Wallenstein who remained a bachelor.

YU: When were you married, and what happened to your marriage?

HONG: I was married when I was very young. I was about 21 or 22 because it was during the same period I entered the University. We got divorced because of the fact that I entered the University. I went to school instead of finding a job like my wife wanted me to. So she divorced me as a result.

YU: This must have been the time when you went to the University of Alaska. How long did the marriage last?

HONG: Actually, I was married technically one about a year. She didn't want me to go to the University. She wanted me to find a job, so that I could start supporting her. And I said, "I've got to get an education in order to be able to support you in a way that you should be." And so I took off. She got very dissatisfied with me not being there, and so she filed for a divorce and got it. I didn't contest it.

YU: What was her name?

HONG: Her name was Marie.

YU: Am I interrupting something? I see all these nurses coming in and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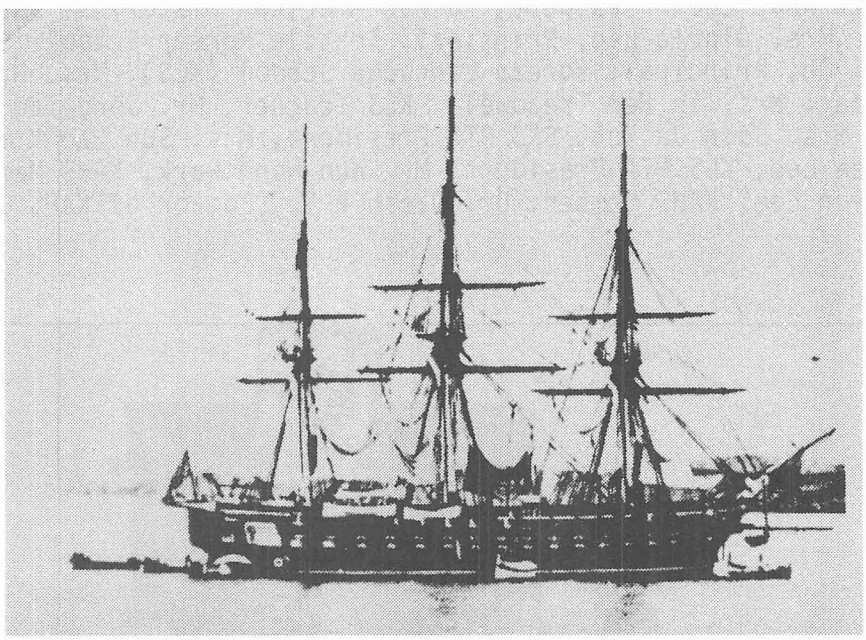
HONG: Yeah, it's getting towards dinner time. They start serving dinner at 3:30.

YU: Well, then, I must stop here. One final question: would you permit me to visit

you again for another interview?

HONG: Yes. Please call first and see whether I'm feeling all right. Sometimes because of some of the exercises I do, I get tired. No. Just call first. You got my phone number.

YU: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It's fascinating to listen to you recall your past experiences. It's also very interesting to listen to your tape afterwards, too.



1871년의 신미양요 때에 강화도를 침입한 원정함대 기함 코로라도 호

The USS Colorado, flagship of the five-ship expedition fleet that led the 1871 American Incursion, recorded as "Shin-mi Yang-yo" in Korean history.

Panel Discussion

Teaching Korean to Children Growing up in America

sponsored by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Monday, March 11, 1985
Asian Room, Ethnic Cultural Center
University of Washington

Moderator: Ick-whan Lee, President,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KAHS)
Participants: Mrs. Gloria Lee, Principal, Seattle Korean School (SKS); Dr. Ke-Hi Oh, Principal, Korean Language School (KLS); Mrs. Hae Sung Shin, SKS Teacher; Mrs. In Hee Treadwell, KLS Teacher, Mr. Jong Tae Kim, SKS Teacher; Mrs. Soon Ja Yun, SKS PTA President, Mrs. Sun Hae Kim, KLS Parent; Dr. Qwihee Lee, KLS PTA President; Mr. Kun Hong Park, KAHS Member; Mr. Ki Lyun Lee, KAHS Member; Dr. Daeshik Yu, Editor of KAHS Journal

The panel discussion tapes are transcribed by Sook Jin Lee, edited by Ki Lyun Lee, and tranlated into English by Daeshik Yu.

Ick-whan Lee, Moderator: With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in Washington State reaching 30,000, the Korean community is now gradually establishing its social and economic bases through the state. And for some time, we have been feeling the need to trace the footsteps of those who came before us and to document our own experiences for posterity.

Recently, Dr. Daeshik Yu's proposal for the Korean American Research Project has been awarded a $10,000 grant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Graduate School, which played a catalytic role for the founding members to formally organize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One of the major projects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is to publish a journal every three or four months. And our discussion tonight will appear in the first edition to be published in June.

We are fortunate to have two Korean language schools in Seattle today, and thanks to your dedicated work, a considerable number of children are able to attend Korean language classes every week. Unfortunately, however, we have a hard time persuading the children when it's time to take them to Korean classes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perception of the need for the Korean language and ours. Although the degree of resistance may vary, it is certainly there. "I'm studying at an American school with American kids," they often complain, "and I'm going to live in America after schooling." "Why," they would ask, "should I bother going to Korean school every weekend?"

We tell them that they should learn Korean because their parents are Korean, or that even in America you have to understand the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if you are to lead the life of a proud Korean. But deep down we are left with a nagging doubt as to whether these usual answers have really convinced our children.

The need for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s accepted without a shadow of doubt as a basic principle by us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I suggest that we examine closely what we almost habitually accept as an unquestionable principle, for such critical examination of our traditional beliefs may shed light on the direction, the content, and the method of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 would like you to address these questions, expressing your feelings about them as experienced while taking your children to Korean classes, and sharing the thoughts that came to you as you were teaching classes.

Dr. Oh, you are a PTA member of the Korean School and at the same time you are running the school as principal. Would you please start our discussion tonight?

Ke-Hi Oh: The primary purpose of education is to develop an individual in a way that would enable him or her to use the potential talent one is born with to its maximum. And self awareness is a factor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the individual's potentials.

Self awareness, which continues to grow from the moment of one's birth, means to know one's own self, and to know oneself means to understand all the factors, of which the self is made up. The most important of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self is language.

Since language is the foundation of a culture, and since it is an indispensable means of communicating one's ideas in social life, to learn a language is the same thing as learning a culture.

In America you can say that racial problems are no other than cultural problems. Everyone lives within the boundary of his ethnic culture.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one's own ethnic culture in America, especially for the Koreans living in America as a minority group, because the cultural environment of a minority is overshadowed by the culture of those who are in the mainstream. At some point in life, every person encounters the critical question of "what am I?" Then, we become skeptical about our own selves, that is to say, we cannot come to a full understanding of who we are.

This kind of cultural crisis accompanies another problem. Looking at the Koreans with such shaky self-awarenes, those in the mainstream society would say that since that person is obviously not an American, and yet since his identity is not at all clear, there must be something definitely lacking in that person.

We have a double jeopardy in this situation. First of all, the person does not know who he is. Secondly, other people cannot come to an understanding of that person's existence. In a situation where self cannot have a healthy growth, it is difficult for self to develop the innate potentials to the fullest.

I think we should teach the Korean language, a major form of Korean culture, to our children so that our children will not have to go through this kind of cultural crisis, so that our children will be able to understand who they are and to comprehend all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ir own selves.

Ick-whan Lee: Dr. Oh has just pointed out that self awareness is the key to self expression and to the maximum realization of one's potentials, and that an uncertain sense of self awareness brings about a personal crisis. This is a familiar line we have often heard. Would you give some specific examples that would demonstrate this line of generalization?

Ke-Hi Oh: A Japanese American principal of a public school once asked his class, "Those of you who are Americans, please raise your hands." Many students of Asian descent had their hands half way up. Some hesitated a while before their hands went all the way up, while others looked around before bringing down the hands reluctantly that were raised half way. On the other hand, black students and white students raised their hands up high without even a moment of hesitation. I think this example illustrates the lack of self awareness in the Asian students.

In American society which seeks out excellence through competition, a person without a clear sense of his being an American cannot have a vision of his future. Such a person would lack the sense of direction, motivation, and dynamic drives. The example of the Asian students shows us that our sons and daughters are no exceptions to this problem.

Ick-whan Lee: Isn't it true that the reason why our children cannot raise their hands when asked if they are Americans is because many of them are Koreans who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just recently? Take the second or third generation children, for example. With or withou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ir background, they would certainly raise their hands when asked if they are American, would they not?

Ke-Hi Oh: Yes, they would. That's why we need to define what an American is. Some say your skin has to be white to be an American; some say a black person is an American too; still others argue why am I not treated as an American when I have American citizenship? On the one hand, we need to define Americanness to our children. On the other hand, we must also let our children know that the mainstream American society has a tendency to recognize only those who are fluent in English as worthy of respect, while it tends to look down upon those without the mastery of English as if there were something gravely wrong with them.

We must let our children know that their talent and competence can be recognized only when they are fluent both in English and Korean and know both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inside out.

Ick-whan Lee: Thank you, Dr. Oh, for your observations. Now I would like to ask Mr. Kun Hong Park why you are sending your sons to the Friday Korean language school. One goes to high school and the other is a middle school student. Why do you take them to the Korean school every weekend?

Kun Hong Park: I am doing so for several reasons, practical as well as abstract. Firstly, there is a growing communication gap between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who are forming an immigrant community while adapting to the American way of life since their recent arrival and our children who are going through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Teaching Korean to our children is necessary because it serves the practical purpose of having the second generation learn the mother tongue to enable them to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Secondly,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is necessary for defensive reasons as well. The other day I asked my children why they think they should learn Korean, and this is the answer I got from them. "Americans look at my Oriental face and assume that I know the Oriental languages and cultures very well. When they find something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they bring it to me, saying that 'since you are an oriental, you must know all this. Now explain.'" "Since Americans approach us with an attitude that implies 'You are not an American because you look different,'" my children said to me, "we should be prepared for that by learning about our language and culture." In a situation like this, a defensive motivation is at work in the need fo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rdly, we need to teach Korean to our children in order to firmly establish their sense of identity, which Dr. Oh has commented on. On an abstract level of our thinking, if we identify ourselves with Koreans, we must know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an inseparable part of Koreanness. The sense of identity intensifies in proportion to how much one considers oneself to be a Korean. If one sees oneself as a 100% Korean, to that extent one would feel the need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Perhaps with the passage of time, when it comes to the fifth or sixth generation who would see themselves as 10% Korean, the need for the Korean language might decrease.

Finally,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while we are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to our children, it is also possible to breathe into them the spirit of cooperation within the immigrant community, which we are involved in forming.

Ick-whan Lee: The focus of our discussion to this point has been on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we include the Korean culture in your

discussion since what we want to teach our children is not just the language alone, though it should be given a greater emphasis.

Now may I ask Mrs. Hae Sung Shin to share with us some of your observations on your actual experience of teaching the kids in the classroom?

Hae Sung Shin: I teach a class of youngsters, mostly second and third graders, at the Seattle Korean School. It's a gratifying experience to watch those youngsters studying Korean on Saturday morning during the hours other kids would spend watching cartoons on TV.

Once in a while, I ask my students if they have difficulty talking to their Mom and Dad, and most of them tell me that they do. Then I put this question to them: "Which would you like better--to learn Korean for yourself and talk to Mom and Dad in Korean, or to have your Mom and Dad learn English and let them talk to you in English?"

After some thinking and hesitating, they tell me that they would rather learn Korean for themselves and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in Korean. Compared to their parents who are busy with hard work, students have relatively more free time. So it makes better sense for children to learn Korean for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Besides, many kids at regular schools in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take French, Spanish and other languages for a second language. If our children take Korean as a second language, they can use it later in writing letters to their grandparents or to penpals. "Isn't this a good idea?" I would ask them. They all agree that it is.

In this way I let them see the significance of what they are doing in class, and I urge them to get the most out of their Korean lessons since they have already missed the TV cartoons anyway.

Ick-whan Lee: Mrs. Shin's view has given u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trend among the many recent immigrants. It is also true, however, that children who were either born in America or came to America at a very early age face problems entirely different from those children who arrived here in their middle school age just a couple of years ago. Would you comment on this point, Mrs. Treadwell?

In Hee Treadwell: Although my children were born here, my husband and I look at it the same way Mrs. Shin views it. When both parents are Korean or even when one of the parents is Korean, children have many advantages over non-Korean children for learning Korean because they are subconsciously seeped in the Korean cultural background through food, manners and etiquette, and visits of relatives. This subconscious or unconscious knowledge of the Korean heritage, I'm sure, makes it easier for them to understand why they are learning Korean. It also makes the language learning easier. This is why my husband and I tell our children that they should learn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i Lyun Lee: As a parent of two boys going to Korean Language School, I would like to add my own feelings to what Mr. Park stated a while ago. Some of you have been emphasizing the need for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but as for me I would like it to go beyond that level. In Korea, you are unconditionally required to take English when you enter middle school. You are required to take French or German in high school. If it's this sort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concept you want to apply to teaching Korean to our children, I would think twice about sending my kids to that school.

When we teach Korean to our children here in America, though only for about three hours a week, what's more important than a simple teaching of the language, though language should come first in priority, is to go beyond the mechanical teaching of a language so that what they learn from listening to teachers and from mingling with their classmates will develop an eye for understanding Korea as a Korean. If it's just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parents can do it at home, too. You can do it on weekends if you buy a textbook, recorded cassettes, and video taped materials. But if our children who belong to a minority among minorities are to lead the life of Korean Americans who are proud of themselves, they should understand the culture and philosophy of Korea, and then contribute to the American mainstream what is uniquely Korean. Children could build their confidence and pride on their ability to give America something new--something uniquely Korean--the Korean heritage.

Teach them how to make "pot-jook" on winter solstice, have them make "song-pyun" together on New Year's Eve, have them participate in a program of Koreran classical dance and bring in a film once in a while and show them the Korean way of life. In my opinion this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eaching 가갸거겨 simply for the sake of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I thank the principals of two Korean schools in our area, Dr. He Hi Oh and Mrs. Gloria Lee, although much belatedly, for their dedicated efforts in this direction.

Jong Tae Kim: May I respond to Mr. Lee's comment?

Ick-whan Lee: Yes, please.

Jong Tae Kim: I have been teaching at the Seattle Korean School for a little over two years. When I ask my students how they like their Korean lessons, the majority of them show a lukewarm, if not negative, response: since it's our mother tongue; because their parents force them to; because there's a possibility of taking it as a second language when they get to high school--these are the usual answers they give for attending the Koran language school. But once they visit their mother country, their attitude toward the Korean language changes a great deal. My cousins belong to this category. In their visit to Korea, they meet their uncles and aunts and other relatives and make friends with other children, but since their Korean isn't good enough to carry on a conversation, all they can do in response to a number of questions put to them is to shrug their shoulders. When they come back after having to shrug their shoulders so many times in Korea, they are determined to learn Korean, and they work hard on it. When, in this way, the kids who used to respond skeptically with such questions as "why on earth do I have to study Korean?" come around to a positive attitude, we try to inject the spirit of the Korean race and cultural values, just as Mr. Ki Lyun Lee has emphatically pointed out, rather than simply teaching it as a second language. We at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ten take out a film from the Korean Consultate and show the Korean customs, the way children grow up in Korea, the history of Taekwondo (martial arts), the si-jo (a form of poetry) recitations, etc. While small doses of Korean culture injected by means of audio-visual materials awake our children to the value of our culture, the school and the family work together closely for maximum effect of our teaching effort. We are trying hard to achieve the goals, which Mr. Ki Lyun Lee hopes to see realized.

Ick-whan Lee: Thank you, Mr. Kim, for describing the teaching principles of your school, which I think is definitely worth applying in that direction.

Now there is one person among us tonight who has thought abou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our second generation more than anyone else in Seattle, and who has made the biggest contribution to that cause. That person is Mrs. Gloria Lee, currently principal of the Seattle Korean School. Mrs. Lee, would you please tell us about your thoughts at the time of founding the school as well as the progress made since that school began its teaching.

Gloria Lee: I'm afraid what I have to say on the subject might overlap with what's already been pointed out so well by many of you.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founding the Seattle Korean School is to develop individuals who, with a clear sense of the Korean American identity, are devoted to family life and are capable and willing to contribute to society. In the days prior to World War II, many Asian American students were reluctant to go to college. They gave up all their hopes and dreams because their sense of identity was crushed by the social environment. They could not join a college faculty even if they had a doctoral degree. In a situation where manual labor in a factory is the best employment offered to an Asian with a PhD in engineering, isn't it more sensible to get the vocational training right after finishing high school, instead? Thus, there was a tendency among youngsters of Asian descents to give up high ideals and become members of a lost generation.

We are now in a somewhat similar situation.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who have just recently arrived from Korea a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foundation of an immigrant community, where the second generation children are growing up. I think this is a period in which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our children is most urgently needed

Everyone present here tonight has had a very high education. You have used your wisdom and knowledge effectively in raising your children, most of whom are highly talented. So you have little or no problems with your children. But many of the recent Korean immigrants are faced with extremely difficult problems in raising their children--problems which made them realize that they cannot and should not trust their children's education solely with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Both the mother and father had to go out to work to earn a living. For many immigrant families, this is the pattern of life that goes on for a decade or even longer. In the meantime, their children have grown into a world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the parents are living in. In the language they use and in the style of life they are leading,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are literally worlds apart. This is a phenomenon recurring in many immigrants' homes. The children start going in different directions from the age of seven.

This is why I believe now is the time for us to establish Korean schools with all our effort, time, and money, not just in Seattle but in all cities and towns in America and to give a good Korean education to Korean American students.

The Seattle Korean School began with these goals, and it's been only two years since it opened, but the results are encouraging. When the children first came to Korean School, their initial response was "I hate Korean School" as Mr. Jong Tae Kim has mentioned. But it didn't take them long to

find out that Korean School teachers and the way they teach are different from American teachers. Korean School teachers care about what they teach and their students like mothers care about their children.

When a seven-year old started humming the song "mu gung hwa" (means hybiscus--the Korean national flower) which she learned at the Korean School, the mother got out of the bed where she was resting from the fatigue from her job, and the sister and brother who were glued to the TV also came out; and they all joined the seven-year old, singing "mu gung hwa" together. At a home where the ga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as ever widening and where there was rarely any communication between them, the song learned by a seven-year old at Korean School bridged that widening generation gap and brought them closer together again.

I also visit our church members regularly at their homes with our minister. Two years ago the children used to run away to hide in the back room when their parents told them to greet us in Korean. Now it's different. Even before their parents ask them, the children come out to the front porch and greet us in fluent Korean. These children are the students of the Korean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children who do not attend the Korean School still hide themselves in some corner of the house because they are self-conscious about their inability to speak Korean.

When my phone call was answered by a child, he or she used to yell out for mommy before even uttering a word, but now the child wants to know if you want to talk to the Mom or Dad, and manages to carry on a short dialogue in Korean.

These results make the teaching effort a rewarding experience while those positive effects bring joy to the parents. The goal of teaching Korean is to engender a belief in the Korean American identity--a belief that I am a Korean and at the same time I am an American. In two short years we are reaping a harvest of results that are promising.

At the Seattle Korean School classes are held for three hours every Saturday morning. And we are teaching two hours of Korean and one hour of history, geography and ethics. These three subjects are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language text by the same teacher who teaches the two hours of Korean class.

Encouraged by some of the promising results which are brought about by the efforts of our dedicated teachers, we are determined to continue our efforts with great expectations.

Ick-whan Lee: Thank you, Mrs. Gloria Lee. For the past one hour, we have been disucssing the goals and the needs for teaching Korean to our children. Now I would like you to exchange opinions on the curriculum content and the method of teaching. Please feel free, as you go on, to include your expectations as well--what kind of human beings you would like your children to become through Korean language education. Portray the image of the person you wish your child will grow up to be.

Mrs. Sun Hae Kim, would you please share your ideas as a parent?

Sun Hae Kim: I am sending my two children to the Korean school out of practical and psychological needs, which my children are still too young to appreciate. When asked why they are going to Korean school, their answer is "because you tell us to go, Mom." They have yet to tell me that they are going because the Korean school is fun. For some time at the beginning there was a war going on in our house every weekend between children's resistance and parental authority. They were held captive in the Korean school against their will. But now, a year and a half later, things have improved to a point where they now walk over to the Korean school on their own. They can even read a little, gloating over the 50 points they got on a Korean test out of a 100. This is a great stride for them, because I remember they used to say they were American because they were born in America. They were not aware that they were different from Americans One of the reasons I insisted was that they enjoy their peer group at the Korean school. They went crying but came home smiling. Even now they are not thrilled about the Korean school, but they go there on their own instead of being dragged there.

As to my children's response to the curriculum content, they like the Korean language class most. They find the films shown at school very boring because they're beyond their understanding. They are indifferent to what is taught in history class. My son said that school would be better without Taekwondo and that he wishes he could just learn only Korean. Korean classical dance class is my daughter's favorite probably because of the attrctive costumes and occasional chances to perform. If she had her own way, she would take dance class the first hour and then come home.

Despite these not-so-enthusiastic attitudes of my children, I am very happy to observe some noticeable effects the devoted teachers' effort are having on my children's behavior. Whenever guests arrive or leave our house these days, my children always greet them in Korean, though they are not very fluent. Short conversations take place between them and their grandmother whereas there had been no dialogue before. They can

now recognize the Korean national flag, and on our way to camping trips or short outings, they sing the songs they learned at the Korean school. To teach Korean through music is a very effective means of teaching: it's not as time consuming as ordinary classroom instruction.

Subjects like Korean history or geography should be taught in language classes as Mrs. Gloria Lee said she was doing at her school. Classes meet on Friday evenings at our school, and so students are tired from the week's work and play. Since the progress of Korean school doesn't necessarily depend on the number of subjects taught in separate classes, I think it is important to design lesson plans which can be taught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greater effectiveness. Coloring Korean pictures is not really teaching anything beyond the level of kindergarten coloring activities. Films may be effective if shown once in a while, accompanied by proper explanations, but too many films shown too often may backfire and breed boredom in the children.

Ick-whan Lee: Mrs. Soon Ja Kim is president of the PTA for Seattle Korean School. Mrs. Kim, would you please tell us about the kind of character you hope Korean School will develop in our children?

Soon Ja Kim: There may be other reasons for coming to America, but it seems to me that most people give better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as the main reasons for their immigration. But in reality, that purpose is often neglected or forgotten. While the parents strive to eke out a living, the children have grown without getting a better education, for which they were originally brought here. Children have adopted the American way of life in custom and culture, and the dialogu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s disappeared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which brings about a lot of youth problems that sometimes lead to tragedies. Because parents are steeped in the Korean heritage, they hope their children would behave more in the Korean way, while children lack an understanding about Korea and its culture and customs. I think the main function of Korean School should be to find solutions to this widening generation gap caused by language problems.

Firstly, children should know one's mother tongue if one is to love and understand one's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as one's parents at home. By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and th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at Korean School, I hope they may develop a vision for their future careers in American society--a vision that would give them confidence in themselves as Korean Americans who are contributing members of the larger American society.

Attending Korean School has its own problems, in managing time and workload and in controlling the child's fatigue factor. Going to Korean School means extra work added to the five-day work schedule of their regular school. And in our case, after taking the children to Korean classes on Saturday, we have to spend all day Sunday because we are members of the Church where Korean classes are held. So our children do not have any free time at all, and sometimes their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verlaps with Korean classes.

But this is one price worth paying for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ich is an essential part of the Korean American who contributes to American society.

Ick-whan Lee: Next we will move on to the issue of the level of achievement in teaching Korean to our children. At times I get the impression that we are treating the children raised in America the same way we treat children growing up in Korea. To me they are quite different. I think we should take this difference into consideration when we discuss the level of fluency we would like our children to achieve in the Korean language as well as in their behavior patterns. As the children grow older, the subject of covers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becomes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difficult, in which case the dialogue breaks unless the parents use the language children are familiar with--English. This happens so often whenever subtle and delicate problems have to be resolved.

Given this kind of limit, what should be the level of achievement and what should be taught? What do the children gain from our effort? We should address ourselves to these questions. Also I would like your opinion on whether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re absolutely necessary in the growth of an individual. Can a person who knows no Korean and no Korean culture develop his or her self-awareness?

In Hee Treadwell: I don't think it's an absolute necessity. Even without any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you, as a U.S. citizen, still have many occupations to choose from. But I want my children to learn about the Korean cultural background for additional enrichment to broaden their insight, because my grandparents and my parents are Korean, and because I am a Korean. Frankly, it is impossible to expect a high level of fluency. We cannot expect the kids going to weekend Korean classes to be able to give a formal speech in Korean. But I remember my child reading aloud what she saw on a drugstore billboard as we were driving

by, saying "yakbang." Then she asked me if she was right. This was about two months after she began going to Korean classes, and I was very proud of her. My child too was proud of what she had learned although she knows perfectly well that she hasn't mastered the language.

I also remember the days when I was a young child--I am sure you do, too--those days when at the repeated urgings by my parents, I simply went through the motion of doing the things they wanted me to work hard on, and how I wish now I had worked on it harder then. Although the children are too young to recognize the need now, I am certain that there will come a time when they will wake up to the moment of realization one day and say, "Ah, this is the reason my parents took me to Korean School." I think we should be satisfied with this. It's enough to satisfy me anyway.

Ick-whan Lee: Mr. Yu, you must have something to say on the subject.

Daeshik Yu: Yes, I want to begin by commending the excellent work by the teachers and parents who are serving the two Korean schools. The kids going to these schools are very fortunate.

You have cited many specific examples that illustrate the happy results of the Korean language instruction. I want to share with you another one I saw in the letters written by the students my wife taught. At Seattle Korean School my wife taught a si-jo, a poem, to emphasize that no matter how difficult they say the Korean language is, it can be learned if you keep at it. She had them recite the si-jo at the beginning of her class, sometimes together, sometimes individually, until everyone in class could recite it fluently from memory. Recently my wife had to stop teaching because of illness. Then my wife received a sort of get-well letters from her students. Every letter cited the si-jo in full, with some changes made, to tell my wife that no matter how serious they may say your illness is, it can be cured if you are spiritually prepared to fight it. So be strong and get well quick, the letters urged her. All this was in perfectly readable Korean. As I saw the tears running down from my wife's eyes as she read her students' letters, I said to myself, this is an example of the results teaching Korean can achieve.

To get to the topic of tonight's discus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we take a look at some of the problems we may encounter as we emphasize the Korean identity in America, and also the problems facing individuals when we emphasize the community consciousness calling for unity and oneness.

If we were discriminated against by a white American for reasons of our race, we would protest racial discrimination, resorting to the democratic principles which America has been trying to realize from the time of the founding fathers, or citing specific laws that forbid it. We should fight against such bias. Now when we emphasize our Koreanness in portraying our image, we are in effect stressing the fact that we are different from Americans. This seems to be a form of self-imposed discrimination. While we say that others should never discriminate against us, we are saying at the same time that we should take pride in being different from white people or black people. Are we not applying a double standard here? If so, we've got a problem. I think our candid discussion tonight should touch upon this problem.

The next question I raise for our discussion is the relation between the ethnic identity and the individual identity of the people who make up our ethnic community. Cultural identity or ethnic identity does exist when we categorize people in a broad sense. But what is also important is the sense of individual identity, without which individual differences and charcteristics would disappear, everyone thinking one thought and all pursuing one and the same goal. Certainly, our children should know that they have inherited Korean blood, and that there is a cultural homogeneity in their background. But if we want their intellect and emotion to grow and if we want them to maximize their talents on the international stage, isn't our emphasis on Koreanness too narrow a frame which might stifle their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e need of the parents and the need of the Korean community as a collective entity can stimulate our children's imagination to make outstanding contributions in such areas a Korean American studies and community services. But we should also encourge our children to explore all areas of the humanities and sciences. There are times when ethnic identity alone does not solve all the problems which individuals within an ethnic groups are faced with.

In short, I suggest that we discuss how to answer the question if we were asked whether our emphasis on the Korean identity is not self-imposed discrimination. Secondly, when emphasizing our cultural boundary as the basis of our Korean identity, how do we explain to our children the individual differences that exist within that broad boundary.

Ick-whan Lee: The reason why I kept asking you about what kind of persons you want your children to grow up to be is because I see a big difference in their social enviroment, due largely to the choice made by

their parents to live in America. Among us the first generation who came fully immersed in Korean culture, there is a tendency to believe that cultural identity is a panacea for all ills. We tend to impose this myth of Korean culture as panacea upon our children But reality tells us it's not a panacea. Kids born and raised in Korea and kids raised in America are different. I think we should define the differences in order to determine how much Korean education we should give our children, and to what extent.

Kun Hong Park: Seen from the continuum there is the Korean at one end; there is the American at the other end; and in the middle there is the Korean American. The children of the recent immigrant generation are fated to the middle ground of the Korean American's position.

To try to raise our children in America exactly the same way they would be raised in Korea is the same thing as trying to turn an impossibility into a reality. Ideally, we wish that our children will be able to master both English and Korean perfectly. But this is as impossible as it is for a person to be in two places at one point in time. I think it is an unachievable vanity for us to try to raise our children exactly the same way they would be educated in Korea. Frankly speaking, I would be scared if our children were to become just like the children being raised in Korea, because in many respects our children are more genuine and untouched by sophisitry, more candid and humane than their counterparts in Korea.

On the question of self-imposed discrimination which Mr. Yu raised a while ago, I think there is a potential danger in us to follow the line of self-imposed discrimination when we are not sure of ourselves. When we have no English and no understanding of American society, our lack of confidence would force us to shrink and hide inside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outside world, constantly emphasizing our own selves. To me this is self-imposed discrimination.

But there is another side to discrimination--the discrimination imposed not by ourselves but by others from outside, which blames me on things I am not responsible for. In this kind of situation, discrimination is not self-imposed since I am getting its impact from outside. We should fight off this discrimination at all costs, and the answer lies in having confidence in ourselves. As Mrs. Gloria Lee has stated, we should raise our children to become individuals equipped with decent personality, clear-headed intellect, and charged with energetic spirit, who can establish themselves in American society, fighting off all the barriers of bias and prejudice.

Ick-whan Lee: The curriculum of Korean schools includes culture, history,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nd of course, the Korean language rightly given the emphasis it deserves. By observing my own three children's experience at Korean school, I learned that the peeer group association is sometimes more important than what they actually learn in classes. Mrs. Qwihee Lee, would you like to comment on this aspect of Korean language school?

Qwihee Lee: Peer group is an issue quite different from the issue of what sort of individuals Korean education should try to develop, but the two issues are also related. I agree with everything that has been said tonight. I too had my share of struggle in talking my children into accepting Korean school. But what I want to point out is that we must admit a possibility that our children's ideas of what they want to become when they grow up may be quite different from what parents want them to be. Our discussion on whether to raise them as "Korean Americans" or "American Koreans" may be just a wishful thinking on our part to satisfy ourselves.

I understand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is going to hold a separate panel discussion with the children from our community. Perhaps, we should think about the issue again after we listen to what the children have to say about what they want to grow up to be. Our expectations should agree with the children's ideas. Only then our effort to educate them would take effect.

To children being raised in non-churchgoing families, the Korean community we so often refer to tends to be just an abstract concept. My children, for instance, did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go where only Koreans are gathered and mingle with them en masse. Consequently, when we went to live in Korea for a couple of years, the children were shocked to find so many people with black hairs. If there had been a Korean school which my children could have attended before we went, I think the shock would have been much less.

There is a peer group at Korean school formed among the kids during the past year when my children have been going. The children come from different social and family backgrounds; they all go to different schools weekdays; their ages range from elementary school youngsters to high school teenagers. But the stresses to which each child is subject are quite similar because of their common social environment. Just as we are gathered here to share our problems and agonies tonight, children should be given a chance to share their problems and troubles, finding role models among themselves and for themselves. I believe this is one of the major functions Korean school should serve.

When teenage girls get together, sharing a common style or a fad in dress or behavior patterns, I think it helps them a lot in coping with the stresses that come with the process of growing up.

The next problem is one that I have not yet experienced for myself, but a problem encountered by parents with older children. These parents raised their children strictly Korean way. Now they have reached the marrying age; some are well past that age. But they don't go out with American boys nor with Korean boys, because their parents fail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m to meet and find candidates for their mates.

This is not to suggest that Korean school should be a place for boys and girls to find their mates. But I want to point out that it is important, especially for older students, to formulate the image of Korean boys and girls through their first-hand observation of the behavior patterns of their peers.

Ke-Hi Oh: I think Mr. Yu raised a very important question tonight, and Mr. Park has given a good answer from a pragmatic point of view, and Mrs. Lee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an opportunity to from a peer group, through which students can analyze and understand themselves by observing one another's behavior. Children growing up in America are different form those being raised in Korea because they live in two distinct social settings.

First of all, children growing in America should have a good command of English and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mainstream culture. Second, they should have a good command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e should educate our children to become dynamic individuals who actively contribut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ffairs while at the same time work with people from other ethnic groups. These are the principles that I am applying in my Korean school, because the question of how to educate our children in America goes beyond the field of education and ultimately becomes the question of racial relations.

As the old theory of America as a melting pot came under attack for its inaccurate representation of ethnic and cultural multiplicity, the theory of cultural pluralism, as you know, has replaced it. Cultural pluralism emphasizes three points: firstly, an ethnic group and its culture should be recognized as an entity, unique and independent in itself. Secondly, members of a variety of ethnic groups live together in a universal society formed by ethnic groups, and the official language in that universal society is English. So at night they live in the ethnic groups they belong to, using their own native languages and preserving their own cultural heritages. During the day time they go out to the universal society, which recognizes individual cultural differences but communicating in English. Thirdly, all ethnic groups are granted equal opportunities, but each group has the right to unite in competition with other groups. These three points emphasized by cultural pluralism are the criteria by which we determine the content of what should be taught to our children.

We should teach the basic philosoph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Then, the student will be able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cultures, working in cooperation with other ethnic groups. Another reason why we should teach Korean to our children is that when our group is abused or mistreated by another group, you can overcome this discrimination by knowing yourself. Furthermore, when they compete with other ethnic groups,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will increase the ability to unite with fellow Korean Americans, and compete with others on the basis of strength and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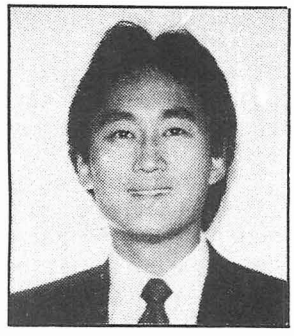
Ick-whan Lee: I want to thank everyone tonight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iscussion. There are several other issues that I had planned to discuss with you, but I'm sorry to say we ran out of time. I want to repeat again that tonight's discussion will appear in the first issue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both in Korean and English some time in June.

We are planning another discussion on the same issues you have discussed tonight with a group of young students. And that discussion will appear in our second issue in two languages. We feel that it is about time we shift our focus gradually from the first to second generation.

Another area that calls for our attention is the fact that the two Korean schools have not yet established any official relationship with the School Districts in our state although it's been two years since the Korean schools began their functions. Whereas Japanese and Chinese are offered as second languages in high schools, Korean has not received recognition as a second language. The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together with the teachers and parents of the two Korean schools, would like to start a campaign to persuade the School Districts to offer Korean as a second language.

Thank you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and we share your hope to reap a fruitful harvest of your teaching efforts at Korean Schools.

Irresponsible Journalism: Model Minority



Harold Riach (Young Shik Shim)

Recently an article entitled "The Promise of America" appeared in the June 2 issue of Parade, a magazine with a national circulation. The subject matter it presents, the successes of the Asian Americans, has appeared with increasing frequency in the media during the last two years.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a letter I have written to the author of the article.

After decades of unrelenting yellow journalism, newspapers and magazines these days have found another way of stereotyping the Asian Americans. This new wave of articles hail us as the "model minority," destined to exploit every opportunity to achieve, if nothing else, economic and academic superiority. Their collective praise of our achievements is so sweet that it borders on the saccharine.

As a Korean American immigrant, my gut reaction to these ostensibly image-restoring articles is somewhat ambivalent. On the one hand, these sweet success stories are definite improvements over the Ching Chong Chinamen image with which the media has assaulted our sensibilities in the past; but, on the other hand, these recent articles still present a skewed image of the Asian Americans, i.e., that almost all Asian Americans are now successful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This new nationwide trend of typecasting Asian Americans does mask for the moment the disparaging image the media has created in the past,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continues to portray only one segment of the Asian American population, and hence unfairly lumping the rest of the community with that group which has just now caught the media's yuppyish fancy: the educated and the successful. In other words, this is just another head of that same ugly beast of media distortion, which has preyed upon the Asian Americans from the day when the first group landed on our shores.

Of course, I am very proud of the gains we have made in the American society. However, when one segment of an ethnic minority group is depicted as representing the whole community, certain injustice results. At the very least, it creates the illusion in the mind of the public that Asian Americans are faring much better than they actually are. This public illusion can and often does provoke drastic consequences. For example, this unbridled optimism about the economic and academic posture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is partly responsible for the recent attempts by the majority to dismantle affirmative action programs for Asian Americans, thus denying opportunities to many who come from very disadvantaged backgrounds. On a more ominous note, these inaccurate articles can foment racial violence. I am sure you have read about the Vincent Chin murder case in Detroit, where two unemployed Whites, motivated by economic jealousy, bludgeoned this Chinese American to death with a baseball bat on the evening before his scheduled wedding.

It appears that these articles have indiscriminately used the 1980 U.S. Census to buttress their claims that the Asian Americans have a higher median income than Whites. But common sense tells us that census reports are always inaccurate for immigrant groups, especially for recent immigrants. Just ask yourself what a recent immigrant with language difficulty would do with a census packet received in the mail. Then also consider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Southeast Asian refugees who have arrived in this country in the last five years, the majority of whom have barely subsisted on what menial labor they could get from time to time and on the paltry governmental assistance they have received (and soon no longer will receive). If one considered these factors, one would be more cautious in making a such conclusion from census reports.

I feel that responsible journalism always strives to make accurate reports, rather than to engage in speculation, conjecture, or sweeping generalizations. Should you ever have the opportunity to write another such article in the future, please do not use a small, somewhat insular groups of Koreans in Kansas City to color the whole Asian American community in the U.S., which is as diverse as any ethnic group and is not subject to sweeping generalizations.

In Memoriam

Yunja Yu

Yunja Yu, the wife of Daeshik Yu and the mother of Kyung Hak, Kay Kyungsun and Dennis Kyungjin, died of cancer i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ospital on September 27, 1985.

Yunja came to Seattle in 1968 to join her husband who had arrived four months earlier for his graduate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he came with their three children, then 1, 3 and 6 years old. During her 17 years in Seattle, she raised them to become fine young people. To many of her friends, she was the model of mothering.

In 1972, Mrs. Yu started working as a secretary in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1977, she transferred to the Dean's Office to work for the associate dean for research. In 1980, she was promoted to administrative assistant to the Dean of the College of Engineering--the position she held to the time of her death.

The College of Engineering recognized the excellence of her dedicated work by setting up the Yunja Yu Memorial Fund at PeoplesBank in the U.W. HUB.

Mrs. Yu also taught at the Korean School of Seattle on weekends. Before the founding of the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of which she was a board member, Yunja devoted many hours for Korean patients as a volunteer interpreter. When the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was first formed, Yunja drafted and translated the constitution, wrote the KCCC English brochure, and organized a fund raising recital with her violinist daughter.

Yunja Yu also played a vital role in founding the Korean American Research Project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s well as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While in her sick bed, battling with the side effects of radiation and hyperthermia treatments, Yunja organized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fund raising dinner at the U.W. Faculty Club, transcribed the Joe Hong interviews, and typed all the manuscripts for the English portion of this Journal.

With the death of Yunja Yu, the world has lost a bright and kind spirit whose love of life overflowed from her close-knit family into their friends and relatives both in the Korean and American communities.

Editor's Note

In the next issue of our Journal, we will take a look at the 40 year history of Korean Americans in the Northwest through an oral history interview with Mrs. Gloria Lee (known to the Korean community by her maiden name Kan Nan Kim) who, since her arrival in 1948, has been very actively involved with many aspect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the church, the Korean language school, counseling service and the Korean Association. She will recall her association with the Korean bachelors who had come on the first wave of Korean emigration and lived in Seattle's Chinatown in winter months and went to work in the Alaskan cannery during the fishing season. She will tell us how she and her husband Mr. Chang Hey Lee helped one early immigrant in particular, picking him up at the Walla Walla prison, finding him a place to stay in Chinatown, and what finally happened to him. Mrs. Kan Nan Kim will also tell us about the beginning of the Seattle Korean Association, of which her husband was the founding president. Mrs. Lee's story will provide an important link between those who had come to the state of Washington before and after World War II.

We will continue to feature early immigrants after the story of Mr. Ji In Hong told by his son Joe in this inaugural issue. In our next issue, we will carry the story of three "picture brides" in Gresham, Oregon, who are now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Their family history stretches over four generations, and they are a living testimony to the ninety years of Korean American history. The power of their will to overcome the incredible hardships, different values evolving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onflicting attitudes towards dating and marrying outside of the Korean race and their repercussions, the loneliness that accompanies age--on these and other matters, we have much to learn from the early immigrants' experience. Those of us who came in the 60's have not yet had time to experience these problems.

Oral history interview tapes on six other early immigrants--Joo Eun Yang, Won Yong Kim, Sa-sun Hwang, Hyung Soon Kim, Chung Soon Ro and Seung Hwa Ahn--will also be incorporated into the Gresham "picture bride" stories.

The Panel Discussion section of our second issue will focus on Korean American students of high school and college age, covering a wide range of topics--what it is like to be growing up in America, their experience of bias and prejudice at schools and neighborhoods, their own aspirations and parental expectations, dating and moral restrictions imposed by the Korean tra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concept of success and that of parents.

The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will hold a series of panel discussion with students at the U.W. Ethnic Cultural Center in cooperation with the U.W. Korean Students Association, the Korean language schools, and bilingual educators in the School District.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k you to support us by sharing with us what you know about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s involving Korean Americans. For our next issue in particular, any information on the career of the late Mr. Chang Hey Lee gained through your personal association when he was with us would help us get a fuller picture of his life in America since 1930.

Send your information to:

Daeshik Yu, Ph.D.
Project Director
Korean American Research Project
Department of American
Ethnic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98195
(206) 543-6301 or
(206) 523-4902 (H)

한인 이민사 연구 편찬회지는 년 2 회 5 월과 11 월에 출판합니다 .
년간 구독료는 일반 $ 50.00 학생 $ 12.00 .
회지에 기고할 원고와 편집에 관한 서신은 하기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한인 이민사 연구 편찬회
6803 - 24th Ave. N.E.
Seattle, WA 98115

The Journal of Korean American History is published biannually, May and November of each year. Yearly subscription rates are $50.00; students may subscribe at $12.00 per year. Manuscripts and letters concerning editori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to: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6803 - 24th Ave. N.E., Seattle, Washington 98115.